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6권 제1호 (통권 86호) / 2021. 3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1호 (통권 86호), 2021년 3월호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권오병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 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 록 141-81-36939

주 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 화 02-3272-4967

팩 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 유용욱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 Yong-Ouk You
- 02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 이은형 / 이선경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 Eun-Hyoung Lee / Sun-Kyoung Lee
- 049 국가와 함께/없이 사는 법 - 존 요더의 국가론 | 김기현
How to live with/without the State- The State Theory of John Yoder | Kim, Kihyun
- 075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 방은영
Exploration of Change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 EunYoung Bang
- 105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연구 | 송희영 / 강연정
A Research on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 | Hee-Yeong Song / Yeon-Jeong Kang
- 137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 오혜정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Articles from 2001 to 2020 | Hye Jeong Oh
- 165 뉴 노멀 시대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의 기능과 가능성
- 국내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 김태룡 / 안승범
Functions and Possibility of Christian YouTube Contents in New Normal Era
- Focused on Christian Personal Media Channels in Korea | Tae-Ryong Kim / Soong-Beum Ahn
- 195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 | 이아름 / 이숙경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 A-Reum Lee / Sook-Kyung Yie
- 227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뤼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 이상민
An Anlysis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 Sang-Min Lee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유용옥(Yong-Ouk You)**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facing the world in recent years is a widespread epidemic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Pandemics have long accompanied human history, threatening church services and Christian missions. However, the pandemic was not always negative for Christian missions, and sometimes gave Christianity a chance for 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andemic has historically influenced Christian missionary work, and to gain insight to find the direction in which Christian mission should go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re were two major pandemics in the early Christian era. At that time,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saw the care of patients as a way to practice Christ's love even if they risked death. This true practice of love impressed the Romans and contributed greatly to Christian mission. In the era of religious reform, the reformers not only cared for patients, but also practiced the love of Christ by presenting the hope of eternal life after death. In the early days of Protestant missionary work in Korea, People with infectious diseases were cared for in Christian mission hospitals, which changed their perception of Christianity. These educational and medical ministries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Key words : Pandemic, Christianity, Mission, COVID19

* 2020년 12월 4일 접수, 2021년 2월 1일 최종수정, 2월 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원광대학교(Wonkwang University) 치과대학 교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gene7788@gmail.com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I. 들어가는 글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으로 모든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2020년 초 처음으로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어 집단 감염을 유발한 COVID19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다. 2020년 여름 COVID19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을을 넘어서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세계의 총 확진자는 38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 1100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북미에서 900만 명, 남미에서 800만 명, 유럽에서 6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news.jkn.co.kr>).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미국으로 확진자가 8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2만 명에 달하였다. 2위 국가는 인도는 확진자가 730만 명, 확진자가 11만 명에 달하였으며, 3위 국가는 브라질로 확진자가 510만 명, 사망자가 2만 3천명이 나왔으며, 4위 국가는 러시아로 130만 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가 2만 2천 명을 넘어섰다(<http://news.jkn.co.kr>). 그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skyedaily.com>). COVID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해외입국자를 차단하였으며, 많은 대도시들이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도시 간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외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였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같은 국가에서는 통행증을 발급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2020년 11월 화이자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은 한국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특정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으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다. COVID19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의 이용이 제한되고, 학교는 물론 학원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의 이용도 통제되었다. COVID19으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 것은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숙제문제 중 하나는 ‘예배’ 문제였다. COVID19 방역체계가 격상되면서 정부는 오프라인 예배는 제한하였으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계는 큰 고민

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논쟁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소형교회들도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오프라인 예배의 금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과 성도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소형교회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2020년 2월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COVID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통제하게 되었다. 선교지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선교사의 출입국은 물론 선교 물자의 왕래가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통제함으로 인하여 생필품까지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 선교사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려 해도 항공편이 끊어져 선교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선교사들 중에는 COVID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선교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에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다(황을호, 2018: 163-166). 신명기 28장 15-21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염병을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이 꼭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나 욕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염병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과거 초기기독교 시대나 중세에도 팬데믹은 나타났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성서시대는 물론 초기 기독교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교회시대에도 팬데믹은 교회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였다. AD 165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역병이 발생하여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때 발생한 사망자 수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을호, 2018: 17-22). AD 541~542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있던 때 페스트로 보이는 역병으로 인하여 비잔틴 제국과 사산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말인 AD 1326~1353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사망자가 약 7,500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유럽인구의 30~60%에 해당한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약 3억 5천만 명으로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의 종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AD 1852~1360년에 발생한 콜레라는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이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1918~1920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는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으며, 약 2,000~5,000만 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10~2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AIDS)는 처음에는 1976년 콩고에서 발견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약 36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현재도 3,100~3,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선교는 지속되었고, 때로는 팬데믹이 선교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기 기독교시대의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지상사역 이후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김은수, 2015b: 114).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은 신격화된 황제와 로마의 신들(gods)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로마는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배의 방식 로마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황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로마제국과 황제의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김의환, 1982: 70-7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이필찬, 2013: 60-68). AD 64년경 네로황제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후, 네로가 로마에 불 질렀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화재 일으킨 범인들로 몰아 처형하였다.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강요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김은수, 2015a: 40-4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였고, 기독교 변증가 저스틴이 순교하였다. 세베루스 황제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카르타고의 파피티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에레오니데스가 순교하였다. 데시우스 황제 때에도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와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가 순교하였으며, 로마제국의 모든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종파로 간주하여 회당에서 추방하였다(김은수, 2015a: 60-61).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하무덤(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일어났다. 또한 기독교를 배교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초기 기독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생존자체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급속히 확장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 AD 1세기 경에 소수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은 AD 3세기말 750만 명에 이른다(손현선, 2017: 17-33). 이는 로마제국의 인구를 6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가 넘는 복음화율을 보여 준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요인이 팬데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 당시 팬데믹의 유행은 크게 두 차례 있었는데, AD 165년부터 약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AD 249부터 약 13년간 지속되었다(이상규, 2020: 119). AD 165년에 로마에서 큰 팬데믹이 발생하였는데, 이 팬데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후, 감염된 원정군에 의하여 로마로 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팬데믹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약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팬데믹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도 재발하여 로마제국의 인구 중 25~35%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당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재위하였는데, 황제의 정식명칭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의 명칭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불린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AD 180년경 게르만 정벌 중에 이 역병으로 사망한다. 이 당시의 팬데믹은 페스트, 홍역, 천연두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항석, 2018: 163-166). 황실의 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을 보면 인후염, 발열, 설사, 발진과 농포와 폐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249년 무렵부터 또 한 번의 큰 팬데믹이 로마를 덮쳤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집트를 거쳐 로마로 퍼졌고, 이후 전 유럽으로 퍼졌다(장항석, 2018: 163-166). 이 시기에 로마는 이민족의 침범으로 로마의 국경지역마다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쟁은 이민족과의 접촉을 증가시켰고, 팬데믹이 신속하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로마

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팬데믹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불린다. 키프리아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눈의 충열과 실명, 인후염, 구토와 설사, 다리 조직괴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사랑하는 친구라도 외면했으며, 로마의 이교 사제들과 고위층은 도시로부터 도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 황실의 의사였던 갈레노스마저도 로마의 병자들을 버리고 떠났다(장항석, 2018: 163-166). 질병에 걸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버려졌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허다하였다. 죽은 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거리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였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염병만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여도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다(이상규, 2020: 122; 엄성욱, 2008: 39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음식을 먹이고 소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들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엄성욱, 2008: 396-39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있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엄성욱, 2008: 398). 그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 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도왔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 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παράβολανοι)’,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불렀다(이상규, 2020: 123).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희생적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사랑과 봉사로 신앙의 확신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김은수, 2015a: 49-50).

III. 종교개혁시대의 팬데믹과 선교

중세부터 발생해온 팬데믹은 종교개혁시대까지 이어졌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년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주로 흑사병(페스트)으로 알려져 있다(주도홍, 2020: 126-140).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동생과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고(봉원영, 2020: 55), 쾰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조용석, 2020, 141). 볼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박상봉, 2020: 169). 칼뱅(Jean Calvin; 1509-1564)에게도 그가 살고 목회했던 도시에 팬데믹이 평생을 따라다녔다(안명준, 2020: 151). 유럽의 도시에 흑사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도피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루터가 활동하던 종교개혁시대에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항상 루터 주위를 맴돌았다. 루터가 법학공부를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1507년 사제 서품을 받을 당시에도 흑사병은 독일을 위협하였다(박규환, 2008: 48; 이상웅, 2017: 59-63).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하던 1513년경에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흑사병으로 약 1,800명이 사망하였으며, 다른 도시들에서도 흑사병이 유행하였다. 당시 흑사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의 편지 속에는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은 고해성사마저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다(주도홍, 2020: 127). 황제였던 막스밀리안 1세조차도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을 준비했다고 한다. 1520년 독일의 황태자 칼 5세(Karl V)도 흑사병 때문에 자신 거주하던 아헨을 떠나 피난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흑사병은 1527년 루터가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크(Wittenberg)에도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으로 작센의 선제후인 요한은 모든 사람이 독일의 예나(Jena)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였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은 예나로 피신하였고, 비텐베르크를 빠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텐베르크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루터도 흑사병이 두려웠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라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서 환자를 돌보았다. 루터는 가족과 함께 흑사병으로 버려져 죽어가는 환자를 본인의 집에 데려와 돌보기도 하였다. 목숨을 내어 놓는 순교적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독일의 브레스라우(Breslau) 목회자였던 헤쓰 박사는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어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교구를 떠나 피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적 있다. 당시 영주들은 전염병이 도시에 퍼지면 대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구를 떠나 대피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구에 남겨진 성도들은 성직자가 없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루터는 마태복음 25장 42-43절의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언급하면서 이웃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함께 이웃을 짐을 나누어지어야 하며, 이웃 곁에 있으면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설명하였다(봉원영, 2020: 57; 주도홍, 2020: 127). 그러나 이웃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손길이 넉넉하다면 죽음을 피하여 대피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말씀(창12:12; 창 26:7; 창 27:43; 출 2:15; 삼상 19:10; 왕상 19:3)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루터는 전염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전염병 걸린 이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 이웃을 돕다가 돕는 사람 자신도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데, 과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전염의 차단, 소독, 정화 같은 방역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이 무서워 너무 쉽게 환자를 버리는 것이나 방역조치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였다(봉원영, 2020: 55-62; 황을호, 2020: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이 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에 따라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흑사병 환자를 본인의 집에 입원시켜 돌보았다.

칼뱅의 생애 가운데에도 평생 흑사병이 따라 다녔다. 그는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하던 시기인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잔 르프랑(Jeanne Le Franc)은 그가 6살 되던 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양낙홍, 2006: 207-209; 안명준, 2020: 153). 그가 14세 되던 1523년 노용에 흑사병이 퍼져 그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érard Cauvin)은 칼뱅의 안전을 위하여 파리 마르슈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56). 칼뱅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사역할 당시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1538년 칼뱅과 친한 사람들이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칼뱅은 다른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하였다. 칼뱅은 전염병을 심판과 연단이란 이중적 관점으로 이해했다. 즉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연단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이해했다. 칼뱅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였다. 또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가르쳤다.

칼뱅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는 도피하지 않고 병원 사역과 교육사역을 통하여 제네바 시민들을 섬겼다. 칼뱅도 흑사병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제네바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다했다. 제네바 시와 협력하여 구빈원을 설치하여 의료사역을 하였고, 프랑스에서 구호기금을 유치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사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빈원은 병자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노인들과 집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병자들을 돌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함으로써, 제네바가 체계적으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의 선교에 힘썼다.

쾰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쾰빙글리가 취리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흑사병이 발생하여 도시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1519년 그가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져 취리히에서 180 km 떨어진 페퍼(Pfäfers) 온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취리히에 흑사병이 발생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취리히를 떠났지만, 쾰빙글리는 오히려 취리히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헌신적 목회로 말미암아 결국 그도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강경립, 1998: 78-79; 황을호, 2020: 48; 조용석, 2020: 141-148). 이 때 쾰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흑사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쾰빙글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체험 전에 그는 그리스 철학과 에라스무스의 성경인문주의에 관한 저서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가고자 추구했었다. 그러나 성령체험 이후에 성경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참된 신학의 의미는 진정한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참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 말하였다(조용석, 2020: 141-146).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의 예전으로 베푸는 성찬식보다, 성령을 통하여 참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성찬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쾰빙글리는 처절한 흑사병과의 투쟁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내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 뼈 속 깊

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조용석, 2020: 141-149). 성령체험으로 흑사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살아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섭리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조용석, 2020: 141-146). 흑사병의 죽음을 극복한 후 병상에서 일어난 쯔빙글리가 작곡한 ‘흑사병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스도여, 저를 위해 일어나소서; 당신은 죽음을 승리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저를 찢러 상처를 입히는 화살을 빼어 내임이 당신의 뜻일진대! 속히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 저를 불러가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따르리이다. ... 온전하든 부서지든, 이 땅에서 당신께서 저의 영혼을 취하시든, 당신의 행위는 선하시오며, 다른 그 무엇도 거룩하고 빛나는 당신의 삶을 더럽히지 못 할 것입니다(강경림, 1998: 79-80).

‘흑사병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교회의 찬송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볼링거가 취리히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고통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박상봉, 2020: 165-178).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였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환자들의 심방을 통해 격려하였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환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취리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서인 ‘병자들의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병자들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박상봉, 2020: 176-178). 그는 이 저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복된 죽음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링거의 글은 전염병의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선교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종교개혁시대의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여서, 흑사병이 끝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박상봉, 2020: 178).

IV. 한국 초기 개신교시대 선교와 팬데믹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는 1884년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김인수, 2002: 129-134; 정현규, 2012: 235). 조선 말기에 시작된 초기 기독교 선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양이라 부르며 배척하였으며, 서구 기독교 문화가 조선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거절하였다. 초기 기독교 선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주도로 조선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조선 선교의 특징은 의료와 교육선교에 있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 거점 지역에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을 만들었고, 그 곳에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건립하여 유기적으로 사역하였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마을 어귀에 귀신을 모신 집인 ‘서낭당’에 가서 병 낫기를 기도드렸으며,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김동열, 2003: 32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9; 문무홍외, 2008: 256-260; 정현규, 2012: 235). 조선 사람들에게 무당은 제사장이며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직업 중 하나였다. 의학이 발전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구한말의 조선인들은 너무나도 원시적이었으며, 심지어 야만적으로까지 보였다. 천연두는 조선에서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종두법이 소개되기 전 조선은 천연두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고, 가족 중에서 천연두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1903년 초 천연두가 유행하여 수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왕실마저도 전염병이 돌았다. 가난한 서민들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을 서대문 밖에 버렸고, 아직 죽지 않은 아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마을 외곽의 나무에 묶어두어서 가족에게 다가와 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여 죽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조선인들은 천연두의 원인을 남방 어딘가에 사는 ‘마마 귀신’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마 귀신’이 집집마다 빠르게 돌아다니며 병을 전파함으로 천연두를 ‘손님’ 또는 ‘손님마마’라고도 불렀다. ‘손님’을 달래어 내보내기 위하여 무당을 불러서 ‘손님굿’을 하였다. 무당은 귀신을 달내기 위하여 북과 팽과리를 치고 거리를 누볐고, 환자의 가족들은 돈과 음식을 귀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면 아이들 얼굴의 마마딱지를 떼어서 절에 가서 불태우며 아이를 살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시를 지붕에 올려놓아 ‘손님’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부적으로 사용하였다(문무홍외, 2008: 210-21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캐나다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서울에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설치하였다. 길가에 버려져서 여름에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따뜻하게 보살피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었다. 더불어 에비슨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를 피해 갈 수 있게 하였다. 의료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의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선교사들에게 감사와 호의를 베풀었고, 이러한 황제의 호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김인수, 2002: 145-146).

조선에 유행하던 전염병은 천연두 외에도 콜레라가 있었다. 콜레라는 천연두보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더 높았다. 1886년 조선에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의 기록에 의하면 콜레라로 인하여 그해 7월에 10일간 3000여명이 사망하였고, 콜레라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하루에 460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886년 서울의 사대문 안에 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사망자가 6천 - 1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1897년에도 조선에 크게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병은 무시무시하게 퍼지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송장이 되어 나가는 일이 허다하였으며, 한 집안 식구가 같은 날 죽기도 하였다(김철, 2010: 173-177). 구한말 조선인들은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이 병에 걸리면 전염이 무서워 돌보지 못하였고,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성문밖에 버려서 성벽 아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많았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마치 개나 고양이와 시신처럼 방치되어 냇물이나 강에 떠다니는 허다했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사악한 쥐의 악령이 일으킨다고 믿었다. 콜레라 환자가 느끼는 경련은 쥐의 악령이 다리 안쪽을 깨물며 올라와 피부를 거쳐 가슴까지 올라와 심장을 갇아 먹는다고 생각했다.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양이 가죽으로 환자의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문지르기도 하고, 집 대문 앞에 고양이 문양의 부적을 걸어 놓으면 콜레라를 일으키는 쥐의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고, 쥐의 악령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무당들은 쥐들을 놀래어서 도망치게 할 목적으로 바가지를 굵어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은 금줄을 치고, 금줄에 고양이 부적을 쭉 부쳤다. 고양이가 쥐의 악령을 쫓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고양이를 기르는 집도 많았다. 실제로 이들 고양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쥐를 쫓아서 전염병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4; 김철, 2010: 176-177).

당시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이 콜레라에 취약한 것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지저분한 하수구의 오물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끓여 먹고, 채소와 과일은 소금물로 씻어 먹을 것을 권장하여 콜레라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56-258). 의료선교사였던 애비슨과 웰즈(James Hunter Wells)를 비롯한 의료선교사들이 콜레라 환자 수 천 명을 치료함으로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신뢰를 얻었다. 애비슨은 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지휘권까지 위임받아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전염병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조선인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의 사역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김철, 2010: 173).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한양성 안의 곳곳에 설치된 검역소의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응급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지원자들은 교육을 시켜서 조수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다. 지원자 중에는 선비나 양반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기꺼이 훈련을 받아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검역관, 조수, 간호사 모두가 조선국기 위에 적십자가 그려진 배지를 달았는데, 가슴에 십자가를 단 의료진들이 조선 땅 어디에서나 일하는 셈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저녁마다 진료소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진료소에 울려 퍼져서 의식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의 사역을 신뢰하게 된 조선 정부도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조하여 임시 응급병원을 세우고, 위생법을 실시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김철, 2010: 173-178). 선교사들과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수, 2002: 146).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지 않고 치료되어 살아서 걸어 나가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어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라도 할 수가 있을 까?” 라며 말하곤 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리를 걸어갈 때면,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 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을 일하고 있네. 무엇 때문에 그러지?”하고 한 사람이 물어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곤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김철, 2010: 181). 1894년 청일전쟁이후 평양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였다(차경애, 2008: 85-91; 김인수, 2002: 145-146). 당시 평양은 콜레라와 이질 등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과 우마(牛馬)들이 죽어 시체로 방치되었고, 불결한 상하수도과 화장실 등으로 인한 오염된 물과 음식 그리고 해충들로 인하여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져서 평안도 지역만 6만 명이 사망하였고, 조선 전역에 30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때 의료선교사였던 홀(William James Hall)과 복음전도자 마펫(Samuel Austin Moffett)과 리(Graham Lee) 등이 병들어 죽어 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특히 홀 박사는 성자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다시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염병 환자를 돌보았던 의료사역은 절망에 빠져 있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다고 언더우드는 증언하고 있다(Underwood, 1908: 102-104).

조선인을 괴롭혔던 전염병 중에 하나는 한센병이었다(최병택, 2010: 228-234; 김원경, 2012: 165, 203). 한센병은 조선인에게는 천형 같은 전염병이었다. 조선인들은 한센병을 부정한 질병, 즉 ‘죄악’의 대가로 이해했다. 환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쫓겨나서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다.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의 가족까지 내쫓거나 불태워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09년 미국 남장로회는 광주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였고, 광주 나병원은 1926년 여수의 신평반도로 이전한다. 이는 1953년 ‘애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산의 ‘상애원’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1909년 설립되었고 이후에는 호주장로회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대구에는 ‘대구 나병원’이 1913년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세워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가족들에게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 된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육시설을 세워 조선에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열어 여성교육사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교육생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생, 첩, 버려진 아이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교육생으로 받아들였다. 그 중에는 천연두에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버려진 아이를 선교사들이 치료하여 교육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많은 전염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이재근, 2020: 197; 김동열, 2003: 323-498). 그 후 서구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술은 19세기 한국에서 의학혁명을 가져왔고 한국 근대의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V. 21세기 COVID19와 선교

20세기 이후에도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반복되었다.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1968년과 1957년에는 홍콩독감과 아시아 독감이 유행하여 각각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2015년에는 MERS,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02-2005년에는 조류독감과 SARS가 유행하였다. 그럼에도 2020년 COVID19가 과거의 어떤 독감보다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인류가 현대 첨단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독감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은 인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했으며, 현대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의 극복을 중요 과제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자들은 세계가 COVID19 이전의 시대와 COVID19 이후

의 시대로 나뉘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COVID19는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흔들었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 2020년 2월 COVID19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COVID19 방역과 의료체계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이런 시점에 COVID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던 곳이 바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었다. 동산의료원은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Woodbridge O. Johnson, 1869-1951년, 한국명; 장인차) 1899년 세운 대구 ‘제중원’에서 출발하였다(기창덕, 1993: 142-143). 존슨 선교사는 대구 약전골목의 작은 초가집에 ‘미국약방’을 열어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제중원’이란 족자를 걸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술을 펼쳤으며 의료이외에도 교육,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서 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http://www.dsmc.or.kr>). 그 후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동산의료원 자리가 있는 동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제중원은 한센병 환자의 구제사업, 천연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 퇴치사업에 힘썼고(이정은, 2006: 200-207; 홍창락, 2019: 34-35).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의학교육을 담당했던 병원이다(기창덕, 1993: 142). 동산의료원이 된 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의 결핵과 콜레라 등 전염병 퇴치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제중원과 동산의료원의 노력은 대구경북지역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정은, 2006: 208-209). 2020년 2월 20일 동산의료원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어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서영성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었다(<http://news.kmib.co.kr>: 2020.5.15). 그러나 존슨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을 수락하고 22일부터 COVID19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동산의료원의 COVID19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COVID19 환자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시스템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고 의료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누가회’는 전국의 누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http://www.kcmf.org>: 2020.3.23). 이후 많은 누가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대구의 동산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진료와 물질적 후원에 참여하였다. ‘글로벌케어’도 동산의료원에 부족한 의장비와 의료인을 파견하였으며(<http://www.kcmf.org>: 2020.4.27), 중증환자 진료로 식사시간도 없는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생필품 구호키트를 만들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왔다. 또한 글로벌케어는 ‘STAND TOGETHER’ 캠페인을 통하여 COVID19로 고통 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마리안들’은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스크 십일조 챌린지’를 진행하여 대구 이웃들에게 부족한 마스크를 후원하고, 대구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독거노인과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을 후원하였다(<http://news.cgntv.net>). 또 전국의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후

원하였으며, 전국의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도 의료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COVID19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https://africaff.modoo.at>).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 특히 대한민국이 경험한 COVID19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COVID19의 첫 번째 유행은 기독교 이단 신천지의 집회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의 두 번째 유행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회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COVID19의 세 번째 유행당시에는 BTJ 열방센터와 IM선교회 등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COVID19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imnews.imbc.com>). 심각했던 것은 이들 개신교 단체들에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COVID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 검사거부 이유는 기독교계 내부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음모론에 기인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국교회연합(CCIK)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였고(<http://www.kidokin.kr>), 대면예배의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하였다(<http://news.kmib.co.kr:2021.1.13>).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기독교 단체들과 연관된 보도들은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https://www.yna.co.kr>).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의 하락은 기독교 선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진보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교회가 이웃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였다(<http://www.hani.co.kr>). 또한 한국 기독교계에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VI. 나가는 글

COVID19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유행했던 팬데믹들이 교회 공동체와 선교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확신과 결속력을 갖게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 생명을 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바쳐진 사랑이었

다. 때로 그러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환자를 돌보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순교’는 라틴어로 ‘martyrium’인데 헬라어 ‘마루투리온(μαρτυριον)’에서 유래하였다. 마루투리온의 원래 뜻은 ‘증인’이란 의미인데, 따라서 ‘순교’와 ‘증인’은 그 어원이 같다(김은수, 2015: 40).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이며 확실한 선교가 되는 것으로, ‘순교’는 ‘복음’ 대한 궁극적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팬데믹의 어려움은 오히려 선교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흡입력으로서의 내적 요인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 COVID19 극복을 위하여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헌신이 비록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세대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경림 (1998). 쾰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 **신학지평**, 8, 66-114.
- [Kang, K. L. (1998). Huldrych Zwingli's reformation thought. *Theological horizon*, 8, 66-114.]
- 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 장 칼뱅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들 -. **교육교회**, 465, 55-58.
-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17). “I dedicate my heart to you” - Jean Calvin's life and his legacy -. *Educational Church*, 465, 55-58.]
- 기창덕 (1993).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2, 142-158.
- [Kee, C. D. (1993). Medical Education in Taegu (1980-1991).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 142-158.]
- 김동열 역. (2003). **닥터 홀의 조선 회상**, Hall, Sherwood. (1978).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서울: 좋은씨앗.
- [Kim, D. Y. (2003).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Seoul: Good Seed Publishing Co. Trans. Hall, Sherwood. (1978).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cLean: MCL Associates.]
- 김우영 역. (2005). **전염병의 세계사**, McNeill, William H. (1998). *Plague and Peoples*. 서울: 이산.
- [Kim, W. Y. (2005). *Plague and Peoples*. Seoul: Yeesan Publishing Co. Trans. McNeill, (1998). William H. *Plague and Peoples*. New York: Anchor Books.]
- 김원경 역. (2012).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Seel, David John. (2011).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서울: 좋은씨앗.
- [Kim, W. K. (2012).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Seoul: GoodSeed Publishing Co. Trans. Seel, David John. (2011). *In All Thing CHRIST Pre-eminent*. The Estate of Mary B. Seel]
- 김은수 (2015a).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 [Kim, E. S. (2015a). *Church History as Missionary History*. Seoul: The Tree of Life.]
- 김은수 (2015b). 초기기독교 확장에 대한 선교 역사적 성찰. **선교신학**, 38, 113-139.
- [Kim, E. S. (2015b). A Mission-Historical Study of the Early Christianity Expansion. *Theology of Mission*, 38, 113-139.]
- 김의환 (1982).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 [Kim, E. W. (1982). *History of Christianity*. Seoul: Sung Kwang Publishing Co.]
- 김인수 (2002).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Kim, I. S. (2002). *History of Christian Church in Korea*.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철 역. (2010). **언더우드부인의 조선견문록**, Underwood, Lillias Horton. (190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서울: 이숲.
- [Kim, C. (2010).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Esoope. Trans. Underwood, Lillias Horton. (1908).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Boston : American Tract Society.]
- 문무홍외 역. (2008). **1900, 조선에 살다: 구한말 미국 선교사의 시골체험기**, Moose, Jacop Robert. (1911). *Village life in Korea*. 서울: 푸른역사.
- [Moon, M. H. (2008). *Village life in Korea*. Seoul: Bluehistory. Trans. Moose, Jacop Robert. (1911).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The M.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 박규환 (2008). [...의 생애와 사상] 루터(1483-1546)의 생애와 사상①. **새가정**, 2008, 46-49.
- [Park, K. H. (2008). [...'s life and thoughts] Luther(1483-1546)'s life and thoughts①. *Christian Home & Family*, 2008, 46-49.]
- 박상봉 (2020). 불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Park, S. B. (2020). Bullinger and the Black Death in Zuric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봉원영 (2020). 팬데믹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 **신학과 학문**, 29, 48-76.
- [Bong, W. Y. (2020).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 the Pandemic Age. *Theology and Other Disciplines*, 29, 48-76.]
- 손현선 역. (2017). **기독교의 발흥**, Stark, Rodney.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서울: 좋은씨앗.
- [Son, H. S. (2017). *The Rise of Christianity*. Seoul: GoodSeed Publishing Co. Trans. Stark, Rodney.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안명준 (2020). 칼뱅과 흑사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Ahn, M. J. (2020). Jean Calvin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양낙홍 역. (2006).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McNeill, John 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Yang, N. H. (2006).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McNeill, John T. (1954).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엄성옥 역. (2008).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서울: 은성.

[Eum, S. O. (2008).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Seoul: Eunsung Publications. Trans.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이상규 (2020).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Lee, S. G. (2020). The Epidemic of the Early Churc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이상웅 (2017).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생애와 주요 저술 (1). **신학지남**, 84(1), 47-86.

[Lee, S. U. (2017). The Life and Main Works of Martin Luther (1483-1546) (1).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4(1), 47-86.]

이재근 (2020). 한국 초기 기독교와 전염병. 노영상외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Lee, J. G. (2020). Early Christianity and Epidemic in Korea.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이정은 (2006). 대구 제중원(현 동산병원)이 근대의료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계명사학**, 17, 191-215.

[Lee, J. E. (2006). The Influence of Daegu Jae Jung Won(Dongsan Hospital) to the modern Medical System of Korea. *The Keimyung Sahak*, 17, 191-215.]

이필찬 역. (2013). **요한계시록신학**, Bauckham, Richard. (200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서울: 한들출판사.

[Lee, P. C. (201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Trans. Bauckham, Richard. (2003).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ge: Cambrige University Press.]

장항석 (2018). **판데믹 히스토리**. 서울: 시대의창.

- [Jang, H. S. (2018). *Pandemic History*. Seoul: Sidaebooks.]
- 정성화, 로버트 네프. (2008).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서울: 푸른역사.
- [Jung, S. W., Neff, Robert. (2008). *The Lives of Westerners in Joseon Korea and Korea Through Western Eyes*. Seoul: Bluehistory.]
- 정현규 역. (2012). **조선, 1894년 여름**, Hesse-Wartegg, Ernst von. (1895). *Korea, 1894 Summer*. 서울: 책과 함께.
- [Jung, H. G. (2012). *Korea, 1894 Summer*. Seoul: WithBook. Trans. Hesse-Wartegg, Ernst von. (1895). *Korea, 1894 Summer*. Dresden & Leipzig: Verlag von Carl Reissner.]
- 조용석 (2020). 쯔빙글리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Cho, Y. S. (2020). Huldrych Zwingli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주도홍 (2020). 루터와 흑사병. 노영상의 (편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Ju, D. H. (2020). Luther and the Black Death. In Ro, Y. S. et al. (Eds.). *Christianity in the face of an epidemic*. Gunpo: Daham.]
- 차경애 (2008).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 14, 63-102.
- [Cha, K. A. (2008). Actual Conditions of Korea as the Battlefield of the Sino-Japanese War. *The Korean Cultural Studies*, 14, 63-102.]
- 최병택 (2010). 남장로회선교부 한센병 환자 수용정책의 성격(1909~1950) : 여수 애양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27-262.
- [Choi, B. T. (2010). The Leprosy Relief and Asylum-establishment of America's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1909~1950).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0, 32, 227-262.]
- 황을호 (2020). **대유행병과 기독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 [Hwang, E. H. (2020). *Pandemic and Christianity*. Seoul: Lifebook.]
- 홍창락 (2019). **초기 제중원(대구동산의료원)의 의료선교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신대학교.
- [Hong, C. R. (2019). *A Historical Study on the Early Development of Medical Mission by Chejungwon (Daegu Dongsan Medical Center)*.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Underwood, H. G. (1908). *The Call of Korea, Ploitical-Social-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국민일보 2020.5.15. “코로나 최전선 86일째 사투..거점병원 지정은 하나님의 계획.”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 (검색일 2020.5.30.)

[“Corona’s 86th day of battle at the forefront... The Designation of a Base Hospital is God’s Plan”, Kookminilbo (2020.5.15.).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37934>. (2020.5.30.)]

국민일보 2021.1.13. “‘대면예배 금지’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진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831&code=23111111&cp=du>. (검색일 2020.1.30.)

[“The Constitutional Court deals with whether the ban on face-to-face services is unconstitutional”, Kookminilbo (2021.1.11.).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831&code=23111111&cp=du>. (2020.1.3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홈페이지. 의료원소개.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 (검색일 2020.5.30.)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Homepage, Retrieved from http://www.dsmc.or.kr/content/01dsmc/01_01.php. (2020.5.30.)]

글로벌케어 홈페이지. 활동소식.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 (검색일 2020.5.30.)

[Grobal care, Homepage, Retrieved from http://www.globalcare.or.kr/bbs/board.php?bo_table=s3_2. (2020.5.30.)]

기독인뉴스 2020.10.13. “한교연 대면예배로 온전한 교회예배 회복을 촉구” http://www.kidokin.kr/bbs/board.php?bo_table=f01&wr_id=3253. (검색일 2020.1.30.)

[“CCIK urged the recovery of complete church worship by face-to-face worship”, The Kidokin News (2020.10.13.). Retrieved from http://www.kidokin.kr/bbs/board.php?bo_table=f01&wr_id=3253. (2020.1.30.)]

스카이데일리 2020.10.15.,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872만명 돌파, 사망자 110만명 육박.” <http://>

- 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검색일 2020.10.15.)
- [“The world’s COVID19 confirmed 38.72 million people exceeded, and the death toll was close to 1.1 million”, Skyedaily (2020.10.15.). Retrieved from http://www.skyedaily.com/news/news_print.html?mode=print&ID=113822. (2020.10.15.)]
- 아프리카미래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아프리카 긴급지원.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 (검색일 2020.5.30.)
- [Africa Future Foundation, Homepage, Retrieved from <https://africaff.modoo.at/?link=f0oj1tx7>. (2020.5.30.)]
- 연합뉴스 2021.1.29.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1년 만에 32%→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13000005?input=1179m>. (검색일 2020.1.30.)
- [“‘Corona 19’ has led to a sharp drop in church confidence...32% to 21% in a year”, Yonhap News (2021.1.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13000005?input=1179m>. (2020.1.30.)]
- 재경일보 2020.10.14., “14일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http://news.jkn.co.kr/post/825667>(검색일 2020.10.14.)
- [“World COVID19 Outbreak on the 14th”, Jaekyungilbo (2020.10.14.). Retrieved from <http://news.jkn.co.kr/post/825667>. (2020.10.14.)]
- 한계레신문 2021.1.29.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02.html?_ns=t0. (검색일 2020.1.30.)
- [“Protestant community ‘The Korean church cannot even raise its head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citizens’, The Hankyoreh (2021.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02.html?_ns=t0. (2020.1.30.)]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3.16. “‘코로나19’ 지원을 요청드리며.”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 (검색일 2020.5.30.)
- [“Call for ‘Corona 19’ support”, CMF Newsletter (2020.3.16.). Retrieved from http://www.kcmf.org/board_WtAL39/31035. (2020.5.30.)]
- 한국누가회(CMF) 소식지. 2020.4.27. “코로나19 긴급모금 사용내역보고.” http://www.kcmf.org/board_WtAL39/31244. (검색일 2020.5.30.)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유 용 옥 (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

논문초록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이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 선교를 위협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부모와 자녀마저 버리고 도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그 당시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개신교선교 초기에도 팬데믹이 유행하였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다. 전염병 환자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선교사들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버려진 아이를 치료하여 기독교 학교의 교육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주제어: 팬데믹, 기독교, 선교,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이은형(Eun-Hyoung Lee)**

이선경(Sun-Kyoung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Entering an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further increased, and accordingly, patients with senile diseases have increased, too. The prevalence of Parkinson's disease, one of the big three senile diseases in the cerebral nervous system, increases as the population of the aged increases each year. Since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Parkinson's disease has not yet been revealed, it is treated through medication, operative treatment, and exercise therapy for the suppression of its progress and the alleviation of its symptoms. Thus,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continuous medication and exercise therapy are very important.

As it has been reported that dance enhances the physical functions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nd has positive effects on the alleviation of depression and stress,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dance programs.

The occurrence of COVID-19 has changed many parts of human life. Untact methods such as telecommuting, remote learning, and online classes, etc. have been revitalized, and it is expected that in the Post-COVID-19 Age after the end of COVID-19 in the future, the online methods utilizing media will further be revitalized. Thu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measures utilizing media also in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ree methods and the positive expected effects of this to explore ways of dance education for Parkinson's patients.

Key words : Post-COVID-19,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Dance for Parkinson's disease,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Media dance education

* 2020년 11월 30일 접수, 2021년 2월 1일 최종수정, 2월 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은형(Eun-Hyoung Lee)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silverlee91@naver.com

*** 이선경(Sun-kyoung Lee) 명지대학교 조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미래관, iamlsk@mj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 회사, 각종 행사와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어 키오스크(kiosk),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은 무수한 움직임과 음악, 의상, 설치 등의 무대제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무대라는 현장을 통해 감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두드러지는 예술이며(유미희, 2020), 실기교육의 경우 현장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무용이 세밀하고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을 습득하고 움직임을 통한 관계형성 및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정은, 202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선언 이후 무용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기관에서 행해지는 무용교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으며 학교 밖 기관에서 미디어를 통해 무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현장성이 중요한 무용의 특성상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유미희, 2020). 더욱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그 중에서도 미디어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무용계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도 사료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심과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에는 657만 명에서 2019년에는 768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4.9%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67년에는 4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11.09). 고령화 사회로 인한 고령자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게 하는데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며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는 2015년 10만 3574명에서 2019년 12만 5607명으로 4년 동안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국민관심질병통계, 2020).

무용은 음악의 리듬을 통해 다양한 신체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에게 유익한 신체 활동으로 연구되고 있다. Hackney와 Earhart(2010)에 따르면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과 지구력, 균형 자신감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10주 동안 1시간의 탱고수업을 실시한 결과 6분의 도보 테스트와 기능적 도달 범위가 향상되어 균형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증가하여 균형, 지구력, 균형 자신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나타났다. 파킨슨 환자에게 13주 동안 총 20

시간의 탱고수업을 진행한 Hackney 등(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파킨슨 환자의 균형, 넘어짐, 걸음걸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탱고 수업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 낙상, 보행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shimoto 등(2015)은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보행, 균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전두엽 기능과 운동 이미지를 개선시켜 인지 기능의 향상과 우울증 개선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McNeely 등(2015)의 연구에서도 무용프로그램이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 이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용을 통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를 종합해볼 때, 무용이 파킨슨 환자에게 신체적·인지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저하된 기능을 향상시키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전문 무용프로그램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Dance for P.D®’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과 브룩클린 파킨슨 재단¹⁾(Brooklyn Parkinson Group)이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2017년 국내에 도입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국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매주 1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댄스스튜디오 마루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주로 물리치료의 일환으로 병원과 같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을 통해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운동장애를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은 파킨슨 환자에게 필수이다(한의신문, 2020.12.31).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방역 당국의 권고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미디어 수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의 언택트 방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확대되어 그 수요가 다방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전면적인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구성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지 못한 채 미디어 무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원격수업, 줌(Zoom), 행아웃(Hangouts) 등과 같은 일방향 및 양방향의 미디어를 무용과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 무용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교육도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1) Brooklyn Parkinson Group(브룩클린 파킨슨 재단)은 뉴욕 브룩클린 지역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브룩클린 파킨슨 재단은 브룩클린 지역의 파킨슨병 환자를 지원하며 춤과 노래와 같은 예술 기반 수업과 지역사회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파킨슨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교육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무용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치매 그리고 뇌졸중은 대표적인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으로 1817년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 1755~1824)에 의해 학계에 처음 보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중뇌의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점차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진전, 강직, 서동증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박주홍, 2020).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손발의 떨림, 보행 장애, 느린 동작, 경직, 자세 불안정, 동작동결 등의 운동 장애이다. 또한,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1.5%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엠디 메디컬뉴스, 2020.12.31).

파킨슨병은 현재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천천히 진행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중뇌에 있는 흑색질의 소실로 인하여 도파민이 감소하여 나타난다. 도파민은 뇌신경 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도파민의 부족은 움직임 조절에 대한 능력을 잃게 한다(서울아산병원 메디컬칼럼, 2020.11.10).

파킨슨병은 유전적인 연관성이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지만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 속도를 저하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다. 환자에 따라 수술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물치료가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며 운동치료나 재활치료를 함께 병행한다(고성범, 2003).

2. 파킨슨병과 무용교육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있는 ‘파킨슨 환자가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파킨슨병과 무용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파킨슨 환자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으며 춤이 파킨슨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S. Houston and A. Mcgrill, 2012).

미국의 무용 치료 협회²(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는 ‘무용치료’를 무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및 신체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 및 정신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무현, 2019 재인용). 또한, 무용을 통해 환자들은 신체의 건강과 인지력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공정원, 김지안, 2019).

이미 해외에서는 파킨슨병과 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Hackney와 Earhart(2010)에 따르면 탱고수업을 13주간 파킨슨 환자에게 진행한 결과 환자의 균형과 지구력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Heiberger 등(2011)은 운동 장애로 인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저하된 파킨슨 환자에게 8개월 동안 25회 무용수업을 11명의 파킨슨 환자와 4명의 간병인에게 진행한 결과, 파킨슨 환자의 손 움직임, 손가락 두드리기와 표정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수업이 환자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수업을 통해 파킨슨 환자들은 웃음, 즐거움, 행복 등을 느끼며 무용수업 후 심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수업 후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병인 역시 무용수업 후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하였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무용수업이 파킨슨 환자의 사회생활, 건강, 신체 감각 및 이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Hashimoto 등(2015)은 46명의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60분 세션의 무용수업을 실시하였는데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과 보행기능, 전두엽 기능과 운동 이미지, 우울증과 무관심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기능과 인지기능 및 정신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Karolina 등(2017)의 연구에서도 파킨슨 환자에게 12주의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균형 및 보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과 무용에 대한 김무현(2019)의 연구에서도 파킨슨 환자 16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은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10주간 주 1회씩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10주간 주 1회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보행능력 및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과 지구력 및 삶의 질 향상, 신체감각 향상, 인지기능 및 정신 증상 향상,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파킨슨 환자와 무용에 대한 연구 뿐 만 아니라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인 마크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2) 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미국 댄스 테라피 협회)은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무용·동작치료 전문직에 전념하는 유일한 미국조직이다. 미국 댄스 테라피 협회의 목적은 교육, 훈련, 실습 및 연구를 촉진하여 댄스·움직임 치료사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적 정체성과 능력을 확립시키고 유지 및 지원하는 것이며 댄스·움직임 치료사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고 댄스·움직임 치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한다.

Dance Group)은 2001년 브룩클린 파킨슨 그룹(Brooklyn Parkinson Group)과 함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인 ‘Dance for PD®’를 개발하였다. ‘Dance for PD®’는 파킨슨 환자들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파킨슨 환자가 스스로 환자가 아닌 무용수로서 무용수업에 참여하여 예술적 경험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환자들이 ‘Dance for PD®’의 수업을 병원의 재활프로그램과 달리 춤을 추러 가는 사회활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우울과 같은 삶의 질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개선한다는 것이다(이경희, 2018). ‘Dance for PD®’의 강사들은 발레, 현대무용, 탭, 포크 및 사교댄스, 즉흥안무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움직임의 통합하여 파킨슨 환자들에게 무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예술적 경험을 통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목표로 한다. ‘Dance for PD®’ 수업은 무용움직임의 훈련과 즉흥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근력·유연성·협응력을 길러주고 레퍼토리를 활용한 안무와 움직임 표현을 통하여 인지적 전략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 수업은 파킨슨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간병인 등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수업을 통해 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Dance for PD® 홈페이지, 2020.11.12).

영국의 경우, 영국 국립 발레단인 English National Ballet가 마크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의 ‘Dance for PD®’로부터 영감을 받아 ‘Dance for Parkinson’s’이라는 프로그램을 2010년에 설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국립 발레단(English National Ballet)은 파킨슨 환자를 위하여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응용한 무용프로그램을 12주간 진행하고 무용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무용이 척추 주위의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안정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의 이동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무용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증상완화의 치유적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제환정, 2019),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무용은 파킨슨 환자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환자들의 이동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디어 무용교육의 현황

미디어의 발달은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교 중심의 교육이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으로 발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e-learning)’, ‘웹 기반 학습’, ‘온라인 미디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디지털을 통한 교육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대학 및 해외 오픈 교육자료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사용자들이 대학의 이러닝(e-learning) 콘텐츠와 강의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와 비슷한 플랫폼은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웹 기반으로 구성된 강좌를 수강인원에 제한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할 수 있다. 또한, 이 플랫폼 역시 국내 대학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이혜지, 2018). 이외에도 전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다양한 무용관련 교육 콘텐츠들이 업로드 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행아웃(Hangouts), 팀즈(Teams) 등을 통해 일방향 및 양방향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들이 운영되고 있다(유미희, 2020). 이러한 온라인 방식을 통한 무용수업은 주로 학교나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양한 무용프로그램의 현장 진행이 어려워진 학교 이외의 전문단체, 복지관이나 여러 센터 등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유명 무용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의 경우 온라인 홈트레이닝 ‘유연한 하루’ 시리즈와 ‘Home ballet with KNB’ 시리즈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국립현대무용단 유튜브 채널, 국립발레단 유튜브 채널, 2020.12.31). 영국과 호주의 경우 장년층을 위한 무용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의 왕립무용학교인 Royal Academy of Dance의 유튜브 채널인 ‘RAD at Home’ 영상에서는 시니어 무용 교육 전문가가 개발한 발레 기초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의 퀸즐랜드 발레단도 ‘시니어를 위한 바 연습(Ballet for Seniors Express Barre)’ 영상을 시작으로 점점 난이도 높은 동작을 익혀나가도록 구성한 무용수업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다(조선일보, 2020.12.31).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무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서울시 도봉구 치매 안심센터(도봉구 치매 안심센터 홈페이지, 2020.12.20)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단된 치매 어르신들의 무용수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도봉구 치매 안심센터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무용수업을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은 유튜브(Youtube)채널을 통해 라인댄스, 방송댄스, 밸리댄스의 온라인 무용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도 힙합댄스, 한국무용, 라인댄스의 무용 강의를 유튜브(Youtube)채널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다. 성동구립 사근동 노인복지센터(성동구립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2020.12.20)에서도 줌바댄스, 라인댄스, 한국무용, 차밍댄스를 유튜브(Youtube)를 통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고 관악 노인종합복지관(관악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은 온라인으로 배우는 라

인댄스, 한국무용, 포크댄스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 역시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신바람댄스, 한국무용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부천시 원미노인복지기관 포털, 2020.12.20)도 라인댄스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에서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줘바 골드 체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2020.12.20)에서도 중단된 무용수업을 줌(Zoom)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렇듯 전국의 많은 복지관과 여러 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대면 수업을 유튜브(Youtube)와 줌(Zoom)의 온라인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미디어 무용교육 방식은 다양한 곳에서 더욱 활용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 대신 온라인이 활성화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비대면 방식로의 전환과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다임, 2020.11.12).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 맞춤형 교육의 강화,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 강화 및 소규모 밀착형 교육 개발·실기, 미디어 기술·텍스트 이해 교육의 확대,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원 확대 등의 전략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렇듯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변화할 비대면 방식의 강화에 따른 미디어 활용을 대비하고 확대하고자 이러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의 예술교육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예술교육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ACC(Asia Culture Center) 온라인 문화예술교육’과 세계의 다양한 춤과 함께 몸놀이 하는 ‘출래 출래 몸놀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튜브(Youtube)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김

서진, 문영, 2020),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2020 아티스트 따라Job기’라는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연합뉴스, 2020.11.1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과목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음악 99건, 미술 116건, 무용(체육) 12건, 연극(국어) 7건 등 총 234건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11.12).

앞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 또한 온라인을 통한 무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국립 발레단(English National Ballet)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온라인 발레 프로그램을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전공자를 위한 발레부터 초보자를 위한 발레, 발레핏 수업, 청소년을 위한 발레, 젊은 댄서를 위한 수업, 가족을 위한 ‘백조의 호수’ 워크샵, 파킨슨 환자를 위한 댄스, 의자를 기반으로 한 발레수업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English National Ballet 홈페이지, 2020.11.12). 미국의 마크모리스 댄스그룹(Mark Morris Dance group)의 ‘Dance for PD®’도 모든 무용수업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매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Dance for PD® 홈페이지, 2020.11.12). 이렇듯 무용교육도 직접 만나서 움직이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기존의 대면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온택트(On-tact)³에서도 충분히 상호교감하며 무용교육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탁지현, 2020). 추후 미디어를 활용한 무용교육은 학교 교육현장을 넘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축진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무용수업은 날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자는 국내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무용교육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여러 기관에서 유튜브(Youtube)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유함으로 불가능했던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무용수업 또한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다.

전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현재 혁신적인 동영상 플랫폼이 되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진구(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Youtube)는 플랫폼의 특징인 일대 다수의 구조로 쌍방향 및 다중소통의 생태계가 유튜브(Youtube) 안에 형성되어 있어 동시다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자와 이용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며 공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시공간에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

3) 온택트(O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 접두사인 언(un)의 합성어로 비대면을 뜻하는 코로나 신조어인 언택트(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 연결인 온(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면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온택트’, 2021.01.31)

비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유튜브(Youtube)는 일상이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진 시점에서 유튜브(Youtube)의 활용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성동구립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관악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례를 통해 다수의 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휴관된 송도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송도노인복지관의 김문수 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다양한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연수신문, 2021.01.31).

이와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총 10회의 온라인 운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킨슨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교실로 실시간 화상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움직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운동을 소개하는 유튜브 엘피티 티비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엘피티는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통해 파킨슨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을 공유하고 있으며(유튜브 물리치료사 엘피티TV, 2021.01.31), 온라인 파킨슨 운동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한달 동안 전문 트레이너는 운동 영상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은 운동 기록을 매일 공유하는 온라인모임으로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재활전문가 엘피티 네이버 블로그, 2021.01.31).

그러므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파킨슨 환자의 특성에 맞춘 무용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 파킨슨 환우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여 전국의 파킨슨 환자들에게 유튜브(Youtube),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영상 공유와 환자들이 이를 통해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된 무용영상은 파킨슨 환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스스로 자신의 익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줌(Zoom), 구글행아웃(Google Hangouts), 네이버 라인웍스(Linewalks), 구루미(Gooroomie) 등의 실시간 원격 회의 플랫폼을 통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온라인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시간 원격수업은 학습자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자율적인 학습과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대면수업의 대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순식, 2020). 앞서 살펴본 서초구립 중앙노인중

합복지관과 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의 줌(Zoom)을 통해 진행한 원격수업이 온택트(On-tact)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앞으로 대면수업의 온택트(On-tact) 방식으로의 전환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이 더욱 선호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는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해 60~80대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실시간으로 ‘사회적 건강두기’ 라는 화상 홈트레이닝을 50분간 지도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복지관의 대체 수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유되지만 이를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단절감을 줄이고 쌍방향 소통을 하며 노인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노인들이 프로그램 말미에는 다음 학기에도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큰 아쉬움을 보였다고 한다. ‘사회적 건강두기’ 프로그램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대면하는 온택트(On-tact) 방식이 많은 복지관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상황을 대비하여 비대면 역량 강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연합뉴스, 2021.01.31).

이렇듯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맞추어 여러 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영상에 대해 환자들과 피드백을 나누고 파킨슨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더라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무용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고 강사의 즉각적인 지시를 통하여 움직임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받은 피드백과 움직임에 대한 도움이 파킨슨 환자로 하여금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온라인 프로그램에 맞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움직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수업은 현장에서 대면수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방식을 고집하던 문화예술교육이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숙영(2020)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무용 공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택트(On-tact)는 관람객과 새롭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온택트(Om-tact) 수업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 현 시점에 맞추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수업도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용움직임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떨림, 동작의 느려짐, 경축, 자세의 불안정, 보행의 이상, 얼어붙은 몸과 같은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고성범, 2003). 이러한 운동 증상은 파킨슨 환자로 하여금 일상 생활과 신체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 파킨슨 환자들의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으로 인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파킨슨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에 비해 낙상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Dance for PD®’에서는 수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에 항상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재즈댄스, 포크댄스, 라인댄스 등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합한 무용 레파토리를 구성하여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통한 정서적·신체적 발달과 즉흥성을 통해 인지능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이경희, 2018). 이와 더불어 파킨슨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수업을 위하여 의자에 앉아서 하기, 의자를 잡고 하기, 양쪽 옆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서클댄스를 이용하기, 공간이동 시에는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무게 중심을 부드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기, 라인 혹은 커플 댄스를 통해 파트너와 참여자 모두 안정적인 균형 유지를 돕도록 하기 등의 수업 구성을 강조한다(이경희, 2018). 이렇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수업은 현장 수업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이 움직임이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온라인 수업에 맞춘 움직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킨슨 환자의 신체적 특성상 보행 장애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굽은 등, 자세 불안정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용수업 시 걷는 동작,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등 파킨슨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무용동작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그룹 움직임이나, 즉흥적인 움직임, 넓은 공간을 이동하며 하는 움직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구성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가정에서 파킨슨 환자 혼자 참여하거나 가족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움직임, 파트너 대신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고 할 수 있는 움직임, 즉흥적인 움직임 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움직임 등 온라인 방식에 맞추어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하여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또한 미디어 교육의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 가능성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방안이 구축된다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무용전공자들의 향후 진로와 직업적인 부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움직임을 통한 신체기능의 향상, 표현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 자신감 회복 등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파킨슨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프로그램을 통해 파킨슨 환자들은 질병을 관리할 치료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인간의 생활 여러 곳에 적용되면서 미디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의 방안 모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줌(Zoom), 구글 행아웃(Google Hangouts), 네이버 라인웍스(Linewalks), 구루미(Gooroomee) 등의 실시간 원격 회의 플랫폼을 통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무용수업을 진행한다.

셋째, 온라인 프로그램에 맞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움직임으로 전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의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은 코로나 이후에도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수업의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이 함께 병행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용수업에 대하여 파킨슨 환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디어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고 환자들의 참여도는 어떠한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Joint Cooperation of Related Departments(2020). Comprehensive Plan for Strengthening Digital Media Communication.]
- 박주홍(2020). **뇌박사 박주홍의 파킨슨병 이야기**. 성안북스, 21.
[Park, J. H(2020). Dr. Park Chu-hong's Story of Parkinson's Disease. Sung An Books, 21.]
- 고성범(2003).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 가정의학회, 24(12), 1-3.
[KO, S. B(2003).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rkinson's Disease. Koera Academy of Family Medicine, 24(12), 1-3.]
- 강진구(2020).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기독교학문연구회, 25(4), 10-17.
[Kang, J. G(2020).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25(4), 10-17.]
- 공정원, 김지안(2019).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한국무용과학회지, 36(4), 61-62.
[Kong, J. W, Kim, J. A(2019).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in Dance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Systematic Review.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6(3), 61-62.]
- 김무현(2019). **무용 교육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 -Dance for PD를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2.
- [Kim, M. H(2019). Effects of Dance Program on Gait and Balance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Based on Dance for PD. Master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12.]
- 김서진, 문영(2020).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술교육: 언택트 시대의 몸교육에 관한 소고**. 대한무용학회, 78(3), 95.
- [Kim, S. J, Moon, Y(2020). Arts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A study on Body-based Education in the Untact Era. The Korea Society of Dance, 78(3), 95.]
- 김정은(2020). **온라인 무용실기 수업에 있어 '원격현전'에 대한 학습자의 '공간감 체험'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78(4), 29.

[Kim, J. E(2020). A Study on the “Spatial Awareness Experiences” of Learners with regard to “Telepresence” in Online Dance Practice Classes. The Korean Society of Dance, 78(4), 29.]

유미희(2020). **교육대학 온라인 무용수업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연구-신체표현활동 강의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9(3), 1-2.

[Yoo, M. H(2020). An Auto-ethnographic Study on Online Dance Class Experience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Korea Society for Dance Studies, 79(3), 92.]

이경희(2018). **파킨슨을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Dance for PD**. 무용역사기록학, 51(0), 132-134, 136.

[Lee, K. H(2018). Dance Education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51(0), 132-134, 136.]

이숙영(2020).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무용 관람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4), 2243.

[Lee, S. K(2020). A Study on Watching On-Tact Dance in the Untact Times. The Academy of Asia Cultural Studies, 11(4), 2243.]

이혜지(2018). **국내 온라인 공개 무용강좌 현황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9(1), 90-92.

[Lee, H. J(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dance in open online course in Korea. The Korea Dance Education Society, 29(1), 90-92.]

서순식(2020). **실시간 원격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창의정보문화연구, 6(3), 152.

[Suh, S. S(2020) A Study on way to Promote Learners’ Participation in Real-Time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6(3), 152.]

제환정(2019). **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을 춤추기**. 무용예술학회, 73(1), 175-176.

[Jae, H. J(2019). Becoming a Dancer from a Patient: A Study on the Aesthetical Aspects of Dance for PD®. The Korea Society for Dance Studies, 73(1), 175-176.]

탁지현(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쟁점**. 한국무용교육학회, 31(4), 57.

[Tark, J. H(2020). Post-COVID-19 era, exploring issues for the active enjoying of arts & culture education, 31(4), 57.]

Hiroko Hashimoto, Shinichi Takabatake, Hideki Miyaguchi, Hajime Nakanishi, Yasuo

- Naitou(2015). *Effects of dance on motor functions, cognitive functions, and mental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A quasi-randomized pilot trial*.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 Lisa Heiberger, Christoph Maurer, Florian Amtage, Ignacio Mendez-Balbuena, Jürgen Schulte-Mönting, Marie-Claude Hepp-Reymond and Romyana Kristeva(2011). *Impact of a weekly dance class on the functional mobility and on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 Madeleine E. Hackney, Svetlana Kantorovich & Gammon M. Earhart(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Argentine Tango as a Form of Partnered Dance for those with Parkinson Disease and the Healthy Elderly*.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 Madeleine E. Hackney, Gammon M. Earhart(2010). *Effects of dance on balance and gait in severe Parkinson disease: A case stud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M.E.McNeely, R.P.Duncan, G.M.Earhart(2015). *Impacts of dance on non-motor symptoms,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rkinson disease and healthy older adults*. Maturitas.
- Karolina A. Bearss, Katherine C. McDonald, Rachel J. Bar, Joseph F.X. DeSouza(2017). *Improvements in balance and gait speed after a 12 week dance intervention for Parkinson's disease*.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
- Sara Houston and Ashley McGill(2012). *A mixed-methods study into ballet for people living with Parkinson's*. Arts&Health.
- 뉴스다임 2020.08.28. 방통위·문체부 등 5개 부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발표'. <http://www.newsdigm.com/20313> (검색일 2020.11.12.)
- [“Five ministries, includ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to strengthen digital media communication capabilities”, Newsdigm (2020.08.28.). Retrieved from [http://www.newsdigm.com/20313\(2020.11.12.\)](http://www.newsdigm.com/20313(2020.11.12.))]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20. 이제온라인으로 예술 교과목 수업을 해요.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44. (검색일 2020.11.12.)
- [“Now I'm taking art classes onlin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20.04.20.). Retrieved from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44(2020.11.12.)]
- 서울아산병원 메디컬칼럼, 치료효과 좋은 파킨슨병 방치하지 마세요. <http://m.amc.seoul.kr/asan/mobile/healthstory/medicalcolumn/medicalColumnDetail.do?medicalColumnId=29150> (검색일 2020.11.10.)
- 연수신문 2020.06.19. 송도노인복지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시. <http://www.yeonsu.info/news/articleView.html?idxno=32971> (검색일 2021.01.31.)
- [“Commencement of various non-face-to-face programs using the online platform of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Yeonsu(2020.06.19.). Retrieved of from <http://www.yeonsu.info/news/articleView.html?idxno=32971> (2021.01.31.)]
- 연합뉴스 2020.09.12. 코로나시대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42300051>. (검색일 2020.11.12.)
- [“Online culture and arts education enjoyed at home in the Corona Era”, YonhapNews (2020.09.12.).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42300051> (2020.11.12.)]
- 연합뉴스 2020.12.20. 노인복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80대도 ‘홈트’ 가능하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50900004?input=1195m> (검색일 2021.01.31.)
-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s online... “Homestraining is available for those in their 80s.” Youhopnews(2020.12.20.). Retrieved of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50900004?input=1195m> (2021.01.31.)]
- 이엠디 메디컬뉴스 2019.04.11. ‘파킨슨병’ 고령화로 증가추세, 증상 비슷한 질환과 구분필요.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21021> (검색일 2020.12.31.)
- [“Increasing trend due to the aging of Parkinson’s disease and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similar symptoms” eMD Medical News (2019.04.11.). Retrieved of from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21021> (2020.12.31.)]
- 조선일보 2020.10.06. ‘확찐자’는 춤춰라...마린스키 김기민·국립발레단과 홈트 해볼까. <https://www.chosun.com/culture-life/fashion-beauty/2020/10/06/VZ4R5YPZ3FBHTL3OYLYQ2IWZGI/?outputType=amp> (검색일 2020.12.31.)
- [“Dance to ‘Hwa-jin-ja’... Shall we do a homestretch with Mariinsky Kim Ki-min and National

Ballet?” ChosunNews (2020.10.06.).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culture-life/fashion-beauty/2020/10/06/VZ4R5YPZ3FBHTL3OYLYQ2IWZGI/?outputType=amp\(2020.12.31.\)](https://www.chosun.com/culture-life/fashion-beauty/2020/10/06/VZ4R5YPZ3FBHTL3OYLYQ2IWZGI/?outputType=amp(2020.12.31.))

한의학신문 2019.11.25. 통증 관리, 파킨슨 환자 삶의 질 개선 위해 필수 http://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54 (검색일 2020.12.31.)

[“Pain management, Parkinson’s essential to improving patient quality of life” akomnews (2019.11.25.). Retrieved of from http://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54 (2020.12.31.)]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dhg9988.or.kr/> (검색일 2020.12.20.)

국립발레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qXxaAUCdtML1POvdp3Zm1w/featured> (검색일 2020.12.31.)

국립현대무용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qXxaAUCdtML1POvdp3Zm1w/featured> (검색일 2020.12.31.)

관악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noinjigi.org/main/main.php> (검색일 2020.12.20.)

네이버 지식백과 ‘온택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72&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1.01.31.)

도봉구 치매 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dobong.seouldementia.or.kr/> (검색일 2020.12.20.)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nsInfo.do>. (검색일 2020.11.09.)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기관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enior.bucheon4u.kr/senior/user/bbs/BD_selectBbs.do?q_domnCode=2&q_bbsCode=1005&q_bbscttSn=20201020171946068 (검색일 2020.12.20.)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info/noticeView.do?seq=2277> (검색일 2021.01.31.)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sdmsenior.or.kr/> (검색일 2020.12.20.)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seochonoin.org/bbs/board.php?bo_table=0101&wr_id=22585 (검색일 2020.12.20.)

성동구립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gdw.kr/index.php> (검색일 2020.12.20.)

- 용인시 치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heart4u.or.kr/#1> (검색일 2020.12.20.)
-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ichonold.or.kr/> (검색일 2020.12.20.)
- 유튜브 물리치료사 엘피티TV 채널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7%98%ED%94%BC%ED%8B%B0%ED%8B%B0%EB%B9%84 (검색일 2021.01.31.)
- 재활전문가 엘피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thome17/222175151255> (검색일 2021.01.31.)
-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검색일 2020.11.09.)
- 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s://www.adta.org/> (검색일 2020.12.22.)
- Brooklyn Parkinson Grou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rooklynParkinsonGroup/?ref=page_internal (검색일 2020.12.22.)
- Dance for PD홈페이지. <https://danceforparkinsons.org/>. (검색일 2020.11.12.)
- English Nationa Ballet 홈페이지. <https://danceforparkinsons.org/>. (검색일 2020.11.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이은형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선경 (명지대학교)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초록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자도 함께 증가하였다.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역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질병의 진행 억제와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킨슨 환자들에게 꾸준한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무용은 파킨슨 환자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파킨슨 환자들 역시 무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은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 되었고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활용 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교육 또한 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방안 모색을 위해 세 가지의 방안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 파킨슨 환자, 파킨슨 무용, 파킨슨 환자 무용교육, 미디어 무용교육

국가와 함께/없이 사는 법 - 존 요더의 국가론*

**How to live with/without the State
- The State Theory of John Yoder**

김기현(Kim, Ki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John Yoder's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clarify its meaning. The Korean church is experiencing considerable pain in relation to the state currently. Provided that the state violence should be reduced and welfare factors strengthened, the Korean church must clearly face the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seek a church-like way of participation in state's business.

To serve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examines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state, and then deals with Yoder's state theory in terms of biblical context, Christology, principality and power, and ecclesiology. After that, Yoder's controversial partner and rival, John Calvin and Dutch reformist's view on state will b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Yoder. Lastly, Yoder's negative and passive views on social participation will be criticised. But overall, his national understanding is biblical, modern and realistic. Therefore, through h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this paper presents specific alternatives and principles for social participation that the Korean church should pursue today.

Key words: John H. Yoder, Anabaptist, State, John Calvin, Dutch Reformed, Principality and Power.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2일 최종수정, 3월 1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 10. 31)에서 “혁명적으로 복종하라-존 요더의 국가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ezrakim@hanmail.net

I. 서론 : 왜 국가인가?

국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적이 있었던가? 202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19에 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에 대한 논란은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묻게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국가의 두 얼굴을 직면한다는 말이다. 먼저, 국가는 한 개인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와 죽히 견줄 수 없는 과도하고 극단적인 폭력의 주체였다. 일제 강점기, 분단과 전쟁이라는 세 단어만 떠 올려도 국가의 폭력성을 충분히 체감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국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질문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대면하게 한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불균형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국가는 복지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안녕을 실현할 수도 있”는 두 얼굴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Yoder, 2012: 34).

일제 강점기와 분단, 독재 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폭력성을 설명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당시에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었지만 국가가 드러낸 폭력의 얼굴은 너무나 공포했다. 국가는 복지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구축하는 듯싶어도 언제라도 돌변해서 폭력의 얼굴로 나타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양면성을 파악하고, 그 폭력성을 최소화하며, 복지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국가의 두 얼굴을 직시하면서도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정체성에 따른 사회 참여의 몇 가지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국가 이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의 신학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유용한 틀이고, 사회 참여의 핵심 전제와 방법을 일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에 대한 사회학적,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검토한다. 사회학적 이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존 요더의 주장을 소개한다. 사회학의 국가 이해를 먼저 설명하는 까닭은, 적어도 기독교의 국가 이해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당대의 사회학의 국가 이해와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과연 국가는 선한 창조의 산물인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려는 섭리적 질서인지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장 칼뱅(John Calvin)을 비롯한 화란 개혁파와 토론하고, 보존적 질서로서의 국가에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대화 파트너는 칼뱅주의이다. 양자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한국 사회에의 적실성을 따져 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요더의 약점도 논의할 것이다.

요더의 국가론을 검토하기 전에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요더에게 제국, 국가, 세상은 다른 말이 아니다. 이음동의어다.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다. 요더에게 세상은 국가다.(Yoder, 1998: 55). 바울에게는 현 세대(aeon), 요한에게는 세상이라면 요더에게는 국가이다. 세상의 전형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상을 가장 철저하게 대표하는 단편이다.”(Yoder, 2012: 30)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타락한 실재의 대표가 국가라는 것이다.

II. 사회학적 국가 이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주제는 성경적이면서도 사회과학적이어야 한다. 국가에 대해 획일적인 단 하나의 국가관을 말할 수 없듯, 사회학에서도 단일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에 대한 ‘정상 과학’(normal sciences)은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근대적 국가 이해의 초석을 마련한 토머스 홉스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공포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는 인간론에 기반을 둔 국가론을 전개한다. 불평등과 상호 불신하는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경쟁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공명심에 젖어든다. 자기 보존의 욕구는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약탈하고, 행여 타인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침략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고 상대방을 앞잡아 보고 공격한다(Hobbes, 2008: 171).

이러한 갈등의 무한 반복과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리바이어던인 국가에 양도한다. 그리하여 탄생한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Hobbs, 2008: 233). 국가의 탄생과 기원에 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이후의 학자들은 일관되게 국가를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체이자 폭력 행사의 주체라는 것에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막스 베버(Max Webber)는 직업이자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다(Weber, 2011: 109-110). 국가가 어떤 실재(entity)인지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왜 직업인 동시에 소명인지를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수단으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접근한다. 국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가를 정의하면,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이다.

베버의 국가 정의는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거나, 오로지 국가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수단이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경계를 결정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의미이다. 누가, 어디까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권은 국가가 소유한다. 이는 국가‘만’이 폭력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며, 더 나아가 합법적인 폭력, 곧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이다. 그는 베버의 이해를 지지하면서도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가 폭력을 수단으로 통치하는 체제이기는 하지만,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조직이나 관계에서도 물리적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통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폭력성을 소유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Giddens, 1991: 27-29).

마지막으로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국가 이해를 보자. 그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사회일수록 국가의 폭력적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 질서이든 그 최후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폭력이다”(Berger, 1977: 97)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고,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일상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감지하지 못해도 인간 사회는 폭력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체제로 국가를 규정지었던 마르크스와 그의 후예들의 국가 이해도 기본적으로 위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의 폭력성을 흡수처럼 인간 이해에서 찾든, 아니면 마르크스처럼 계급에서 찾든, 아니면 베버처럼 국가의 본성에서 찾든 간에 국가는 정녕 폭력적이고,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그들이 국가의 본성을 무엇보다도 폭력에서 찾는다는 점은 일치한다.

III. 성경으로 본 국가의 기원

성경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이다. 모세오경은 애굽과 출애굽의 정황 속에서, 역사서와 예언서는 앗수르와 제국의 아류인 가나안과의 대결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서 등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현실과의 부단한 교섭 속에서 탄생했다. 예수와 바울의 사역은 로마와의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제국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존 도미니크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은 예수와 바울의 복음은 로마 제국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2009: 9).

요더 또한 다르지 않다. 그의 국가론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논의를 파헤칠 수 없으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각각 하나씩 거명하고 그것을 통해 그의 국가론을 살펴보려한다. 구약에서는 가인 사건, 신약에서는 로마서 13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요더에게 국가를 설명해 주는 구약의 중요한 텍스트는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보호하시는 사건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한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Yoder, 2009: 27-29). 최초의 피해자인 아벨을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 보복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특별한 징표까지 주신다. 살인자의 처벌이 아니라 살인자의 보호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기원이다. 폭력의 악순환을 잠재우고, 더 큰 폭력과 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정책이 국가이다.

친족들은 아벨에 대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것은 곧 가인에 대한 보복행위를 뜻한다. 아벨을 대변하는 이들이 가인에게 되갚음을 하는 순간, 가인은 살인자에서 살해자로, 사악한 가해자에서 가련한 피해자로 둔갑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끝도 없는 복수의 연쇄가 벌어지고, 그 강도와 정도가 나날이 높아만 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결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인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가인 역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한 이유이다. 무릇 국가란 폭력의 악순환으로 사회가 멸절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대처이다.

나는 여기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도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삼상 8: 7-22). 그곳에서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은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첫째, 왕정 제도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둘째, 그럼에도 왕을 허락하고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그 왕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을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한다. 국가라는 제도의 긍정 보다는 비판이 우선이다. 그것은 왕이 된 자가 행할 권력의 남용과 국민의 고통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를 허용한 것은 국가가 없을 때 받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카이퍼 대학의 브란손 팔러(Branson L. Parler)는 흥미로운 해석을 한다. 이혼을 허용했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마치 국가에 대한 태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Parler, 2012: 176). 원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었던 것이 이혼제도이었다(마가복음 10:1-12).

이에 대한 예수의 해석은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워준 것으로 누구도,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그것을 인간은 이혼의 정당한 근거로 소비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인간의 악함과 폭력으로 발생하는 더 큰 악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선한 제도는 아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3장에 대한 요더의 설명을 보기로 하자. 그는 문맥에 주의해서 독해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 13장 1-7절을 감싸고 있는 앞과 뒤의 본문에는 ‘원수’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첫째, 국가는 우리의 ‘원수’이고, 둘째, 그럼에도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야 할 원수가 아니다. 셋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나 정부도 신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더의 생각은 로마서 13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한계시록 13장과의 연속성도 잘 설명하는 장점을 지닌다. 계시록 13장에서 국가는 로마제국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짐승이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폭력적인 저항을 선동하거나 부채질하지 않는다.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방식대로 비폭력적 방식의 삶과 저항을 요구한다.(Hays, 2002: 277-85). 로마서 13장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도 국가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사무엘서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으로서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에서 타락 이후의 세상, 마치 노아 홍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세계를 끊임없이 심판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부정이며, 창조자의 자기모순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권력 체계는 세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본래의 선함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구조이다. 우리는 국가의 양면성을 논리적 모순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중성은 국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IV. 주되심 아래의 국가

요더의 신학적 전제는 예수의 주되심이다. 그 전제가 국가론에도 어김없이 작동한다. 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에 있어 다른 영역에서는 다 괜찮은데 사회 윤리의 문제, 특히 국가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Yoder, 2007: 89)라고 질문한다. 예수의 통치에 단 하나의 예외라도 허용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영역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한 치라도 벗어날 리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위험한 극단적 태도를 피해야 한다(Yoder, 2007a: 56-57). 하나는 국가를 악마적인 것으로 보고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봉사의 의무는 기피

하는 것이다. 양 논리의 맹점은 국가의 주인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분이 창조주이기에 국가는 악마적일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봉사는 응당 해야 마땅하다.

주님의 통치 하에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실재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섭리하신다는 신앙 하에서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 자녀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국가는 마성적 실재는 결코 아니다. 국가의 폭력성이 원초적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질서이다.

존 요더의 관점에서 국가는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이며, 명백한 한계를 지녔지만 결코 악마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국가를 존중했고,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던 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일부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상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했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를 패배시킬 때까지 그분의 통치 대상일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Yoder, 2007a: 33).

국가가 최종적인 주인일 수 없는 까닭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잠정적일 뿐이다. 요더는 자신의 스승인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의 견해를 따르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자. “국가는 궁극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1999: 68). 국가는 그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다. 하나님은 국가를 임시로 사용하신다.

그렇기에 역사적으로는 한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려는 욕심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화가 되었다고 하는 중세를 보더라도 국가의 본성이 ‘검’(sword)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고, 한 사회를 바꾼 것도 아니다. 변화시켰다는 착각,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순응한 결과일지 모른다.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에 승리를 선언하였던 것은 아닐까?

자끄 엘룰(Jacques Ellul) 역시 요더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1992: 21). 하나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깔끔하게 분리하고 영적인 문제에 골몰하는 회피적 태도는 국가를 악마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악마의 영역에 넘기는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도덕화 혹은 기독교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려고 한다. 엘룰의 대안은 양자 사이의 대결과 대립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가능하다는 말은 둘 다

주되심을 공히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하나는 국가를 신앙의 영역과 전연 별개로 치부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신앙의 영역으로만 재단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국가의 비기독교화라면, 후자는 국가의 기독교화이다.

앞의 것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뒤의 것은 칼뱅이 대표자다. 루터가 국가와 교회를 이원화했다면, 칼뱅은 어떠한 종류의 이원화도 거절한다(Yoder, 2012: 114-18). 칼뱅은 교회와 국가의 성격과 본질을 구분하지 않으려 하고, 루터는 둘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으로 떼어놓는다. 그리하여 칼뱅은 신정주의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루터는 양자를 아예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에 함몰될 여지가 많다.

요더에 따르면, 루터의 국가관은 ‘실정적(positivistic)’이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은 독일 교회의 히틀러 지지와 독재자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요더가 본 칼뱅주의 전통은 ‘규범적’(normative)이다. 하나님은 모든 정부가 아니라 특정한 정부를 공인하신다. “하나님이 부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반란과 혁명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그것이 근거하는 로마서 13장에서 어떠한 반란이나 반역을 정당화하지 않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Yoder, 2007b: 342-46).

이러한 요더의 루터 이해는 김대인에 의하면, 에른스트 트뢰취와 리처드 니버의 사고를 답습한 것이다(김대인 2009: 67의 각주 9). 또한 칼뱅에 대한 요더의 관점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루터와 칼뱅의 폭력과 전쟁 이해와 아나뱃티스트의 것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더는 둘의 핵심을 각각 자기 것으로 삼는다. 국가에서도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칼뱅을,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루터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잊지 않는다. 전쟁하는 국가를 승인한다는 점이다. 루터야 애초부터 국가를 두 왕국론의 한 축으로 정립시킨 탓에 국가에 교회와 신앙이 잠식당할 우려가 컸다. 반면에 칼뱅은 겉으로는 국가를 기독교화하는 듯 보여도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국가에 의해 신앙이 침식당한다.

국가와 교회를 두 영역으로 분리하든, 한 영역으로 통합하든 간에, 물 밑으로 흐르는 내면적이고 내밀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결탁하는 콘스탄틴주의를 피할 길 없다. 이는 예수의 주되심에 철저하지 못한 데 따른 자명한 결과이다.

V. 정사와 권세로서의 국가

요더의 국가론은 주권심과 정사와 권세(principality and power)라는 두 가지 안경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서의 국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정사와 권세로서의 국가를 보려 한다. 두 접근의 차이를 부각시킨다면, 주권심은 국가의 선한 측면을, 권세로서의 국가는 악한 면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주권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을 때의 국가이고, 권세라는 잣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없다’(Yoder, 2007b: 252-253)는 것이 국가이다.

신약에서 국가를 다루는 언어는 권세이다. 권세(exousia, powers)는 하나님과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이다(Wink, 2004: 27-38) 이 권세가 신약에서의 용례에 따르면, 천사와 마귀 둘 다를 언급하고, 통치자나 국가 등을 모두 가리키는 것을 보면, 이것들은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며, 비가시적이면서도 가시적이며, 개인적이면서도 제도적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권세들은 국가와 정치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그러한 권세이다.

권세를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해석하는 이들과 제도적 차원으로 국한하는 이들과 양 측면이 다 있다는 주장들이 혼재해 있다(민종기, 1999: 130-43). 일반적으로 요더는 국가를 제도적으로 이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요더의 권세의 의미에 맞는 현대어는 구조(structure)이고, 그것을 종교적, 지적, 도덕적, 정치적 구조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Yoder, 2007b: 244 & 252).

그러나 바울이 우리와 같이 두 측면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았으며 마귀나 귀신들림 등과 같은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의 언급을 볼 때(Yoder, 2007b: 247), 권세를 인격적 실재로 인정하면서도 비인격적 제도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면 무난하다.

권세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Yoder, 2007b: 248-58). 인간은 어떤 제도나 질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선한 권세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 권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세계를 중재하지 않고 도리어 분리시킨다. 그럼에도 권세들은 질서 유지라는 본래적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예수는 이 권세를 구속한다. 죽기까지 기존의 권세들에게 복종하셨으며, 그들을 굴복시켰다(골 2:13-15).

권세론에 입각한 국가를 요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명령은 국가로 하여금 악의 수단(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악이 건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Yoder, 2007a: 29) 그러하기에 국가는 타락한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섭리적 질서 내지는 보존적 질서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피조 세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났다.

VI. 교회론으로서의 국가

요더의 국가론은 성경에 기반하고 기독교론 중심적이지만, 결국은 교회론의 일부이다. 국가에 관한 말은 곧 교회에 대한 말이고, 반대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말한다는 것은 세상의 제국인 국가와 연관 지어 말해야 한다. 국가의 폭력성을 철저히 사유하는 요더는 비폭력과 자기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대조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사실, 국가를 교회론에 위치시킨 것은 칼뱅이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론(1권), 기독교론(2권), 성령론(3권), 마지막으로 교회론(4권)인데, 국가론은 교회론에 위치한다. 주목할 점은 국가 이해가 이 책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다. 헌사에서 프랑수아 왕 프랑수아 1세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고자 저술하였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건대, 국가론이 그의 대작의 정점이자 절정이란 해석해도 무방하다.

요더가 국가를 말하는 듯해도 그것이 다다른 지점은 교회론이고, 이는 칼뱅과 동일하다. 두 사람 모두 개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복판에서 존재하는 양식은 교회론에서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더의 국가 이해를 다루면서도 결국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더에게 국가와 정확하게 대칭되는 지점에 교회가 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속의 또 다른 국가가 교회이다. 요더는 선언한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이다”(Yoder, 2012: 40). 국가의 일부로 편입되어 순치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 말이다. 그러니까 요더의 본의를 담아 그의 말을 고친다면 이렇다. “교회는 하나의 국가이다.” 그러기에 “왜 국가를 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국가이다!”라는 것이 대답이다.

국가가 창조의 일부이지만 타락한 권세이며 폭력에 기반을 둔다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실존은 무엇인가? 이미 대답은 주어졌다. 국가가 ‘폭력’과 ‘강제력’에 근거한다면, 교회는 ‘비폭력’과 ‘복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교회는 국가와 확고하게 대조되는 대안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같지 않기에 교회이고, 세상의 맛과 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과 향이 나기에 교회이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반’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말할 자격이 없다”(Yoder, 1992: 78). 그렇지 않겠는가?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세상더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의 독특성은 예배나 제의 형식에 있지 않다. 세상과의 혼합도 아니고 격리는 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反)해야 한다는 말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공동체는 존재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도전이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Yoder, 2007b: 81).

국가가 폭력에 기반을 둔 사회의 표상이라면, 대조와 대안의 구체적 내용은 평화이다. 평화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이 땅에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더 나아가 세상과 대조되는 삶의 양식이 세상을 변혁하는 원동력이다.

VII. 선한 질서인가, 타락한 질서인가?

나는 화란 개혁파를 위시해서 개혁주의의 국가 이해가 근본적으로 아나뱃티스트와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기독교 세계관 진영의 국가 이해를 먼저 읽었기 때문인 듯하다. 요더가 국가를 세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이해하는 반면, 기독교 세계관은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점에서 선한 창조물로 본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근대 사회학의 기본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안이한 것이었고, 성경적 이해와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이다. 그는 창조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는다. 우리의 주 관심사인 국가에 대해서 그는 가정(결혼)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창조 질서에 속”(Wolters, 2007: 56-59)한다고 확언한다. “국가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151)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사물의 질서에 내재된 불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고, 주어진 실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규범적이고 창조에 반한다.(58-59)

그는 타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또 다시 언급한다. 이미 국가가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일부이었으므로 타락이란 국가의 왜곡과 변질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논리 체계에서는 자명한 귀결일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로서의 국가는 오늘날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체주의와 독재로 인해 그 모습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95)

하지만 「기독교강요」의 칼뱅과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나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생각은 나의 통념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 때가 아니라 창조 이후에 국가가 생겨났고, 타락한 세계의 보존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카이퍼와 도예베르트의 국가 이해는 요더의 것과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카이퍼의 경우, 인간의 죄악이 없었다면 국가 질서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말한다(Kuyper 2017: 100). 그는 한 가지 가정을 한다. 만약 인간에게 타락이 없었다면, 법에 의한 통제나 육해군의 군사력이 존재했을까? 카이퍼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근거로 제시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 36항에서처럼 국가의 역할은 타락한 인간을 강제적 힘과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악을

차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더를 전공한 개혁주의자인 팔러(Parler, 2009: 78)는 카이퍼와 요더의 생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카이퍼를 잇는 도예베르트의 국가론 설명은 기시감을 들게 하였다. 글의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읽어주었다면, 나는 존 요더의 글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국가의 기초기능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문화영역에 대해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칼의 힘’ 혹은 ‘조직화된 무장력’이라고 단적으로 주장한다.”(김종원, 2016: 76) 우리는 그의 언어에서 막스 베버의 국가 이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버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폭력을 독점하는 것을 국가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예베르트는 한 가지 더 첨언한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적 정의를 수행한다. 그저 강제력을 사용하여 인간과 사회를 통제한다면, 무장 갱단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기에 국가를 타락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개념 정의 이후에 곧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사회적 개체구조”(김종원, 2016: 78에서 재인용)이다.

강조점의 차이일 뿐, 서로 분리하고 배제할 만큼 본질적 차이는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에 따르면 누군가 요더에게 마우와 당신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물었다고 한다. 요더의 대답은 “마우는 ‘타락했다. 그러나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했다’라고 말한다.”(Mouw, 2012: 9)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창조와 타락을 공히 인정하고 어느 하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한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창조의 선한 질서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질서가 전도된 형태로 현재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는 점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다른 일방을 배제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꽤나 너른 도량이 존재한다. 요더가 보기에 국가를 창조 질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국가에 관해 “신약 성서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식의 단순한 개념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Yoder, 2007b: 334). 국가를 선한 창조물로 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정책마저 지지하는 우를 범하게 만든 신학적 장본인이다. 그 근거로 요더는 창조 신학이 인종 차별과 남아공의 흑백 분리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한다(Yoder, 1992: 35 & 25-27). 보다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이론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요더의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VII.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국가가 타락한 세계를 보존하는 구조라는 주장은 복종의 한계와 범위를 고민하게 만든다. 국가는 신적 기구가 아니기에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이 아니지만, 허용한 질서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거부

대상도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국가 또는 정부나 정권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이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요더의 주장을 칼뱅과 비교하고자 한다.

공동점에서 시작하자. 칼뱅은 국가를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파악한다. 그는 악으로부터 어떠한 보호 장치나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악이라고 말한다(Calvin, 4권 20장 8절과 9절). 국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란, 흑암이 날뛰지 못하게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아나뱃티스트와 개혁주의가 공히 국가의 성격을 타락한 세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 하나는 칼뱅과 요더는 설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복종해야 한다고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그것을 요더는 ‘혁명적 복종’(Yoder, 2007b: 281-329)이라고 명명했고, 칼뱅은 성경의 근거를 들어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하라”(Calvin, 4권 24장)고 강권한다. “성경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요구한다”며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공동본문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분명하다. 요더는 설사 정부가 불의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고 복종하지만, 전쟁과 전쟁 참여는 거부한다.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 반면, 칼뱅은 정부에 복종하되 불의한 정권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고 전쟁은 허용된다고 말한다. 국가가 신앙의 영역에 대해 간섭할 여지를 준다.

칼뱅의 경우, 하나님께서 거만한 왕과 정부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Calvin, 4권 31장).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 그 점이 한편으로 군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사로운 개인에 의한 항거를 배제한다. 다만, 국정에 책임 있는 관리에 의한 저항은 옹호할 뿐만 아니라 군주와 정권의 폭정을 방치하는 것은 위선이며,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선언’한다. 상당한 제약을 두지만, 폭군에 대한 항거를 인정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더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정 정부와 정책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할 수 없다. 모종의 편향과 지향이 반드시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념에 따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전복을 선동하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콘스탄틴주의의 오류를 범할 뿐이다.

오히려 요더는 다른 사안에서 불복종을 말한다. 전쟁과 사형의 문제이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국가를 허용하신 목적을 위반한다. 무릇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조리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무제한적이고 무제약적 폭력인 전쟁의 경우는 국가를 인정한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에 복종하지 않는다.

칼뱅은 정부가 신앙 행위에도 개입하도록 요청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Calvin, 4권 20장 3절) 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다.

반면에 요더는 전쟁과 사형은 동의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에 대한 일체의 개입을 거부한다. 신앙의 핵심은 주되심이고, 교회됨의 본질은 ‘자유’이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신자의 교회 혹은 자유교회 전통에 속하는 요더는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국가가 나서서 것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미 정교분리 원칙이 외형적으로 잘 정착된 서구와 한국의 경우는 국가가 교회 내적인 영역에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신앙 본연의 행위에도 국가가 나설 권리를 허용했던 칼뱅의 생각은 중세의 기독교왕국적 상황에서나 가능하지, 오늘날과 같은 탈 기독교사회와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리고 탈기독교이자 다원적 사회인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을 허용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서로 다를지라도, 혁명적 복종이란 현재의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정치적 이념에 반하는 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저항하고 전복을 꾀하지 말라는 것이다.

VI. 소극적 전략 비판

요더는 한편으로 강력한 박해를 받던 16세기와 많이 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참여를 강조한다 (Yoder, 2007a: 71). 그럼에도 여전히 타락한 질서로 뛰어드는 적극적 참여는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의 교회됨에 대한 강조에서 기인한다. 적극적 전략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와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요더는 투표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는 과연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인지부터 따져 묻는다. 왕정 체제나 독재 정권 때보다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양당 체제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 두 개의 경쟁적인 소수 독재 정치 중에서 덜 반대할 만한 것을 선택할 뿐이”기 때문이다(Yoder, 2007a: 55). 때문에 ‘기권’이 투표 보다 ‘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요더는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심포지엄의 서문의 첫 문장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Yoder, 1991: 889). 왜냐하면 정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정부의 특정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고, 보다 높은 기준에 의해 비판하기 때문이다.

요더는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란 과연 무엇이며, 보다 상위의 기준과 권력이란 또한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것이 그리 자명하지 않다. 그것은 각 지역과 계층, 계급,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불복종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상급의 척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편지, “버밍햄으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 우리가 정부의 법과 정책이 부도덕하다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Yoder, 1991: 891). 이러한 회의적인 발언은 그가 시민불복종 운동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걸맞은 참여 방식으로 동의하기를 유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김기현, 2020: 158). 비판의 선봉에 존 레데콕(John Redekop)이 있다. 그는 요더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가 소극적임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2009: 71-2). 요더가 전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체제를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데콕은 선거 참여와 시민불복종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그는 최후의 수단일 것, 다른 평화적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지만, 성경적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dekop, 2011: 197-209). 물론 요더와 마찬가지로 과연 도덕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화의 문제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요더와 비교할 때, 적극적인 참여의 가능성과 공간을 열어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더의 주장은 근원을 캐묻는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사회에 대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레데콕처럼 보다 역동적인 참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성격과 한계를 직시하면서 비폭력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더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필요도 느낀다. 선거가 세상을 바꾸는가? 우리의 대답은 예 그러나 아니요, 또는 아니요 그러나 예일 것이다.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전면적인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으로서의 투표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투표이거나, 시민의 정치적 소망이 반영되기 보다는 이미 주어진 거대 양당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투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속성과 한계를 간과한다. 권력은 폭력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물리적 강제력

으로서의 힘이 폭력이라면, 정당화된 강제력과 폭력이 권력이다. 그래서 독일어처럼 강제력(Gewalt)이 폭력인 것은 그 때문이다. 폭력성을 원초적으로 떨쳐낼 수 없고, 막스 베버에게서 보듯이 국가의 고유한 성격이 폭력인 점에 있어서 선거나 시민불복종의 방식으로는 국가와 권력 자체를 바꿀 수 없다. 특정한 사안과 일부 쟁점에 관한 변화는 충분히 추구할 수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요더가 선거나 시민 불복종의 가치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더 나아가 그 한계 안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X. 결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교회와 신자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교회사에서 오래 묵은 논쟁이 되살아났다. 기독교인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존 요더의 신학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가 타락한 질서를 보존하려는 섭리적 차원에서 허용하신 기구라고 말한다. 그의 생각은 화란 개혁파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차별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의 관심은 그 국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다. 요더가 말한 대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것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이율배반적인 국가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사회 참여의 중요한 전제와 원칙을 말한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사회 참여는 예외가 없다. 요더에 대한 가장 많은 비판 중 하나는 사회로부터 퇴거(withdrawal)적이라는 것이다. 분파적(sect)이다, 무책임하다는 거친 비판은 요더 신학에 대한 오해이다. 참여 방식의 차이일 뿐, 참여 자체를 거절한 적이 결코 없다(김기현, 2020: 151-54). 비폭력적이고 평화주의적 방식, 더 나아가 교회 자체가 하나의 대안이고 대답인 형태로 참여한다.

7, 80년대의 보수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다. 진보적 참여그룹에 대한 비판과 독재정권에 대한 암묵적 지지는 그들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참여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한다. 참여 vs. 비참여의 구도는 오도된 것이다. 어떤 방식의 참여이냐의 문제이다. 요더의 말을 빌리면, 복음에 신실한 참여 vs. 비신실한 참여이냐, 폭력적 참여이냐 비폭력적 참여이냐, 라는 대결 구도로 보아야 한다(김기현, 2020: 154-56). 요더의 가치는 참여 방식이 기독교적인가를 캐묻는 ‘등에’(gadfly)라는 데 있다.

둘째, 교회됨이 참여의 전제 조건이자 디딤돌이다. 교회 자신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을 교회 외부로 향해 발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인종을 차별하는 교회가 국가에게 인종차별을 폐지하라고 외칠 리 만무하다(Yoder, 2012: 46).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 용서가 없는데도 용서를 말하고, 교회에서 일치를 도모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논리적으로는 모순이고 도덕적으로는 위선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자신의 발언에 합당한 정체를 형성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 사람의 외모, 곧 민족, 인종, 성, 지역,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은 언덕 위의 마을이 됨으로 사회에 빛이 될 것이다“권세가 지배하던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권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안”(Yoder, 2007b: 260)이다. 양극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는 교회, 분단과 분리를 넘어서서 하나 되는 교회, 공평과 공정, 정의가 실험되고 실현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가 전도이고, 가장 강력한 사회적 실천이다(김기현, 2002).

무릇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도덕적 선택과 행동은 “도덕적 행위자의 정체성에 의존한다”(Yoder, 2007b: 59).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 참여의 전제이자 조건은 교회의 교회됨이다. 교회의 행위는 필시 교회됨의 반영이고 발로일 수 밖에 없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식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제국과 가치관에 함몰하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버려져 밟힐 뿐이다. 때문에,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회 참여 전략이다(Yoder, 1998: 102-26).

현재의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인지, 아니면 세상과 혼합된 공동체인지는 정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사회 참여의 경우,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한 것인지,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이 필요하다. 마르바 던이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미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도 타락한 권세의 일부로 볼 수 있다.(Dawn, 2008: 103-70).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경우, 이혼, 가정 내 폭력, 돈에 대한 태도, 인종 차별은 비기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하다(Sider, 2005). 한국교회의 신자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기에 기독교 세계관의 경우, 세상과의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교회의 더 근본 문제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김기현, 2002). 이미 세상이 되었거나,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교회의 사회참여는 세상적 방식이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사회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려는 잘못을 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의 세계관을 곧 바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요더에게 예수의 제자도는 ‘제자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

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것을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세상에, 창조 질서가 아니라 섭리적 질서인 세계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복음의 왜곡을 야기하거나 세상의 반발과 빈축을 사기 십상이다.

넷째, 교회가 국가를 비롯한 정부와 정권,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더의 전 신학 체계는 탈콘스탄틴주의이다. 콘스탄틴주의 또는 기독교 국가(Christendom)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Schuurman, 2007:247-71 & Leihart: 200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의 혼합, 국가와의 결탁을 도모한 콘스탄틴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적어도 국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콘스탄틴적 잔재로부터의 결별에서 시작한다. 요더의 이런 생각은 아나뱃티스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들은 “교회가 타락한 가장 주된 요인을 국가와의 통합으로 보았고, 교회와 국가가 통합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Estep, 1985: 275 & 290).

다섯째, 구체적 실천 방법은 비폭력적 참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은 십자가이었다. 그 십자가는 비폭력이다. 우리 주께서는 의로운 대의가 있음에도, 무력으로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악인들에 대항해서 비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하셨다. 요한계시록이 노래하듯,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 로마서 13장이 말하듯,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셨다.

요더가 보기에 기독교가 폭력을 행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목적 의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있을지라도 감행하려는 자세이다. 그것을 그는 ‘강박증’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육화와 낮아지심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한 방법을 통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우리의 정당한 목적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어린 양의 승리에 찬 고난에 동참하는 것”(Yoder, 2007b: 407)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크다 하겠다. 자신의 주장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사회를 향해 외칠 때,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하나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발언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념을 표방하는 방식이 강제와 강요가 아닌, 더 나아가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적 사랑에 기반한 비폭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여섯째, 실천에 기초한 참여이고 발언이어야 한다. 그는 이를 “증언 vs. 로비”라고 명명한다(Yoder, 2007a: 46). 로비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증언은 자신의 실제 행위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로비가 은밀한 것이라면, 증언은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으로 감출 수 없는 촛불처럼 공개적이고 공적이다.

기독교가 모든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것을 조언한다. 교회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참여하는 것은 과용이고 오만일 수 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사회

에 깊이 뿌리 내리고 활동하는 농촌교회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를 향해 발언할 수 있고, 발언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은 도덕적 무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참여나 실천도 부재한 상태에서 교회가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모든 사회를 향하여 발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요더의 윤리가 한국적 상황에 적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의 삶은 그가 말한 것을 철저히 배신한 것(김기현, 2020: 158)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한 것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의 한 모델로 요더를 비롯한 아나뱃티스트의 신학을 적극 탐색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아나뱃티스트인 요더와 개혁파인 마우 두 사람의 대화를 소개하고, 두 사람을 모델로 삼아 한국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와 아나뱃티즘의 오해와 대립을 지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 남은 과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존 요더일 것이고, ‘국가와 함께, 국가가 없이’라는 이중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존 요더에게서 시작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1차 자료

Yoder, John H. (1984).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_____. (1992). *Body Politics: Five Practices of the Christian Community Before the Watching World*. Scottdale: Herald Press.

_____. (1997). *For the Nations: Essays Public & Evangelical*. Grand Rapids: Eerdmans.

_____. (1998).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Scottdale: Herald Press.

_____. (2004). *Anabaptism and Reformation in Switzerland: An Historical and Theological Analysis of the Dialogues Between Anabaptists and Reformers*. Kitchener, Ontario: Pandora Press.

김기현 역(2007a).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Yoder, John H.(2003). *Discipleship as Political Responsibility*. 춘천:KAP.

[Kim, K. H(2007a). *Discipleship as Political Responsibility*. Chuncheon:KAP. Trans. Yoder, John H(2003). *Discipleship as Political Responsibility*. Scottdale: Herald Press.]

신원하·권연경 역(2007b). **예수의 정치학**. Yoder, John H.(1972). *The Politics of Jesus*. 서울: IVP.

[Shin, W. H & Kwon, Y. K(2007b). *The Politics of Jesus*. Seoul: IVP. Trans. Yoder, John H.(1994).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_____. (2009). *The War of the Lamb: The Ethics of Nonviolence and Peacemaking*. Stassen, Glen H. et all eds.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김기현 역(2011). **근원적 혁명**, Yoder, John H.(1971). *The Original Revolution*. 대전: 대장간.

[Kim, K. H.(2011). *The Original Revolution*. Daejeon: Daejanggan. Trans. Yoder, John H.(1971).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dale: Herald Press.]

김기현 역(2012).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증언**, Yoder, John H.(1964).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대전: 대장간.

[Kim, K. H.(2012).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Daejeon: Daejanggan. Trans. Yoder,

John H.(1964).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Newton: Faith and Life Press.]

2차 자료

김기찬 역(2017). **칼빈주의 강연**, Kuyper, Abraham(2008). *Lectures on Calvinism*. 파주: CH북스.

[Kim, K. C(2017). *Lectures on Calvinism*. Paju: CHBooks. Trans.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Six Lectures Delivered at Princeton University, 1898 Under the Auspices of the L. P. Ston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김기현(2002). 개혁주의 세계관 비판과 변혁 모델의 다양성. 「신앙과 학문」, 8(2), 7-37.

[Kim, K. H.(2002). The Critique of Christian Worldview and Plurality of Transformational Model. *Faith & Scholarship*, 8(2), 7-37.]

김기현(2020). 존 요더의 평화주의는 사회 변혁의 모델인가? 「신앙과 학문」, 25(3), 145-163.

[Kim, K. H.(2020). Is Pacifism of John Yoder a Model of Society Transformation? *Faith & Scholarship*, 25(3), 145-163.]

김대인(2009).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4(2), 49-79.

[Kim, D. I(2009). A Study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 Focusing on "Two Kingdoms Theory" *Faith & Scholarship*, 14(2), 49-79.]

김종원(2016). 개혁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예베르트 철학에서 국가 개념 연구: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신앙과 학문」, 21(3), 61-89.

[Kim, J. W(2016). Dooyeweerd's concept of the state based on the reformational worldview: Is the state a result of sin or a institution of the creation order? *Faith & Scholarship*, 21(3), 61-89]

김종흡 외(1986). **기독교 강요(하)**, Calvin, John(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Kim, J. H(198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Calvin, John(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배덕만 역(2011). **기독교 정치학**, Redekop, John H.(2000). *Politics Under GOD*. 대전: 대장간.

[Bae, D. M(2011). *Politics Under God*. Daejeon: Daejangan. Trans. Redekop, John H. *Politics*

Under God. Scottdale: Herald Press.]

진석용 역(2008). **리바이어던**, Hobbes, Thomas(1839-45). *Leviathan*. 서울: 나남.

[Jin, S. Y(2008). *Leviathan*. Seoul: Nanam. Trans. Hobbes, Thomas(1839-45).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William Molesworth, ed. London: John Bohn.]

진덕규 역(1991). **민족국가와 폭력**, Giddens, Anthony(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서울: 삼지원.

[Jin, D. K(1991).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Seoul: Samjiwon. Trans. Giddens, Anthony(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상훈 역(2011). **소명으로서의 정치**, Weber, Max(1958). *Politik als Beruf*. 서울: 후마니타스.

[Park, S. H(2011). *Politik als Beruf*. Seoul: Humanitas. Trans. Weber, Max. *Politik als Beruf*. Johannes Winckelmann ed. Tübingen: Mohr Siebeck.]

한완상 역(1977). **사회학에의 초대**, Berger, Peter L.(1963). *Invitation to Sociology*. 서울: 현대사상사.

[Han, W. S(1977). *Invitation to Sociology*. Seoul: Modern Thought Publishing Company. Trans. Berger, Peter L.(1963). *Invitation to Sociology*. New York: Anchor Books.]

노종문 역(2008).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Dawn, Marva J.(2001). *Powers, Weakness, and the Tabernacling of God*. 서울: 복 있는 사람.

[Roh, J. M(2008). *Powers, Weakness, and the Tabernacling of God*.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mpany. Trans. Dawn, Marva J.(2001). *Powers, Weakness, and the Tabernacling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민종기(1999).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Cullmann, Oscar(1956).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서울: 여수론.

[Min, J. K(1999).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Seoul: Jeshurun. Trans. Cullmann, Oscar(1956).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민종기(1999). “부록II: 국가와 영적 전쟁.”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Cullmann, Oscar(1956).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서울: 여수론. 127-176.

양성만·홍병룡 역(2007).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lbert & Goheen, Michael W(2005). *Creation Regained*. 서울: IVP.

[Yang, S. M·Hong, B. R(2007). *Creation Regained*. Seoul: IVP. Trans. Wolters, Albert & Goheen, Michael W(2005). I(2nd). Grand Rapids: Eerdmans.]

유승원 역(2002). **신약의 윤리적 비전**, Hays, Richard.(1996).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서울: IVP.

[Yu, S. W(2002).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Seoul: IVP. Trans. Hays, Richard(1996).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이문장 역(1992).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Ellul, Jacques. *The Presence of the Kingdom*. 서울: 대장간.

[Lee, M, J(1992). *The Presence of the Kingdom*. Seoul: Daejanggan. Trans. Ellul, Jacques(1967). New York: The Seabury Press.]

이종욱 역(2009). **하나님과 제국**, Crossan, John Dominic(2007). *God & Empire: Jesus Against Rome, Then and Now*. 서울: 포이에마.

[Lee, J. Y(2009). **God & Empire: Jesus Against Rome, Then and Now**. Seoul: Poiema. Trans. Crossan, John Dominic(2007).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이지혜 역(2005).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서울: IVP.

[Lee, J. H(2005).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Why are Christians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Seoul: IVP. Trans. Sider, Ronald J(2005). Grand Rapids: Baker Books.]

한성수 역(2004).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Wink, Walter(1992).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Han, S. S(2004).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Seoul: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 Trans. Wink, Walter(1992)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Estep, William(1996). *The Anabaptist Story*. 3rd. Grand Rapids: Eerdmans.

Leihart, Peter J(2010). *Defending Constantine: The Twilight of an Empire and the Dawn of Christendom*. Downers Grove: IVP Academic.

Mouw, Richard(2012). "Foreword." Parler, Branson L. *Things Hold Together: John Howard*

Yoder's Trinitarian Theology of Culture. Scottdale: Herald Press.

Parler, Branson L(2009). "John Howard Yoder and the Politics of Creation." Bergen, Jeremy & Siegrist, Anthony G. eds. *Power and Practices: Engaging the Work of John Howard Yoder*. Scottdale: Herald Press. 65-81.

Redekop, John H(2009). "A Response to P. Travis Kroeker's 'Messianic Political Theology: Yoder contra Redekop'." *Direction*, 38:1. 67-78.

Schuurman, Douglas(2007). "Voaction, Christendom, and Public Life: A Reformed Assessment of Yoder's Anabaptist Critique of Christendom."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3. 247-71.

국가와 함께/없이 사는 법 - 존 요더의 국가론*

How to live with/without the State
- The State Theory of John Yoder

김기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존 요더의 국가 이해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폭력성을 줄이고 복지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면, 한국교회는 국가의 본질과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며 교회다운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근대의 국가 이해를 살핀다. 홉스, 베버, 기든스, 버거의 이해에 따르면,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이거나 행위자이다. 그 다음은 요더의 국가론을 성경적 맥락, 기독교론, 정사와 권세, 교회론의 측면에서 다룬다. 그는 국가가 지닌 두 얼굴, 즉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서도 폭력성을 더 강조한다.

그 이후에 요더의 논쟁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존 칼뱅과 화란 개혁파의 국가 이해를 비교, 대조한다. 양자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는데, 국가의 어두운 면인 폭력성을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선한 측면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더의 국가론과 사회참여 방식을 지지하면서도 본 연구자는 요더가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의 국가 이해는 성경적이면서도 근대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그의 국가 이해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참여의 구체적 대안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존 요더, 아나뱃티스트, 국가, 장 칼뱅, 화란 개혁파, 정사와 권세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Exploration of Change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방은영(Eun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of teacher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From November 4 through December 16, 2020, five beginning teachers who had volunteered to serve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located in a district of the city of Seoul were respectively interviewed in depth twice, 40 minutes each, via Zoom that is a video communications app, and they received teacher education six times, one and a half hours each. The teacher education revolved around "Christian world view," "spiritual training for teachers,"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I,II)" and "teacher-child-parent relationship building and communications." The data that were gathered by the in-depth interviews and reflective journaling were analyzed in a qualitative manner to explore what changes the beginning nursery teachers underwent. As a result, their chang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reflective thinking on nursery teacher qualification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for the first time and feeling wonder," "becoming a teacher as a specialist, not just as a volunteer or dedicator," "being in need of practical cooperation and help from experts," and "resolving to become a teacher trying to learn all the time and serve gladl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operation from experts and sustained and systemized teacher education are both necessary to select and nurture church school teachers and to help them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Key words : Church school, Nursery department, Beginning teacher, The process of teacher education.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3일 게재확정

** 총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종합관 6층,
lovelybey@hanmail.net

영아부는 ‘교회학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정대현, 곽연미, 2014) 영아 또한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므로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정희영, 2004).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훈련을 통해 영아는 구원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탁아기능이나 양육자와 동일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자칫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예배환경(정해숙, 2007)을 극복하고 영아의 신앙발달에 최적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박혜영, 2003).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과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장화선, 2020) 영아부 운영 또한 교사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박미화, 하연희, 권미량, 2019).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은 한국 교회학교 교육의 퇴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학교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교육분야에서의 탈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유재덕, 2020)와 맞물려 교회학교의 존재의 이유와 본질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으로서 영성과 섬김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 더해 박미라(2006)가 제시한 바처럼 깊이 있는 지식, 아동의 성장방식 이해, 교수-학습 과정 이해, 교수법 사용 등의 훈련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교사들 중 처음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사들의 경우, 교사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교사직을 수행할 경우, 교회학교 현장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하는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교사직을 권유받는 상황(박은혜, 2013)에서 사전교육 없이 교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박범철, 2008; 박상진, 2007; 박행님, 2014). 이는 적지 않은 교회가 교사부족을 이유로 헌신적인 봉사의 자세와 신앙적 열정만을 교사자격의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교사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은 교사를 선발(정영선, 2008)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교사는 자칫 자원봉사자인 ‘비전문가’로 인식되기도 하고(이영은, 2002; 임용수, 2001) 결국은 이러한 교사요인이 교회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회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위기 초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용원, 이현철, 2010; 박행님, 2014; 박현웅, 2005).

이와 관련해 조철현(2017)은 교회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전문성, 영성,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이요섭(2002)은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교사선발, 사전교육, 지속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제

대로 된 교사교육의 부재는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양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한미라, 2008).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큰 틀에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의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초임교사들(Kathleen, 2008) 중에서도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김옥주, 2013). 더 나아가 영아부서 운영 및 영아와 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 연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입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로서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교육관이나 태도,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민정, 2017).

박미화, 하현희, 권미량(2019)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부 교사 대상 교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예비 전 모임 수준(61.9%)의 교사관리가 대부분이고 교사교육 빈도는 일년에 한 두차례(52.4%), 그리고 교사교육의 주제는 교사의 영성(3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여전히 내용과 방법 면에서 부실하고 교사의 영성훈련에 치우친 사례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교회학교 교사직의 수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관련해 ‘교사로서의 교수법, 발달 이해 등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밝힌 함영주 외(2015)의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반드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영성 측면뿐 아니라 가르치는 연령에 대한 지식과 실재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현조, 배지희(2018)의 경우, 실제 영아를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다양한 발달특성과 욕구를 지닌 영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면 영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김지현, 양옥승, 2009)에 미숙함을 나타내 보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회학교의 본질인 신앙교육의 중심을 잃은 채 우유나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돕는 보살핌 위주의 직무수행(김옥주, 2013; 양옥승, 2004)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경력직 많은 동료 교사나 전임교역자 등으로부터 받는 친절함의 도움의 손길이나 충고는 초임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영아부 예배가 영아와 부모와의 동시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 교육 못지않게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Schmidt & Knowles, 1995).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초임 영아부 교사가 영아를 지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초임교사를 서툰 존재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임교사는 좋은 교사되기의 가능성과 소망을 접어둔 채 오히려 기존의 관습이나 경력자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현조, 전홍주, 2020).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교사

로서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충만한 시기(Halford, 1998; Kathleen, 2008)인 교사 지원 초기, 그리고 영아부를 처음 맡게 되는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는 더욱더 교사자격의 기초로서 철저한 양성훈련과 영아관련 지식 및 실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준비와 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영아를 지도하는 초임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성은영, 최승연, 2015; 이완희, 박찬옥, 2005; 최지현, 권경숙, 2012)은 주로 영아교사로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적응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지원방안(강은영, 김진옥, 2020; 김옥주, 2013; 문은영, 신혜원, 2012)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교사교육의 현황(김선미, 2010; 노옥경, 2017), 개선방안(박은혜, 2020; 박행님, 2014; 이기룡, 2014),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은혜, 2008; 신언혁, 2004; 이수인, 2014; 임용수, 2001) 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교육 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김국환, 1990; 송문규, 2013; 정희영, 2011; 조기숙, 2020)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평가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부모교육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초임 영아부 교사교육에 적용하여 적극 실천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처음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희망하고 이에 동의하는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Covid-19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오영범, 이창두, 2012)을 활용한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총 22명의 교사 중 5

명의 초임교사들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교사들이다. 본 연구대상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

	Age	Faith history	Marital status	Reason for applying	Highest level of education	Job
A	34	A cradle Christian	Single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Freelancercartoonist
B	37	12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Employee
C	38	5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Master's degree	Cafe owner
D	42	23 years	Married (1 Child)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Housewife
E	29	A cradle Christian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Missionary group executive

2.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심층면담과 교사교육

1). 영아부 초임교사교육의 출발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초, 영아부 전담교역자 및 영아부 동료 교사들로부터 권유를 받아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사 두 명과 연구자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대체 영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교육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실제를 배울 수 있나요?”, “그냥 교사로 지원해서 섬기다 보면 잘할 수 있을거야~라는 말들만 믿고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사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고 혼란스러워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초임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일정부분 자발적이지 않음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부담감으로부터의 걱정의 말들은 유아교육전문가로서 교회학교 영유아부 전담교역자 2인과 함께 2021년도 교사교육을 논의 중이던 연구자로 하여금, 관습처럼 반복되어오던 일회성 2시간 정도의 집합교육에 의한 교사교육 계획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 영성훈련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담당 영아 연령이나 교사경력 유무를 고려한 소규모의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 3년, 초등부 교사 6년, 청소년부 교사 2년 경력을 지녔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러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특히 영유아부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유아 발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법, 부모교육,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 관련 강의들을 주로 해왔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지난 3년간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자문과 교회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사론과 부모교육을 주제로 강의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자격 강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지닌 다양한 연령의 교사경험은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해당연령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의 발달특성 이해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전담교역자와 공유하면서 2021년 영아부 교사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사선발 시기를 앞당기고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3). 영아부 초임교사 심층 면담의 내용과 방법

영아부 초임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위한 내용은 선행연구들(김향자, 김혜선, 양미현, 2007; 이완희, 박찬옥, 2005; 조혜진, 2007)에서 제시한 영아반, 초임교사, 입문교육, 교직적응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본격적인 교사교육이 실시되기 직전과 6회차의 교사교육이 모두 끝난 후에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각 40분씩 총 2회 이루어졌다.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영아부 교사 지원 동기’, ‘교회학교 교사 경험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영아발달 관련 사전지식 및 경험 유무’, ‘교사교육에 기대하는 점’ 등이었다. 교사교육 직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교사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사교육 전후의 가장 큰 변화’, ‘교사교육의 개선점’,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기대’ 등이다. 각 교사별 심층면담에서의 주요 내용과 개인별 특이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교회학교 교사경험이 없고 영아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예배참석은 필수이며 분반모임을 진행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교사교육에서는 영아와 부모관리 및 분반모임 운영방안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이 가장 유익하였고 마지못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직교사교육과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의 필요, 그리고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 영아부 경력교사들과의 실제적 조언 나눔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에 대한 아

쉬움을 말하였다.

B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초등부 교사 2년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 역할은 예배 참석은 필수이고 분반 모임 진행과 학부모 관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 거는 기대로 영아 발달 이해와 부모 관리방안을 말하였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느낀 점은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관리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분반 모임 자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이후의 현직교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C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중등부 교사경력 1년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역할로 분반 모임 진행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분반 모임 운영 방법 및 학부모 관리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함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영성관리 측면을 더욱 보강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었다. 이후의 지속적인 현직교사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전문가 협업 교육이 필요함도 말해주었다.

D교사는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자녀양육 경험이 있고 초등부 교사 8년의 경력을 지녔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교사역할에 대해서는 예배참석과 영아-부모 신앙훈련 및 학부모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서는 교사자질 향상과 부모관리 방안을 좀 더 심도깊게 다뤄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교사로서의 지속적 배움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영아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영아와의 소통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의 현직교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의 역할은 영아와 부모의 신앙 인도 및 분반모임 진행이라고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한 교육 경험은 없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영아 연령별 발달 이해와 소통법 알기를 희망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커졌음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새롭게 알게된 점이 많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강의형식보다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현직교사교육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교사역량 계발을 위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요구하였다.

4).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 및 구성 과정과 실행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회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박은화, 2009; 은준관, 2007; 조한나, 2019; 최성진, 2018; 홍정근, 2002)에서 제시한 내용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사교육의 주제들인 ‘기독교 세계관’ 과 ‘교사의 영성’,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론’을 근거로 본 연구대상이 영아부 초임교사들임을 고려해 교육대상으로서의 ‘영아발달의 이해(I, II)’, ‘교사-영아-학부모 관계와 소통법’ 등 총 6회차의 교육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아부 전담교역자 1인, 영아부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영아부 부장집사 1인, 영아부 5년 이상의 경력교사 2인, 영유아부 교회학교 12년 교사경력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의 내용 검토를 받았다. 각 교육주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단순한 이론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예배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교사교육의 주제와 세부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jects and main contents of teacher education

Weeks	Subjects of teacher education	Details
Week 1	Christian worldview	Confession of faith in Christian salvation thought, Christian identity, creation of God and corruption, salvation, problems of God's authority and sovereignty.
Week 2	Teachers' spiritual training	Resolve to become a Holy Spirit-filled teacher in everyday life and to change and mature
Week 3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life of Jesus as an example as a teacher. Teacher self-esteem.
Week 4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I)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theological aspect (Infant created in the image of God/Infant in sin/Infant under the covenant of grace/Infant as a spiritual being)
Week 5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II)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 (physical/social-emotional/cognitive/linguistic/spiritual developmental)
Week 6	Teacher-infant-parent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metho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fants and parents as a relationship of worshiping and communicating together,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and practices of parent education.

앞의 Table 2에서 제시한 바처럼 교사교육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영성관리와 담당하게 될 영아발달

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이를 토대로 영아부 분반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비록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의 상황에서도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들이 부실하게 전달되거나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실습을 반복하였으며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교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스케줄 공지 및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전송을 매 주차 마다 진행하였다, 그리고 총 6회의 교사교육 중 도입부의 1-2회차 강의를 맡은 전임사역자와 함께 초임 영아부 교사들의 수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PPT 작성 및 참고 영상과 음원을 활용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최종 구성된 교사교육 내용은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영아부 전임교역자 경력을 지닌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인 1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교사교육에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교사교육은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총 6회 각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으며 전임사역자(2회)와 유아교육 전문가(4회)가 주 강의를 맡아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차시별 수업은 도입(10분: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메인 룸 입장 및 인사 나누기-시작 기도), 전개(50분 주제별 교육), 마무리(30분: 질문, 강의 소감과 피드백, 마무리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전화안내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대상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와 연구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매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는 교사개개인이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과 매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제출한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수집·활용되었고 모두 A4 용지 69장 분량이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거나 보면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 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46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최종 5개의 범주로 공통된 주제들을 묶는 범주화(coding category) 과정을 거쳐 주제영역을 나누고 분류하였다. 이후 각 주제마다 적합한 사례들을 요약하고 추출한 후 여러번 반복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 교사들에게 연구결과 평가작업(M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쳐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자료를 재분류,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을 통한 범주화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ategorization process through data analysis

5 final categories	Subcategories (16)	Meaning unit (46)
Reflective thinking about infant teacher qual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ce of teacher qualification • Reflectively thinking beyond regrets and burdens • Acknowledgement of not being qualified as a teacher 	Teacher Qualities, Infant Department, Teacher, Qualification, Mistakes, Education, Recommendation, Burden, 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Regret, Preparation,
The understanding and surprise of infant development that was encountered for the first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ar of dealing with infants • Preconceived notions about infants as education targets who are never easy to deal with • Infants' amazing abilities 	Infant, Unknown world, Experience, New world, Surprise, Prejudice Education target, Infant's ability
Becoming a teacher as an expert beyond service and ded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mmendation that all you need to do is volunteer • Incompetent teacher disguised as a dedicated one. • Having specialty as an infant teacher 	Service, Dedication, Initiative,, Specialty Responsibility, Incompetence, Competence, Recommendation,
Need for practical help from expert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for Changes in teacher education conducted only by teachers demand • Need for the education of infant education related experts with spirituality • Teaching teach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church and experts 	Clergy, Expert, Ability, Verification, Help, Collaboration, church, Spirituality, Infant Expert
Commitment to be a teacher who is always willing to learn and 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membering the nature of the teachers who serve the nature of the teacher who serves • Being willing to teach without being forced to • Becoming a teacher who always learns and develops • Being responsive and actively practice 	Joy, Always, Service, Teacher who learns, Good evaluation, Development, Commitment, Practice, Force

III.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등 교사역할에 대한 인식과 점차 교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직전과 직후 총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리자 교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교사들 중 B D, E교사의 경우에는 2021년 영아부 교사직 시작 전에 일회성 2시간 정도의 교사교육을 기대했었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 섞인 말들을 하기도 하였고 교사자격이나 준비와 관련해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거나 E교사의 경우,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등 속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다행히 심층면담과정에서 교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안내받은 후에야 초임교사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에 자신이 지녔던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점차 반성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솔직히 영아부 교사직에 대해 권유를 받고는 거절이 어려워 등 떠밀리듯 마지못해 교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라 민폐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았다...중략...오늘 ‘교사와 영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영아부 교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무자격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1월 14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교사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는 워낙 교사지원자가 부족한 상태라 마치 귀한 대접을 받고 교사가 되어주는 것 처럼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 경건의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읽기 등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게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교사로 부족한지를 일깨워 준 오늘의 교육이 새삼 크게 와 닿는 날이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이번에 교사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린 자녀도 키워 보았고 교사 경험도 풍부한 상태에서 대상 연령만 바뀌 교사로 섬기게 될 것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을 되돌아 보게 한 오늘이었다. 교회학교 교사되기는 결코 쉽지 않고 특히 영아부 교사는 절대 준비없이 함부로 맡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2월 16일 D교사 심층면담 내용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교사자격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사고로의 전환은 강의 피드백과 나눔의 시간에 많이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교사가 부족하니 ‘정말 사람이 없고 나라도 해야한다면 해볼게’라는 식의 교만한 마음까지 가졌었음을 고백하였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교만한 태도야말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아니며 교사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채움과 성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2.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D교사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나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미혼의 교사들로 D교사를 포함해 모든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의 이해(I, II)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초임 영아부 교사들은 결코 쉽지 않은 학습대상자로서의 영아 다루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고유한 인격체로서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영아를 ‘미숙한 존재’, ‘소통하기 힘든 존재’로 인식해왔던 선입견을 점차 바꾸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특히 교사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강의를 매우 유익하였고 이를 통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예배가 부모도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한편으로 영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보다 부모와 관련한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영아발달 이론을 배우면서 영아가 단순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하게 되었고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도가 정말 마음에 쏙쏙 와 닿았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영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신기하다. (11월 28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영아 발달관련 주제였다. 막상 영아부 아이들을 지도하려니 두려웠고 어떻게 영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이 항상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전문가 강의를 통해 영아가 어떤 발달 특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유능한 존재로서 영아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12월 16일, A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영아발달 이론 중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다양한 이론과 접목해 배우는 시간이 참 좋았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실제에서의 적용 방안까지... 중략...

영아의 능력과 관련해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시간이었다. (12월 5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의 총 6가지 주제 중, 영아발달의 이해(I, II)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 과정 내내 궁금한 점들을 메모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초임교사들 중 일부는 영아와의 인격적 소통이나 교육을 통한 변화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대부분 부모와의 소통과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고 영아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교사교육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말해주었다.

3.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이나 교사교육 과정의 초반부에서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 대부분 교사직을 ‘봉사’와 ‘헌신’의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교사교육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는 그저 봉사만 하면 된다는 주변의 권유와는 달리 감히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봉사나 헌신의 의미를 넘어 영성과 함께 영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주도적으로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자’, ‘비 전문가’ 라고 여기는 주변의 인식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관습처럼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음도 말해주면서 교사교육이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당위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헌신을 가장한 무능력한 영아부 교사가 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사는 봉사직 아닌가요?...중략...목사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을거라고 하시구...중략...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영아부 전도사님이 매주 잘 안내만 해주시면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11월 4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항상 교회학교 교사 수가 부족하고 누구나 봉사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번 영아부 교사 지원은 꽤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사교육에서 교사론을 배우면서 봉사와 헌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중략...영아부 교사로서 단순히 봉사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교사로서 전문가다운 지식과을 겸비하고 준비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 지원했다가 4개월 만에 스스로 교사직을 내려놓으며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 라고 말하고는 급기야 교회까지 떠난 친구가 떠오른다.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그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와 교만을 반성하게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2월 12일 A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을 받고 보니 영아부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영아와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신앙성숙을 도우며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저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12월 16일 C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4.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임교역자 뿐 아니라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은 비록 2회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임교사들은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전임교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을 벗어나 영성을 갖춘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초임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과 특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영아발달 특성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중략...영아부 교사는 반드시 영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영아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11월 28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자녀양육을 해 보아서 그런지 영아부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영아부 초임교사들 보다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이전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반복했던 나의 실수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중략... 전문가 관점에서 정확히 안내해주는 영아발달 특성과 실제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왔고 교사교육에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12월 16일 D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특성을 쉽고도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는 전문가 수업이 나를 포함해 다른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중략... 그래서인지 ‘혹시나’ 했던 교사교육이 ‘역시나’ 가 되었다. 영아발달

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교사로서의 중심을 잡아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11월 28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처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과 관련해 전문가로 부터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직접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교육의 내용이 전임교역자 주도의 영성훈련을 넘어 담당하게 될 영아관련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5.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각자의 교사 지원 동기와 과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준비 없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고백하였다. 하지만 교사교육 과정을 통해 ‘억지로 섬기는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이를 활용해 더욱 열심히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영아부 교사로 직무를 수행함에 쉽게 탈진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을 권유하고 추천한 동료교사가 교사교육은 일년에 일회정도 특강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큰 부담갖지 말라고 말해 주었었는데... 종략...이번의 영아부 초임교사 대상 교사교육은 내게 교사로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좀더 준비된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종략...이번 교사교육을 통해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영아부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왜 되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4일, B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이전에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의 경험이 생각난다. 그때도 주변 권유로 시작했지만 유아를 대면하고 다루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도망치듯 온갖 핑계를 대고 그만 두었었다...종략...이번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의 교사교육은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에 소망을 갖게 하였고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 제발 억지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11월 28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영아부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분의 오랜 설득 끝에 교사 되기를 결정하고야 말았다... 종략...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막연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태도로 섬기는 영아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12일 D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이번의 교사교육 뿐 아니라 이후의 현직교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여야 하고 각자 강한 참여 의지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영아부 초임 교사들은 교사교육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안이한 태도나 게으른 관습 따라하기,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게 하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영아부 예배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2021년도 영아부 초임교사로서 영아들과 부모님을 영 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거나 매주 전화 심방을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대면 상황 못지 않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교사교육에서 갖게 된 반성적 사고와 열정이 쉽게 식

지 않도록 현직교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정말 좋겠어요. 교사교육은 정말 교사 누구나 빠지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12월 16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나 자신도 그랬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시간과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사인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사도 보았던 터라 앞으로는 나쁜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그런 교사들이 있는지 주변을 함께 살피고 챙기면서 영아부 예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12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자질의 기초로서 영성과 섬김의 자세에 더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 관계까지도 아우르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의 겸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교회지도자들과 전담교역자들은 교사들의 필요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이를 특히 초임교사를 위한 교육과 관리에 잘 반영하여 침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학교의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나타내었다. 교사교육 전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은 특별한 자격이나 검증과정이 없어도 영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시간을 들여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할 자격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됨이 매우 송구하고, 적잖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도 말해주었다. 하지만 교사교육 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참 교사상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알아가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전문성을 지닌 자격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교사발굴과 양성과정의 한계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며 교사의 영성, 섬김의 자세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양성 제도운영의 당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임교사는 자신이 기대한 바와 실제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경우 쉽게 교사직을 포기하거나 억지로 교사직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라도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쉽게 교사직을 포기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박은혜(201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교수현장에서의 실제적 괴리감을 느낄 때 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은 곧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떨어지도록 작용하여 이로 인해 교사직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박범철(2008), Biber(1988) Guskey(198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사에게 단순히 사명감에 충실한 헌신과 순종만을 요구하기보다 교사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귀한 직무임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방은영, 2017).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교사 스스로 교사자격과 의무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교회는 엄격한 교사자격의 부여와 검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 교회나 사회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영아의 인지, 언어, 신체, 사회정서발달 특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강의에 대한 기대 또한 컸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영아야말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소통이 가

능한 존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교사들 대부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영아부 예배와 영아들과의 직접적인 교수 실제 상황에 대한 염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아발달 관련 교육이 매우 의미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교사들이 영아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사들의 대처와 교수실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이혜원, 임수진(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영아발달 관련 교육이 영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담당할 영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주어 영아부 교사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라도 해당 연령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한 강용원, 이현철(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은 결국, 신앙심뿐 아니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가르치는 기술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 박은혜(201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었다. 교사교육 직전에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해주면서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교사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자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등, 그동안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봉사자’, ‘비전문가’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감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초임교사 입문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조인주, 2005; 김정주, 장정애, 2010)에서는 교육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교육이 실시될 때 교사로서의 적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박상진(2007)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회학교 교사양성이라는 점에서 깊은 영성과 봉사와 헌신을 넘어 자신이 감당하는 해당 연령 영아발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이진원(2015)은 교회학교 교사역할로서 교수-학습자, 반 목회자, 교회교육 활동의 지도자, 교회교육행정가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역할의 제시는 자칫 교사입문부터 이후의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오늘날 한국 교회학교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다방면에 유능하고 가르침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과중한 교사역할을 요구하여 오히려 교사 이탈과 탈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낳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히 초

임교사의 경우, 철저한 교사교육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넘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계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이 매우 유익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사교육이 전임교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게 될 해당연령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습득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사교육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으로서 관련지식 및 정보제공과 조언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 교사교육에서의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은 특히 초임교사가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효율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대부분 교육담당 목사나 파트타임 교육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이 결국 교회학교 운영의 부실과 특히 교사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김만형(200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지금까지 관습처럼 이루어져 온 사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비전문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며 비전문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문가 영역까지 개입하는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미라(2006)도 전문적인 내용의 계속 교육을 원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교사교육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은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해당연령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을 나타내었다.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대부분 주변의 권유를 통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이 기대보다 교내용과 방법이 기대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지닌 만족할만한 교육이었음을 말해주었다.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는 일반교사보다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신앙 안에서 점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받아야 함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무엇보다 기꺼이 섬기는 교사되기의 다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이야말로 절대 일회성의 단기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도 체계성을 지닌 현직교사교육도 필요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한 박행님(2014), 박상진(2007)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인구감소추세와 맞물려 한국의 교회학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회학교 교사는 참 교사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보다도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세워져야 한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원하는 교사 중 해당 연령 지도 경험이 전무하고 생존기를 거쳐야하는 초임교사의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영아부 교사직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영아부의 효과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아와 부모 관리 등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사역할에 더 많은 무게감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기독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 교사-영아-부모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에 열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교사직을 수행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임교역자와 스텝들은 교사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 지도 경험이 전무한 영아부 초임교사 5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특성,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는 교사로서의 입문과정에서 자기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교사직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작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상황을 포함해 영아들과의 실제 만남과 교사직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어떤 양상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피는 질적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영아반 초임교사 교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영아반 초임교사를 포함해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의 초임교사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용원, 이현철 (2010).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질적 연구: 전문성 저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93-119.
- [Kang, Y. W., Lee, H. C. (2010). The Qualitative Study to improve Church School Teachers Professionalis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mpeding Elements in Professionalism. *Bible and Theology*, 54, 93-119.]
- 강은영, 김진옥 (2020). 영아반 초임보육교사의 전문성지원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전문성 및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1), 51-75.
- [Kang, E. J., Kim, J. W. (2020). The Effects of a Teacher Education Program for Professionalism Support for Beginning Child Care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on Self-respect, Efficacy in Teaching and Professionalism.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6(1), 51-75.]
- 김국환 역 (1990). 기독교 교육과정연구의 이론과 실제. Wyckoff, D. Campbell. (1961).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Curriculum. 서울: 성광문화사.
- 김민정 (2017). 일상물 중심의 수학활동이 유아와 예비교사에게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1(1), 609-631.
- [Kim, M. J. (2017). The Effect of Mathematics Activities Focused on Everyday-life-Materials on Children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1(1), 609-631.]
- 김선미 (2010).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Kim, S. M. (2010). The practicality of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and its improvement plan.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옥주 (2013). 보육전문가가 제안하는 영아반 초임교사의 입문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5), 325-346.
- [Kim, O. J. (2010). Beginning infant teachers' needs for in-service education and ways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from the aspect of childcare professional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325-346.]
- 김정주, 장정애 (2010). 초임 유치원 교사를 위한 입문교육에 대한 운영실태.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345-359.

[Kim, J. J., Jang, J. A. (2010). A situation about induction education for no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6), 345-359.]

김지현, 양옥승 (2009).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육이 지니는 의미: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163-190.

[Kim, J. H., Yang, O. S. (2009). The meaning of infant and toddler care at the day care center: caring and teach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2), 163-190.

김향자, 김혜선, 양미현 (2007). 유치원 초임교사 입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영유아교육연구**, 10, 103-127.

[Kim, H. J., Kim, H. S., Yang, M. H. (2007). A preliminary study of developing an introduction programme for beginning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0, 103-127.

김현주, 조형숙. (2006).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43-67.

[Kim, H. J., Jo, H. S.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 Culture to Foster Positive Collabor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1), 43-67.

권현조, 배지희(2018). 만 1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연구**, 38(2), 61-90.

[Kwon, H. J., Bae, J. H. (2018).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about infants' adjustment in 1-year-old class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_____ 38(2), 61-90.]

권현조, 전홍주 (2020). '되기(becoming)' 관점에서 1세반 초임교사 바라보기. **교육문화연구**. 26(5), 971~999 .

[Kwon, H. J., Jun, H. J. (2020). Looking at novice childcare teachers in one-year-old class from a 'becoming'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6(5), 971-999.]

김만형 (2003). **SS 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 [Kim, M. H. (2003). SS Innovation Report. Seoul: Edunext.]
- 노옥경 (2017). 성서침례친교회 교회학교 교사교육 현황 분석-교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성침논단**, 12, 141-185.
- [No, O. K. (2017). Korea Baptist Bible Fellowship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Analysis-Focusing on Responses from Teacher Participants. *Bible Baptist Journal of Theology*, 12, 141-185.]
- 문은영, 신혜원 (2012). 보육시설 초임교사 입문교육의 운영형태에 따른 초임교사 교직적응. **열린부모교육연구**, 4(2), 67-91.
- [Moon, E. Y., Shin, H. W. (2012). New Teachers' Level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Programs for the New Teachers at a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Parent Education*. 4(2), 67-91.]
- 박미라 (2006).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세 개의 포커스 그룹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2, 481-515.
- [Park, M. R. (2006). A Need Assessment of Korean Sunday School Teachers in Three Focused Group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2, 481-515.
- 박미화, 하연희, 권미량 (2019).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예정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1). 59-93.
- [Park. M. H., Ha. Y. H., Kweon. M. R.(2019). A Survey Study on the Sunday School for Infant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aith & Scholarship*, 24(1), 59-93.]
- 박상진 (2007).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Park, S. J. (2007). A New Paradigm of Teacher Education for The Revival of Church Schools.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박은혜 (2008).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기독교교육논총**, 18, 131-152.
- [Park, E. H. (2010). Suggestion to Church School Teachers'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Ident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131-152.]
- 박은혜 (2013).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4, 317-348.
- [Park, E. H. (2013). A Study on Commi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317-348.

박은혜 (2020). 예수님의 임파워먼트의 교사교육 및 양육에의 적용방안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5, 205-234.

[Park, E. H. (2010).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Nurture of Jesus' Empower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5, 205-234.]

박은화 (2009). 부모와 분리된 영아부서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Park, E. W. (2009). Developing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egregated infant teachers.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박행님(2014). 모바일 러닝을 활용한 교회학교 교사교육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 53(1), 327-360.

[Park, H. N. (2014). Studying how to use mobile learning on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The Gospel and Practice*, 53(1), 327-360.]

박현웅 (2005). 교회학교 교사들의 조직헌신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Park, H. W. (2005).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박혜영 (2003). 부모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영아부 교육에 관한 연구;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Park H. Y. (2003). A study on the education of infant education separated from parents; Focused on the case of central church in Bundang.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방은영 (201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03-140.

[Bang, E. Y. (2017).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Church School Teachers-with priority given to teachers in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Fath & Scholarship*, 22(3), 103-140.

성은영, 최승연 (2015). 만 1세 신입 영아교사의 어려움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385-403.

[Exploration into the Difficulties of Beginning Infant Teachers who Teach 1 Year Old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6(3), 385-403.]

송문규 (2013). 교회학교 교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Song, M. K. (2013). A Study on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Church School Teacher - With a focus on Kwang Lim Methodist Church Curriculu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신언혁 (2004).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9, 425-452.

[Shin U. H. (2004). Development of Vocational Role Training Program for Church School Teach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9, 425-452.]

오영범, 이창두 (2012).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8), 317-326.

[Oh, Y. B., Lee, C. D. (2012).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English Class Using Videoconferenc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17-326.]

유재덕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3-37.]

은준관 (2007).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한들출판사.

[Eun, J. K. (2007). Christian education. Seoul, Handle Press.]

이기룡 (2014). 교회학교 교사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예장 고신 총회교사대학을 중심으로. **복음과 교육**, 16, 75-112.

[Lee, K. R. (2014). Study on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for Sunday School Teachers curriculum. *Gospel And Education*, 16, 75-112.]

이수인 (2014).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법의 사용 -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문제중심 학습법의 효과에 대한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 **기독교교육논총**, 37, 233-259.

[Lee, S. I. (2014). Problem-based Learning in a Local Church -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Korean Churc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33-259.]
- 이영은 (2002). 웹기반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 [Lee, Y. E. (2003). A Study of Church Teacher's the Needs and Awareness on the Web Based Church Teacher Trainin.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완희, 박찬옥 (2005).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 **유아교육학논집**, 9(3), 5-30.
- [Lee, W. H., Park, C. O. (2005).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3), 5-30.]
- 이요섭 (2002). 교회학교 교사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Y. S. (2002).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unday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진원 (2015).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교육 시스템”. **교육목회**, 48, 68-75.
- [Lee, J. W. (2015). The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that will set the next generation right. *Educational Ministry*, 48, 68-75.]
- 이혜원, 임수진 (2007). 유아교사의 교수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반성적 사고, 정서적 적응성,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7(4), 401-418.
- [Lee, H. W., Lim, S. J. (2007). The Correl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ispositions toward Reflective Thinking, Emotional Adaptability and Motivation Orientation with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4), 401-418.]
- 임용수 (2001).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Lim, Y. S. (2001). Study of programs for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Master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정대현, 곽연미 (2014).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9(2), 213-235.
- [Jung, D. H., Kwak, Y. M. (2014). A Study on Conflicts and Stresses Experienced by Teacher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Church Schools. *Fath & Scholarship*, 19(2), 213-235.]
- 정영선 (2008). 교회학교 교사교육 이러닝(e-learning) 도입에 관한 교사의 요구조사. 석사학 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Jung Y. S. (2008). Analysis on Teachers' Demand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e-Learning for Sunday School Teacher Education at Church.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정해숙 (2007).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Jung. H. S. (2007). Survey of Actual Conditions for Activating Church School Infant.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정희영. (2004).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Jung, H. Y. (2004). Christian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정희영 (2011). 교회학교 유아기 교육과정 기획과 교사교육의 방향: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31, 5-45.

[Jeoung, H. Y. (2011). The Curriculum Planning for Young Children of School and Direction of Teacher's Training Program: Based on Comenius' Educational Thought.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1, 5-45.]

조기숙 (2020).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Jo, K. S. (2020). A Study on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Sunday School Teacher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Seoul, Korea.]

조인주 (2005). 초등학교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Jo, I. J. (2005). A Study on the Induction Program Development for Beginning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조철현 (2017).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 헌신도, 만족도, 그리고 교사사역 인식에 대한 양적연구: 장로교 K 교단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3, 157-181.

[Cho, C. H. (2017). A Quantitative Study of Church School Teachers' Competence, Devotion,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Teaching Ministry: Focusing on K Presbyterian Denominatio. *Korea Reformed Journal*, 43, 157-181.]

조한나 (2019).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 평가 도구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Jo. H. N. (2019). Developing a Self-assessment of Developmental Levels for Church School

- Kindergarten Teachers.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1(2), 237-262.
- [Jo, H. J. (2007).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and Adjustment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1(2), 237-262.]
- 최성진 (2018).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oi, S. J. (2018).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최지현, 권경숙 (2012).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육아지원구**, 7(2), 75-101.
- [Choi, J. H., Kwon, K. S. (2012). A Study o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to Infant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7(2), 75-101.
- 한미라 (2008). 교회의 교사교육 실태와 성서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21, 275-314.
- [Han, M. R. (2008). Some Biblic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Issues of Teacher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1, 275-314.]
- 함영주, 전병철, 신승범, 이현철, 조절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 [Ham, Y. J., Jun, B. C., Shin, S. B., Lee, H. C., Cho, C. H. (2015). *A Study of Church Ministers Recognition on Churc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1-33.
- 홍정근 (2002). 교육교회 300호 축하메시지: 교육교회를 손에 들 때마다 거는 기대감. **교육 교회**, 300, 7.
- [Hong, J. K. (2002). Education Church No. 300 Congratulations: The every time Expectations toward an Educational Church. *Education Church*, 300, 7.]
- Biber, B. (1988). The Challenge of professionalism: Intergrating theory and practice. In B. Spodek, O. N. Saracho, & D. I., Preters (Eds.), *How students learn: Reforming school through learner-centered education* (pp, 409-448).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ross, R. (1995). The role of mentor in utilis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newly qualified

- teacher. *School Organization*. 15(1), 35-42.
- Guskey, T. R. (1988). Teacher efficacy,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innovation. *Teaching Teacher Education*, 4, 63-69.
- Halford, J. M. (1998). Easing the way for new teachers. *Educational Leadership*, 55(5), 33-36.
- Kathleen, F. K. (2008). *Being an Effective Mentor*. CA : Corwin Pres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Teacher Education*. 36(1), 37-41.
- Schmid, M., & Knowles, J. G. (1995). Four woman's stories of 'Failue' as beginning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1, 429-444.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Exploration of Change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방은영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5명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각 40분씩 총 2회의 개별 심층면담과 각 1시간 30분씩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 '교사의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의 이해(I II)', '교사-영아-학부모 관계와 소통법'이다. 심층면담과 반성적 저널쓰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선발과 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업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교사교육 과정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송희영 (Hee-Yeong Song)**

강연정 (Yeon-Jeong Ka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Although the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have played one of the major roles in Korea's spiritual revival for the past 100 years, the church community has taken little notice of the ministers of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to construct a sou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urches; and to help campus ministers equip themselves for not only their current missions but also their future lives.

Seven major components are as follows: 'Tendencies to invite a current student leader to be a minister-to-be,' 'Cultivating the atmosphere of focusing on the essence of faith,' 'Holding-the-bag phenomena, that is, being putting in a situation where one minister should unfairly take excessive responsibilities,' 'Bearing your cross of poverty through fundraising,' 'Churches' negative biases on mission organizations,' 'The taboo on planning their future career after finishing their current mission,' and 'The longer you minister, the earlier you fail in the job market.'

Given these components, practical issues on their calling and their vocational satisfaction, expertise and independence, and reality awareness and future plans, were discussed. Also,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with churches and the ministers' future careers as well.

Key words :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Ministry Experiences spiritual maturity of the workplace ministry, weekend church, weekday church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박사,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shy1220@hanmail.net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교수,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yjkang@kosin.ac.kr

I. 서론

한국 캠퍼스선교단체의 시초는 1920년 YMCA, 감리교회의 엠픽청년회, 장로교회의 면려청년회, 성결교회의 신생청년회 등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영현, 1978). 해방이후 기독교 학생 운동은 크게 두 흐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YMCA, YWCA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기독교학생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장로교 면려회와 SFC 기독교학생운동 등 선교 운동에 강조점을 둔 학생운동이었다. 5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 자리를 잡으며 60년대와 70년대에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기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문정배, 2006).

한국 선교단체의 시초라고 생각되는 시점으로부터 올해로 100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삼더라도 7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선교단체는 캠퍼스 및 해외에서 복음전도와 성경적 리더십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국내·외에 끼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캠퍼스선교단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캠퍼스선교단체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교회와 협력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이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문화가 다른 해외에 파송되는 해외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파송 선교사보다는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전도사 등이 대부분 은퇴까지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에 비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장기 사역보다는 단기 사역자의 비중이 많고, 사역자의 수도 교회 사역자나 해외선교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특수사역자라는 점에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종(2019)은 캠퍼스 사역의 복음화 운동이 청년의 때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이들을 길러냈지만, 현시대의 캠퍼스 청년들은 그늘진 세상 가운데에서 열정을 잃고 살고 있으며, 교회 청년대학부의 감소,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의 위축 등으로 한국 캠퍼스 복음화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장신근(2015)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내적·외적 차원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학교의 양적 감소, 아동·청소년 대 성인 교육의 이원화, 입시 교육의 악영향, 교육 현장의 분리와 왜소화, 신앙 정체성 형성 교육의 약화, 개혁 의식 양육 교육의 약화, 대화적·소통적 교육의 약화 등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는 캠퍼스선교단체 간사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힘이며,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인다. 캠퍼스선교단체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학원에서의 전도와 훈련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수와 과거보다 복음의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다양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역자로서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들과 더불어 캠퍼스선교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와 청년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는다면 캠퍼스선교현장이라는 중요한 사역의 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청년들의 전도와 기독교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방향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훈련 받아 사역해 온 현장 전문가들을 사직과 함께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및 사역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오로지 사역자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인해 사역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며 교회와 연계하여 사역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선교단체 사역자로서의 삶 이후에 어떠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준비행동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성숙한 사역과 삶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캠퍼스선교단체

선교단체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선교단체를 정의할 때 대체로 두 가지로 선교단체를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는 파라처치(para-church)로서의 선교단체이다. Snyder(1975)는 교회(Church)와 교회 밖의 선교단체(Para-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파라처치(para-church)라는 용어는 '지역교회를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는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

나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은 선교단체에 대한 파라체치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교회에 대한 2차적이고 종속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다. 선교단체는 종속물이나 부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는 판단으로, 처음부터 교회는 교회이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였다는 양분 구조를 강조하며, 선교단체를 교회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것에 단호히 거부했다(차병준, 2000). Winter(1970)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두 구조를 말하며 ‘Modality’인 교회와 ‘Sodality’, 즉 선교단체’를 들고 있다. 소달리티(Sodality)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연령층, 교육배경,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친교집단을 가리키는데, 이런 구조는 모달리티 구조에 비해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크다. 따라서 전도와 양육을 중심으로 세계선교와 전문사역에 주력하며 대학생 등이 적합한 사역의 대상이라고 본다(이광순, 1993).

선교단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White(1983)는 선교단체를 어떤 영적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조직이 기성교회 회중의 권위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Dayton(1991)은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나 교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라 정의하였다. 김영철(1990)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기관으로 교회 사명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포함한 각종 선교 기관들이라고 정의하며 선교단체는 가시적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oer(1961)는 선교단체가 지역교회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고, Peters(1984)는 선교단체를 하나의 역사적 우연으로 임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지역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았다.

Jason & Perez(1993)은 지위면에서 선교단체는 교회에 종속되며, 존재면에서는 교회와 동등하고, 기능면에서는 때로 교회의 귀감이 되며, 성취면에서는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선교단체는 교회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았으므로 종속적이나 교회와 더불어 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동등하며, 교회의 귀감이 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승장(1990)은 비교적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이 성숙한 영국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선교단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제안하였다. 캠퍼스 선교단체는 지역과 교파의 한계를 넘는 특수 사회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전도하는 팔’이라고 이해한다면, 선교단체와 교회의 경쟁 관계나 갈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캠퍼스선교단체는 영국의 ‘기독교학생회’, 미국의 ‘캠퍼스복음화운동’ 등과 같은 학생선교단체들이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한국에 생겨났다(정준기, 2001). 역사

적 흐름 속에서 캠퍼스선교단체는 대학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Howard(1970)는 Zinzendorf가 독일에서 다섯 소년들과 결성한 ‘겨자씨 모임(The 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 영국의 Wesley의 고전과 신약성경 연구모임인 ‘Holy Club’,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헌신한 7명의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확장해 갔던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 캠퍼스선교단체의 시초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1920년 YMCA, 감리교회의 엽윳청년회, 장로교회의 면려청년회, 성결교회의 신생청년회 등의 활동으로 출발하여(이영현, 1978), 해방이 후에는 YMCA, YWCA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기독교학생운동과 장로교 면려회와 SFC 기독교학생운동 등 선교운동에 강조점을 둔 학생운동의 양 축으로 진행되다가 50년대에 들어서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캠퍼스에서의 선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문정배, 2006). 남전우(1993)는 한국교회사에서 성결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일종의 선교단체 운동의 좋은 결과에 대한 실례라고 보았다. 성결교회가 기존교회의 선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선교의 열정이 매우 높았던 두 명의 젊은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벌인 복음전도 운동의 성과로 성결교회라는 제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을 볼 때, 선교단체가 교회 개척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할이 끝나면 제도 교회로 변신하거나 해체되는데, 일부 선교단체 운동이 제도 교회가 되었을 때, 보편성의 원칙을 벗어나 그 특수성이 가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였다. 유재덕(1994)은 196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급속히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캠퍼스선교단체가 제자훈련을 통한 성경공부, 개인전도, 경건훈련, 찬양사역, 기독교 세계관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큰 도움과 도전을 주었다고 하였다. 1970년대에는 선교단체가 주도하는 대형집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으며, 1980년대에는 해외 단기선교 등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선교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캠퍼스선교단체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교회관의 문제 등으로 한국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교회화 되어 간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기도 하였다(신광섭, 2002).

현재 활동하고 있는 캠퍼스선교단체들은 대부분 학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Campus Evangelization Network)는 학원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 그리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협력 가능한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89년 9월, 11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발기하여 창립되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설립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신앙운동(Student For Christ, SFC), 한국기독교학생회(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 IVF), 조이선교회(JOY),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CCC), 한국예수전

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 한국YWAM), 기독교대학인회(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ESF), 예수제자운동(Jesus Disciple Movement, JDM),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한국 CMF), CAM 대학선교회(Christ's Ambassador mission, CAM), 빚진자들선교회(Debtors to Saviour Mission, DSM), 제자들선교회(Disciples For Christ, DFC), 국제대학선교협의회(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CMI) 등이 있다.

2.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학원이라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자는 대체로 '간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이유경, 2017).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캠퍼스선교단체에서는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들과 평신도로서 전임사역을 하는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임성철(2012)은 한글성경 개역개정판에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네 곳에서 사용되었는데(시104:4, 롬13:4, 고전3:5, 히1:7), 영어성경에서는 'minister', 'servant', 'messenger'의 단어가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사역자의 원어인 헬라어 'διδάκονος'는 일반적으로 '하인'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특정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한 통상적 지칭이라고 하였다. 사역자의 개념을 광의적 의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주인에게 속한 일꾼의 마음으로 존귀한 일에 정성껏 참여하는 모든 자"로 정의하고, 협의적 의미로는 '전문성'과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Chambers(1997)는 사역자는 스스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사명이라는 매우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박영선(2004)은 사역자란 부름 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름 없이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경에서 사역자, 하나님의 종의 표본으로 언급되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윗, 세례 요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 받는 존재로서의 사역자의 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역자는 '인간의 절망을 확인시키는 자'로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더욱 두드러지고, 더욱 전면에 나서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은혜와 구

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과 자리를 본인이 차지해 버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미련한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초대교회에는 본래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적으로 구별이 없는 한 백성 공동체였다.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게 된 계기는 헬라-로마 시대에 구약성서의 제사장 모델이 목회자에게 주어지고, 이단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대표성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3세기 이후부터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적 구분을 통하여 성직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통하여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성직주의와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권주의를 거부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류장현, 2017).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통하여 당시 교회와 교황의 신분적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이분법적 구별을 폐지하여 평신도의 위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교회를 신분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성직자요 평신도인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교회 회복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용, 2019).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된 공동체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현장에 대한 특수한 부르심을 입어 캠퍼스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과 시간을 드리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봉진(2017)은 캠퍼스 사역을 하는 캠퍼스선교단체의 전임간사를 인격(character)과 역량(competency)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 육성, 파송하는 영적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전임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명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CCC의 간사 선발과정을 언급하며, 일정 기간의 합숙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담 훈련간사와 함께 간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가고 내부의 수료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간사의 특징으로 인격과 역량을 겸비한 지도자, 영적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 CCC의 신앙고백서의 신앙을 견지하며 성경적 모범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선교단체조직이 간사를 선발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명의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과 시간을 가지고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교회가 아닌 기독교 단체의 사역자들을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로 정의하였는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에 대한 호칭은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12개 정회원 단체에서 대부분 '간사'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다. DFC는 공식적으로 캠퍼

스 사역자를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CAM, DSM, ESF도 '선교사'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말씀 전파자'(ESF, IVF), '훈련가'(IVF), '운동가'(IVF, SFC), '영적인 멘토'(IVF), '제자'(DFC), '그리스도의 대사'(CAM), '사역자'(DSM, ESF, JDM), '복음 전도자'(JDM), '제자 양육가'(JDM)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학복협 2009).

2019년 11월 학원복음화협의회 대표자 모임에서 각 선교단체의 간사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전체 사역자의 수는 1,947명이었고, 남자는 1,130명, 여자는 817명이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제외하고, 전임간사의 수가 100명이 넘는 캠퍼스선교단체는 3개이며, 50명 이상이 5개, 50명 이하가 2개, 한 자리 수의 간사가 사역하는 곳도 1개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하였다. 다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목적표집, 심층면담, 자료수집 등의 사전 연구 활동으로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녀 사역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선교단체가 운영된 시기와 활동성 및 규모를 판단하여 설립된 지 30년이 넘고 50명 이상의 전임사역자가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사역자들의 연령, 성별, 소속단체, 결혼상태, 사역기간, 사역지역, 사역시간, 사역대상, 사례비를 묻는 기초질문과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동의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학원복음화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각 선교단체 대표자 모임에서 동의를 얻은 후 1차로 학원복음화협의회를 통하여 각 선교단체 대표들에게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2차로 설문지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회원들의 사전 동의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각 단체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를 통하거나 수련회 등 선교단체 간사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도록 안내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자료는 파트타임 사역자나 선정 단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총 132부를 회수하였고,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32)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여자	66	50
	남자	66	50

사역기간	3년 이하	50	50
	4-6년	27	20.5
	7-10년	17	12.9
	11-15년	18	13.6
	16-20년	8	6.1
	21년 이상	12	9.1
나이분포	20대	59	44.7
	30대	46	34.8
	40대	21	15.9
	50대	6	4.5
결혼상태	미혼	61	46.2
	기혼	70	53.0
	사별	1	0.8
사역대상	대학생	113	85.6
	청소년	3	2.3
	기타	16	12.1
사례비	50만원	27	20.5
	50-100만원	34	25.8
	100-150만원	34	25.8
	150-200만원	23	17.4
	200-250만원	10	7.6
	250-300만원	3	2.3
	300만원 초과	1	0.8
사역지역	서울	35	26.5
	인천	9	6.8
	경기	9	6.8
	강원	2	1.5
	대전	4	3.0
	충청	6	4.5
	광주	11	8.3
	전라	22	16.7
	대구	3	2.3
	울산	4	3.0
	부산	14	10.6
	경상	11	8.3
	해외	2	1.5
전체		132	100.0

continued

질적연구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문화기술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로 문화기술지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론의 근거를 발견하는 연구 방법이며, 둘째로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계열의 문화적 부호를 통해 살아가는데, 이러한 복합 성질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며, 셋째로 행위자의 행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사회적 삶에 대한 일상적인 기록으로, 문화생산, 특정 사회갈등, 실천행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문화기술지는 일단의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과 신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내부자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에 의존하고, 외부자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들을 걸러 내면서 자료를 통합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문화기술지는 집단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보다는 독자들이 집단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이해를 발전시킨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접근으로의 개념으로 Geertz가 핵심개념으로 이야기하였던 심층기술의 방법으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그물망으로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의 참여자는 설문에서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참여자들 가운데 목적 표집 하였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D**, E**, J**, J**, S** 등의 5개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 이후 사직한 자들로 사역지역은 서울, 광주, 진주, 창원, 부산, 해외이다. 단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이나 연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될 경우 선교단체의 특성상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사역단체 및 지역은 개인별로 표시하지 않았다. 참여자 16명 중 성별은 남자 사역자 8명, 여자 사역자 8명이며, 결혼여부에서 미혼은 8명, 기혼은 8명이다. 사역자들의 성별 및 결혼여부, 연차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범위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in qualitative research(N=16)

참여자	성별	결혼여부	사역연차	신학여부
A	여	미혼	6년	일반대졸
B	남	기혼	23년	일반대졸
C	남	기혼	21년	신대원졸
D	남	기혼	3년	신대원졸
E	여	미혼	14년	일반대졸
F	남	기혼	8년	신대원졸
G	여	미혼	4년	일반대졸

H	여	기혼	4년	일반대졸
I	여	미혼	6년	일반대졸
J	남	기혼	2년	신학대졸
K	남	기혼	17년	신대원졸
L	여	미혼	30년	일반대졸
M	남	기혼	17년	신대원졸
N	여	미혼	8년(사직)	일반대졸
O	여	미혼	12년(사직)	일반대졸
P	남	미혼	3년(사직)	일반대졸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은 사전에 연락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구두로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면담일정을 정하였는데, 참여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참여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연구자가 이동하였고, 해외 참여자는 부득이하게 전화로 면담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역 대학 인근의 스터디룸과 선교단체 회관, 참여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해 참여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연구자를 소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윤리적 보호 측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그리고 모든 면담은 녹음될 것이고, 연구 참여자의 의사로 언제든지 연구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면면담 또는 전화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가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 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과정에서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원하는 부분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체 삭제할 수 있음도 알렸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지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보이스레코드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간사의 길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현재의 상황과 미래계획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분위기로 이야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과 선교단체 내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소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생략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재질문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면담이 되도록 요청되, 지나친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서 캠퍼스 현장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및 편지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허락 하에 학생들과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실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였으며,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확인해야하는 부분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으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심층인

터뷰 자료는 전사하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삭제와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삭제하기 원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연구 결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2019년 3월 1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진행하였고, 16명의 질적 연구 참여자 가운데 7명은 2회, 9명은 1회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에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사자료는 총 312장이다. 사용된 자료는 지정된 3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것이다.

연구자는 면담 및 자료 분석, 관찰을 통하여 참여자의 삶을 관찰하고, 참여자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자료를 통합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이란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일련의 주제를 도출해 내는 일체의 과업이라 정의해 볼 수 있다(김영천, 2016). 분석절차는 실용적 절충주의 입장을 종합하여 ‘포괄적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초기 코드들은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 한 다음,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전체 자료는 NVivo 12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코딩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드를 77개 총 1,012회 추출하였고, 7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범주화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였다.

IV. 연구결과

질적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7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범주화하였다.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의 독특한 문화로 이들이 학생일 때 훈련 받은 선교단체에 콜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간사를 하게 되는 점, 조직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은 선교단체의 사역 시스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빈약한 점, 후원을 받아 생활하고 공동 폴링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교회와의 갈등,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의 부재와 경력단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였다.

Table 3.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학생 리더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시스템	은혜 받은 곳에서 일하기 원함
	외면하고 싶은 부름
	학생들이 있는 곳, 캠퍼스로 들어감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신앙의 가치와 일치된 삶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역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혼자 책임져야 하는 사역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
	영적 성장을 위한 각자의 발버둥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풀링	후원과 풀링으로 이어가는 삶
	노동 아닌 헌신,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함
	줄어드는 후원,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신학의 부재, 전문성에 대한 의심
	학생을 사이에 둔 우선순위의 갈등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죄책감
	개인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공동체
	안개에 쌓인 미래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	은퇴까지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현장
	준비 없이 사회에 던져짐
	다시 길을 찾기까지 계속되는 시행착오

(1) 학생리더를 사역자로 콜링(calling)하는 시스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은혜 받은 곳에서 일하기 원했고, 때로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의 삶의 현장인 캠퍼스로 나아가기 원했다.

사역자들의 신앙경력은 저마다 달랐지만 자신이 영적 성장을 경험한 캠퍼스선교단체에서 학생리더로 활동하다가 캠퍼스선교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사역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각 선교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자들로 자신이 캠퍼스선교단체 활동을 하며 받았던 은혜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를 통하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믿음생활이 시작되었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초신자여서 초반에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3~4학년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4학년이 끝나고 1년간 휴학하고 그렇게 훈련을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결단하고 그 사역을 하게 된 케이스.” (참여자 A)

참여자들 가운데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사의 삶을 보며 사역자로 산다는 것에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저항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매우 낮은 사례를 받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간사들의 모습을 보며 경제적인 걱정과 높은 헌신이 요구되는 간사의 업무형태에 대한 부분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제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자고 해서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하기 싫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몇 번이나 부르고, 주변에서도 다들 간사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게 됐죠. (중략) 저를 가르쳐주셨던 간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후원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컸고, 매달 후원을 받는데 사역서신을 써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깔렸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또한 간사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족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배우자나 친구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심리적, 인지적 혹은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연, 2001). 지지체계의 불안요소는 사역을 하는 동안 간사의 피로와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역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대학으로 들어가서 불신자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기존의 교회 청년들에게 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에서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선교단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교회문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선교단체는 그 학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맞춤 수 있고 교회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불신자에게 맞추기는 일시적이잖아요. 선교단체는 많은 시간을 그 학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I)

특정 캠퍼스선교단체간의 사역자가 되면 선교단체간의 이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일도 거의 없고, 또한 한 캠퍼스를 맡아 사역할 때에도 장기적인 사역

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를 사역의 장으로 삼고, 한 캠퍼스를 장기간 사역하면서 개인이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영적 멘토(mentor)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것에는 영적 은혜의 경험을 대학생의 시기에 캠퍼스선교단체를 통해서 하게 된 것,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간사로서의 콜링을 받은 것,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기둥이 되어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연구참여자들은 신앙의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독립성이 보장되며,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에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는 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간사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 즉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간사로서의 부름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누리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행복했고 가치 있다고 느꼈을 때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본다면 저는 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또 쓸 것 같아요.” (참여자 P)

캠퍼스선교단체의 간사들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역을 선택하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사역을 이어가는 것에는 이러한 강한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신앙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이 매우 분명한 이들이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에서도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또한 대학생이라는 대상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역교회 사역과 차이 나는 캠퍼스 사역의 큰 특징으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독립성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장의 영역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분이었으며, 또한 사역의 현장이 타의에 의해서 옮겨지기보다는 한 캠퍼스를 오랫동안 맡아 지속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캠퍼스 이동과 사역 대상의 이동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에도 단체 안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의 조율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전도와 신앙의 성숙함으로 청년들을 이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복음의 성장으로 이끄는 일에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사회의 등으로 캠퍼스를 가지 않는 날들을 제외하고, 매일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며 사역하고 있었다. 기도모임, 제자훈련, 리더모임, 캠퍼스 예배 등의 형식으로 많은 시간 학생들과 삶을 공유하며 가르치고 있었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일부는 캠퍼스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의 형식으로 자취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며 캠퍼스를 벗어난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역한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 만나서 케어하고, 구원의 확신의 없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M)

“누구도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지만 제가 먼저 청년들을 찾아가서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나와서 만남이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해줌으로써...” (참여자 G)

과거와 달리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청년들의 복음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성희(2019)는 청년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주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바른 복음의 가치를 지닌 사역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이단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역교회로 이끄는 것은 이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연구 참여자들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역 현장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지만 또한 사역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미비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불만을 나타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가 되기 전 훈련을 거치지만 훈련의 기간은 길지 않고, 사역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하여 선배 간사에게 조언

을 구하여도 결국 자신이 담당하는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역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적 문제나 능력 부족으로 느끼고 이를 통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체 안에서 시니어 간사가 된 이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의 고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지만 정서적 위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독박사역을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역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시간 사역에 내몰리면서 소진되는 경험을 하고,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현실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간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일년에 두 차례 정도 있는 간사수련회와 상시적인 지역의 독서모임 정도가 공동체적으로 공급되는 영적 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때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높은 강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캠퍼스에 나가 기도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으며, 간사들 중에는 학사 생활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간사들도 다수 있었다.

“*대를 중심으로 이 근방의 6개 대학을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했었다가 작년 2학기부터 한 형제 간사가 와서 같이 저희는 권역이라고 해서 **대권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중략) 캠퍼스적으로도, 지구적으로도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다 부담이 되고 실제로 캠퍼스에 학생들을 많이 챙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듦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퇴근이라고 하면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것이 퇴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있고 다음 날 사역 때문에 카톡으로든 형제 간사님과 회의하고 그러니 실제로 잠자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다 자는 것이어서 그렇게 출근, 퇴근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주말에 토요일 정도나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그때는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요일에는 한 주간의 사역을 준비해야 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대일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었는데 13명 정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한 주말에 양육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양육이 잡히면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중략) 저희가 밥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버너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센터에서 밥을 하고 이동을 하고.” (참여자 A)

참여자 A는 6개 대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대일 제자훈련을 13명 정도 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센터에서 밥을 해서 캠퍼스로 나르는 일 등을 감당하며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8개월의 만삭인 참여자 H는 결혼 전부터 사역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신혼도 학

생들과 함께 시작하고 현재도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열정이 높고 사역자에 대한 이상이 높은 경우, 모든 시간 사역자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쉬지 못한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일과 여가의 시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헌신했던 선배 간사들이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쉴 틈 없이 흘러간다고 생각되는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며, 돌봄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더 빠른 소진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사역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도 높은 사역으로 인한 피로감과 건강의 악화, 사역의 대상인 학생들이나 동료간사들과 갈등이 생기는 등의 영향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사역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사역자들은 기도와 책 읽기 등을 하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하였으며, 참여자 J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주일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 충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지만, 영적 침체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하여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인적인 영역으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독립된 사역의 장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쉴 수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역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주로 저년차의 간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직접 현장을 담당하기 보다는 선교단체 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고년차의 간사는 선교단체 시스템이 어떻게 간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현장의 간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민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각 선교단체들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간사의 지원과 관련된 선교단체의 노력이 사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간사들이 이미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것에 대해 헌신을 담보하고 사역을 하기에 신체적, 심리적, 영적 위기 역시 헌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풀링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후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다. 각 선교단체에서

는 후원사역을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역자를 만들어 사역적인 지지와 더불어 후원을 통한 경제적지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적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사역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낮은 사례를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사역자로 사는 것에는 가난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가운데는 후원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동료 사역자들을 위하여 폴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캠퍼스선교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폴링시스템은 각자가 후원해 온 후원비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재정적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이 후원한 사역비를 모금액과 상관없이 각 사역 연차에 맞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다. 후원모금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이겨내고, 후원으로 인하여 사역을 그만두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적은 사례비를 받아도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재정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빌린 적도 있었고, 다 같이 어렵게 살아서 회식하러 가면 칼국수 먹는 것이 회식이었고 그 외에 그 이상을 먹어볼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감사했던 건 후원이 많지 않았지만 폴링시스템 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한 달 사역비를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사례비를 켜거든요. 3, 40만원? 괜찮을 때는 더 많이 받고 60만원, 70만원? 70만원까지는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50만원, 60만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었고.” (참여자 O)

류재린(2017)의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나라에서 조사된 성직자의 평균 임금은 162만원, 기독교 성직자는 평균 16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빚을 지지 않거나 생활을 할 수 있거나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보상이 사역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었기에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기대수준을 나타내었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례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기에 비교의 대상을 일반적인 직업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로 각오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한 상태라 이에 대

해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사역자로서 재정적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다면 주어진 대로 사례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때때로 고통을 느끼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나 위기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감정과 믿음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후원자가 끊어지고 더 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역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거나 부르심이 다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는 등 생활의 변화와 맞물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가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흔들림으로 나타난다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직한 이들 가운데, 재정적 문제로 그만 둔 사람이 있으며,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간사들도 있다고 전하였다. 결국 매우 낮은 사례비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교회가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때때로 이단으로 오해 받는 것과, 이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때로 낙심하게 된다고 하며, 캠퍼스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캠퍼스 사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바라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지역교회와의 동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캠퍼스 내에도 신천지라든지 다른 사이비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자체에서도 건전한 선교단체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약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건전한 선교단체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여자 F)

캠퍼스선교단체에 관한 연구에서 교회가 캠퍼스선교단체를 보는 불편함 가운데는 사역자들 가운데서 신학을 하지 않은 간사, 즉 평신도 간사가 과연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20대 초, 중반의 나이에 짧은 훈련

시간을 거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이
가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
사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 K는 교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캠퍼스선교단
체 사역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기능 외에 삶의 태도와 가치 등,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다양
한 모습으로 섬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캠퍼스 사역의 전문성을 신학과 비신학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신학적 가
르침 뿐 아니라 삶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전문성이 신학의 유무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으로 가르쳐 가는 것에 있음도 넓게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교회의 갈등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의 모임 참여로 인한 갈등을 이야
기하였다. 즉 교회가 선교단체에 학생들을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캠퍼스선교
단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회 사역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서운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과거의 선교단체의 잘못과 더불어
그런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
자들은 우선순위에서 교회 모임보다 캠퍼스선교단체 모임을 우선시하거나 더 많은 영향력을 지역 교회
밖의 외부에서 받고 있다는 경계와 비판에 대하여, 대학의 훈련 기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위탁의 개념으
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캠퍼스선교단체에서의 훈련이 성숙하고 헌
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에 교회와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서 청
년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였다.

(6)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직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계획을 세울 시
간도 부족하지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이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지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G)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는 이것만 생각하자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해서 더 오히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P)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을 품는 부정적 태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역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배제된 공상으로만 그치는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죄책감은 결국 사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직 이후로 고민을 미루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는 사역 이후에 새로운 직업전환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는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이 개인적인 시간과 사역적인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삶과 사역을 일치시키고 동일시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퇴근 이후에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배움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역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배여 있었다. 이는 사역자라는 존재 이외에 한 개인으로서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역자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때에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조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가장 사역연차가 오래된 L은 30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사역 이후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어떤 강의나 훈련, 정보들을 제공 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간사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배 간사들에게 사역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사역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안에서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도, 당장 당면한 사역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에 사역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 주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였다. 당장 급한 사역들이 많고, 사역을 그만두는 시점 역시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간사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공론화하며 이야기할 만큼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으며, 또한 사역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역자들이 신학 간사로서 대부분 목회로 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사도 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간사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직 이후의 준비를 위해 공동체의 배려를 요구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에 죄책감과 함께 높은 사역 강도로 인하여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적인 마음보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속되면 현재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를 받거나 힘을 잃게 될까봐 저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후퇴로 여겨지고 있고, 또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각하고 있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바램,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직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 이상의 구체적 목표나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7)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

캠퍼스선교단체의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만 보아도 70여년의 역사가 있다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하는 시점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정년을 맞이한 사역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캠퍼스선교단체의 사역자는 지역교회나 선교사역을 하는 이들보다 장기적인 사역을 이어가기 어려웠으며, 은퇴라는 사역의 마무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선교단체에서 정년까지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는 개인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사역 구조에 있었다. 공동체의 폴링시스템이나 교회 사역으로 인한 보조, 가족들의 지지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후원만으로 은퇴의 시기까지 사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학생 사역이라는 분명한 사역 대상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기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간사들이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물려나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시니어가 되더라도 현장 사역을 떠나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내의 장이 없다는 것도 장기 사역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었다. 여성 사역자들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요인도 언급되었다. 캠퍼스선교단체는 여자사역자들이 리더십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단체 내부에서 규정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남성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존재해 왔던 기독교 문화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캠퍼스 사역이 지속되며 쌓게 되는 경험과 전문성이 사역 공동체 안에 발휘되지 못하고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간사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 이후의 진로에 대하여 남자 사역자들과 여자 사역자들은 현실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 사역자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여자 사역자들은 간사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라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선배 간사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들만 갖고 있어 사역 이후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매간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에 이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사역 이후에 오랫동안 진로를 이어가지 못해 곤궁함에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내가 간사를 그만두고 간사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너무 기적적인 일이고 지금 직업을 소개할 때도 뚝뚝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고 막막하고... 막연한 마음이 커서.” (참여자 I)

최명옥(2020)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와의 거리감과 불안감으로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진로장벽을 매우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사직하게 된 사역자들은 경제적이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해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일에 내몰리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신앙의 가치와 동일한 삶을 산다는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실패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개인의 가치감을 저하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직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타인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헌신되길 바라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했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캠퍼스선교단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가 이루어지고, 사역 이후의 삶을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의 논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서의 논의이다. 심층면담 가운데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캠퍼스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에 대한 만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선영(2016)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일을 통해 실존을 확인하고, 일을 선택하거나 주어지는 일을 통해 느끼고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가치, 그리고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중요하게 생각될수록 근로자의 직업만족이 높아졌다는 정주영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서 일이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곧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사역자들은 후원금의 어려움과 높은 사역 강도로 인한 소진, 장기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직무의 부재, 캠퍼스 선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학생들과의 세대 격차, 여성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구조 등 다양한 선교단체의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변화의 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역을 하면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개인의 역량의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캠퍼스선교단체 내부에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로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이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캠퍼스 사역의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캠퍼스 사역 구조에 대해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의 전문성이 신학을 공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학원 사역의 특성상 삶을 통한 가치와 태도의 전달,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감을 통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돌봄, 학생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지는 집중된 위탁교육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에 신학의 이수 여부가 사역자로서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김영철(1990)은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교단체”에서 예배의식에서의 경건성의 결여나 교회가 되려는 시도, 신학 기반의 취약성 및 카리스마적 지도력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에 배타적인 이유들을 나열하며 교회의 우려에 대해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외부적인 우려 뿐 아니라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도 독립된 사역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신입간사로서의 훈련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을 포함하여 사역현장의 바쁜 일정과 해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단체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재훈련이나 상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영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Louis McBurney(1995)는 직업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 소속감의 문제 등 사역자로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도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Oswald, R. M(1991)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스트레스와 탈진이 아닌 건강한 사역을 위해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돌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 역시 정서적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과 돌봄의 부재를 큰 문제로 인식하였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역자들에 비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돌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전문성, 특히 신학적 기반의 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훈련이 신학대학원과 지역교회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역자들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위한 건강검진과 기독교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대학 및 상담센터 등의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실인식과 미래계획에 대한 논의이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현재의 진로와 삶에 대한 긍정성 뿐 아니라 미래인식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간사로서 돈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박영선(2004)은 믿음의 본질은 인생의 절망과 고달픔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로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사역자의 인식이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건강의 악화나 심리적이고 영적인 소진과 관련되어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게 최저시급에 근거한 최소한의 사례비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후원모금이라는 시스템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책임을 간사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사역자를 길러내지 못함으로 캠퍼스선교의 전문성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은 한국교회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역비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시스템의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재구조화를 벤치마킹하고, 해외파송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사례비와 더불어 기본적인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캠퍼스선교단체의 현실을 생각할 때, 사역의 시간과 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월차나 연차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사역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역자들은 미래의 진로전망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간사들의 진로주체성과 긍정적 진로전망에 대한 기대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따른 지속적인 삶을 위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캠퍼스선교단체는 사역자들의 미래인식에 대해 보다 분명한 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사역 이후에도 간사로서의 삶의 비전과 분리되지 않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

로,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거나 무관심한 주제였던 간사 이후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로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캠퍼스선교단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간사 개인이나 선교단체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에 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가진 물질, 인적 자원을 통하여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간사를 캠퍼스로 파송할 때에도 그가 소명을 따라 캠퍼스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때 침체되어가는 캠퍼스와 교회의 청년사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캠퍼스 선교단체 가운데 5개 단체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다양한 선교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현재 학원선교단체의 수는 열 개 남짓이며, 간사의 수도 전국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천 명이 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학원복음화협의회의 협조를 통하여 국내 선교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원선교단체 사역자에 대한 연구가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선교단체 사역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자의 가족, 사역하는 대학의 학생, 대학 교목실 관계자, 교회의 청년사역자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 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주제로 하여 학원선교단체 사역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효과성 검증 이후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간사들을 돕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한계와 제한점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마중물과 같은 연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Chambers, O.(1997). *Approved Unto God: The Spiritual Life of the Christian Worker*. Fort Washington, PA: CLC.
- Davidson, J. C. &Caddell, D. P.(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2), 135-147.
- Duffy, R. D., &Blustein, D.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Religiousness,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429-440.
- Friedlander, F.(1963). Underlying Sources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7(4), 246-250.
- Howard, D. M.(1970). *Student Power in World Evangelis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Oswald, R. M.(1991). *Clergy Self-Care: Finding a Balance for Effective Ministry*.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
- Peters, G. W.(1984).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IL: Moody Publishers.
- Robertson, P. J.(2013). The Well-Being Outcomes of Career Guid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1(3), 254-266.
- White, J. E.(1983). *The Church and the Parachurch: An Uneasy Marriage*. Portland, OR: Multnomah Press.
- Winter, R. D.(1970). *The Warp and the Woof: Organizing for Mission*. South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권선영(2014). **한국형 직업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Kwon, S. H. (2014). *A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ocational Calling Scale(VCS-K)*.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Korea.]
- 김남용 (2019).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서번트 리더십**.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 [Kim, N. Y. (2019). *Lay people Servant Leadership for Smal Group Act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gin. Korea.]
- 김성희 (2019). 청년전도 경험과 실태 연구조사 결과. 학원복음화협의 청년사역연구소(편). **청년전도**.

- 23-44.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 [Kim, S. H. (2019). Youth Evangelism Experiences and Survey Results. Youth Evangelism. 23-44. Seoul: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IV**.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C.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IV**. Gyeonggi-do: Academy Press.]
- 김영철 (1993).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교단체. 목회와 신학(편). **현대목회와 선교단체: 목신신서**, 9. 27-41. 서울: 두란노
- [Kim, Y. C. (1993). Missionary Groups viewed from Churches. *Pastoral and Theology. Modern Pastoral and Missionary Organization: Mokshinseo*, 9. 27-41. Seoul: Duranno]
- 김정연 (2001). 조직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활용 연구-생태체계적 모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1, 1-20.
- [Kim, J. Y. (2001). A Study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Managing Organization Stress, in Focus on the Ecological System Model.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11, 1-20.]
- 류재린 (2017).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 121-155.
- [Ryu, J. R. (2017). Pastoral Pay Differentials in Korea. *Faith and Scholarship*, 22 (1), 121-155.]
- 문정배 (2006). **캠퍼스 선교단체가 기독교대학생들에게 미치는 과제 및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Moon, J. B. (2006). *A Study on the Challenges and Impact of Campus Missionary Organizations on Christian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영선 (2004). **젊은 사역자를 위한 리더십**. 서울: 세움
- [Park, Y. S. (2004). *Leadership for Young Ministers*. Seoul: Seum Press]
- 신광섭 (2003). Parachurch 연구를 통한 한국학생선교단체 비판과 그 대안. 서울: 총신대학교.
- [Shin, K. S (2003). *Criticism of the Korean Student Mission Organization and its Alternatives through Parachurch Research*. Seoul: ChongShin University]
- 신봉진 (2017). **대학생기독교교회 시니어간사의 경력전환경험 탐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Shin, B. J. (2017). *Exploring the Meanings of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of Senior Stewards of the Campus Crusade for Christ*.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윤종석 역. (2002). **사역자 상담**, Louis McBurney(1995).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서울: 두란노서원.

[Yoon, J. S. (2002).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Seoul: Durano. Trans. Louis McBurney. (1995). Counseling Christian Workers.]

이광순 (1993).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Lee Kwang-soon (1993). *Introduction to Missionary Studies*.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s.]

이승장(1990). **성서한국을 꿈꾼다**. 서울: 성경읽기사.

[Lee, S. J. (1990). *I Dream of Biblical Korea*. Seoul: Bible reading.]

____ (2001). **캠퍼스 부흥을 꿈꾼다**.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____ (2001). *Dreaming of Campus Revival*. Seoul: Academy Evangelization Council.]

이영현 (1978).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Lee Y. H. (1978). *Korean Christian History*. Seoul: Concordia Press.]

이유경(2017). 대학생 선교단체 남성 사역자 (간사) 의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1), 129-158.

[Lee, Y. K. (2017). A Study on Stresses Experienced by Male Ministers Working for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and on the Process of their Adaptation to Stresse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8(1), 129-158.]

____ (2019).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 (간사) 사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과정 연구. **목회와 상담**, 33, 233-262.

[____ (2019). A Study on Stresses Experienced by the Wives of Ministers engaged in Campus Missions and on the Process of their Adaptation to Stres. *Pastors and counseling*, 33, 233-262.]

임성철 (2012). **사역자매뉴얼: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역할 것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Lim S. C. (2012). *The Missionary Manual: How to Minister Biblically*. Seoul: The Word of Life.]

정기종 (2019). **캠퍼스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복음화”에서 “선교화”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Jung, K. J. (2019). *A Plan of Paradigm Shift of Campus Ministry: From “Evangelization” to “Missiona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4).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Cho, H. S., Jung, S. W., Kim, J. S. &Kwon, J. S. (201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 53-83.
- [Jung, J. Y. (2013). Structural Analysis of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Job Value, and Job Satisfaction.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31, 53-83]
- 정준기 (2001). **기독교학생운동사**. 서울: UBF출판부.
- [Jung, J.K. (2001). *A History of Student Christian Movement*. Seoul: UBF Press.]
- 차병준(2000). **교회와 선교단체의 유기적인 관계성 연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Cha, B. J. (2000). *A Study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Missionary Organization*. Seoul: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최명옥(2020).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성장주도성, 진로장벽인식, 진로계획 관계탐색**. 박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 [Choi, M. O. (2020). *Career-interrupted Women’s Self-Growth Leadership, Career Barrier Awareness, and Relational Exploration on Their Career Planning*. Doctoral dissertation.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in Campus Mission Organizations

송희영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

강연정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캠퍼스선교단체는 한국 교회에서 영적부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캠퍼스선교단체의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회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사역자들이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사역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생 리더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시스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 문화’, ‘독박사역!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분위기’, ‘함께 지고 가는 빈곤의 십자가, 후원과 풀링’, ‘선교단체를 향한 교회의 불편한 시선’, ‘사역 이후의 진로계획을 터부시하는 문화’, ‘사역의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단절의 현실’이라는 주요한 7가지의 결과에서 소명의식과 직업만족에 대한 논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 현실인식과 미래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캠퍼스선교단체, 캠퍼스선교단체 사역자, 사역경험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Articles from 2001 to 2020

오혜정 (Hye Jeong Oh)**

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and explore tasks for future researches related to Christian adolesc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otal of 138 articles from 2001 to 2020 published in KCI accredited and candidate journal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ver the past 20 years, researches on Christian adolescents has increased from 2 articles in 2001 to 7 articles in 2020. Second, articles on Christian adolescents were published totally 22 journals which were converged to the fields of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Third, with regard to the researchers, considerable number of researches were conducted individually, most of whom were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and field researchers were only 6 articles. Fourth,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non-empirical approaches were mainly used. Among empirical approach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the most used and the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Fifth, research subjects of 61 articles of empirical studies were mainly adolescents, who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Sixth, main research topics studied in articles wer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spiritual aspects, social aspects, vulnerable adolescents, cultural aspects and competence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 adolescents, which were research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enhancement of research interests on underprivileged adolescents and related practices, qualitativ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ac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researchers, ministry and practice fields.

Key words : Jeanet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esbian novel, postmodernism, the supremacy of Christ, the role of the church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4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충신대학교, hyejeong.oh@chongshin.ac.kr.

I. 서론

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아는 지식적 차원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는 정서적 차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이은철·남선우·이성아, 2018).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은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신앙과 신앙생활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등의 심리·정서(Francis, & Kalbor, 2002; McIntosh et al., 1993; Nooney, & Woodrum, 2002; Stone et al., 2003) 또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차원(Bradley, 1995; Lam, 2002; Loveland et al., 2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범죄와 폭력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alas-Wright, Vaughn, & Maynard, 2014).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 수많은 연구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청소년 발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Regnerus와 Smith, Fritsch(2003)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앙생활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윤리 발달, 사회참여와 봉사, 비행, 가족관계 등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대체로 긍정적 기여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고, Schnitker와 Medenwaldt, Williams(2020) 역시 청소년의 신앙생활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앙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간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전요섭과 배은주(2005)는 청소년의 신앙 배경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은철·남선우·이성아(2018)는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관련하여 신앙유능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구성 요인 탐색 연구를 실시했고 박준하(2010)는 영성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 배경, 신앙생활 수준, 신앙성숙 또는 영적 안녕감 등의 신앙 관련 요소가 심리·정서(노은석, 2019; 백은령·손병덕, 2017; 이현주, 2016; 최수영·김준, 2014), 가족관계(배은주, 2015; 이영희·박준하, 2011; 조혜정, 2015), 학교적응(김민선·손병덕, 2020), 진로 발달(배무련·김관희, 2015) 관련 다양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양한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았다.

청소년의 신앙 성장과 영성 회복, 전도, 선교 등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사역 관련 연구도 활발하였다. 조은하(2013), 손원영(2014), 장화선(2015), 이규민(2019) 등은 신학적, 성경적 관점, 때로는 당사자 관점에서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 그 외 사역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고, 이때 황옥경(2010), 윤영대(2011), 김안식(2011) 등은 전도적, 선교적 가치와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교육과 사역의 방향성 모색의 구체적 시도로 이은규(2011)는 교회학교 커리큘럼으로서 웨스트민

스터 소요리문답의 의의와 적용방안을 논하였고, 소태영(2012)과 이성주·강대용(2018)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남선우·강인애(2012)는 성경캠프에서 스마트 러닝을 도입하고 김수환(2019)은 청소년 교회학교 내 플립러닝을 접목하여 그 효과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김난예·이창욱(2012)과 남선우·이은철·이성아(2018), 박미라(2009)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교회교육과 사역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와 만족, 적응 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독교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학대와 방임(김진성, 2020; 안미옥, 2017),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조용훈, 2014; 오운선, 2018), 가출(이명훈, 2015),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심정연, 2019; 장성화·윤향숙·황인호, 2010), 자해와 자살 충동(강경미, 2010; 주정관, 2014) 등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위기와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검토하며 기독교적 교육과 상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 청소년(이준우, 2004; 김춘이, 2014), 탈북 청소년(유명복, 2005; 윤혜경, 2019) 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김미경, 2011; 변영인, 2012) 등 취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반면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부재하였다. 일반 청소년 연구의 경우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이효경·이순희·손은령, 2018), 청소년 활동(전명순, 2017), 스마트폰 중독(김영숙, 2015), 자해(이문영·배용순, 2020) 등의 주제별 또는 학업중단(김범구, 2012)과 학교 밖 청소년(조혜영, 2019), 한부모 가정 청소년(남현주 외, 2013), 다문화 청소년(박병금, 2020), 탈북 청소년(윤혜순, 2014) 등의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활발히 연구 동향을 고찰한 것과 대비된다. 연구 동향 분석은 그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연구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의의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학업 수행, 진로발달, 자아정체성 확립,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성 발달 등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발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교회공동체에서의 관계와 활동,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회복지실천 등은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경미, 김미경, 2015; Regnerus, Smith, & Fritsch, 2003; Schnitker, Medenwaldt, & Williams, 2020).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최근 20년간(2001-2020)의 연구 동향을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느 시기에, 어떤 학술지 및 분야에서 연구되었는가?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떤 연구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가?

셋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자마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독교(교) 청소년’, ‘기독교(교) 아동’, ‘기독교(교) 어린이’, ‘기독교(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을 모두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278개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동일한 문헌,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문헌,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8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청소년 대상 연구 동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김범구, 2012; 윤혜순, 2014; 전명순, 2017)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각 주제에 따른 연구내용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게재 시기와 학술지, 학술지 분야를 기준으로 문헌들을 분석하고 둘째, 연구자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와 함께 연구자 소속을 대학, 연구소, 사역현장(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상담기관, 기독교단체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방법 동향은 먼저 경험적 연구인지 비경험적 연구인지 구분하였고, 경험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대상 동향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연령, 중고등학생 연령을 중심으로 하되 초등학교 및 청년기 연령을 포함하는 경우, 교역자/교사/부모 등 성인을 포함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 동향은 표집한 각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한 후, 그를 토대로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Table 1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Table 1 Analysis framework

Overall	When the article was published
	What journal the article was published in
Researcher	How many researchers wrote the article (1, 2, 3 or more)
	Which organizations were researchers affiliated in (e.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hristian ministry field such as church, Christian school, etc.)
Research subject	Which age group did the research target (e.g. 13-15 / 16-18 / 13-18 years old)
Research method	What methodology did the research take (e.g. non-empirical research vs. empirical research - quantitative,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topic	What topic did the research explore

III. 연구결과

1. 전반적 연구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연도별 논문 빈도를 확인하면,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불규칙적 증감이 있으나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15편), 2010년과 2012년, 2019년(각 13편), 2018년(12편)에서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총 22종으로 다양했으나 대부분의 논문은 기독교신학(44편, 31.9%), 기독교교육(41편, 29.7%), 기독교상담(39편, 28.3%) 등에 게재되었고, 그 외 기독교와 다른 학문의 학제간연구(6편, 4.3%), 청소년학과 기독교윤리(각 3편, 2.2%),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각 1편, 0.7%) 분야에서 일부 게재되었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 또한 「복음과 상담」(27편), 「기독교교육정보」(24편) 등으로 나타나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의 관심이 주로 교육과 상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학술지 분야 및 학술지별 논문 분포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Table 2 Articles published from 2001 to 2020

Yea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rticles	2	2	2	4	6	4	2	3	7	13	15	13	5	10	8	6	4	12	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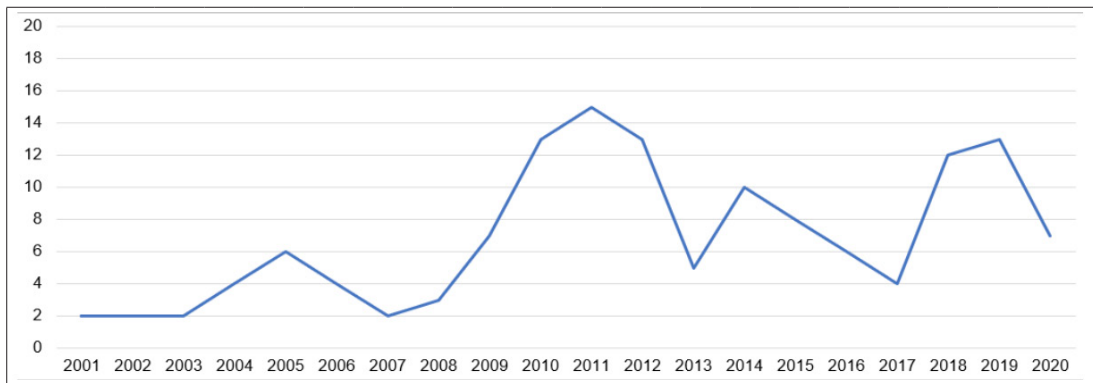


Table 3 Research fields and journals

Fields	Journals	Articles	%	
Christian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13	44	31.9
	Bible and Theology	7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7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		
	Theological Forum	3		
	Korea Reformed Journal	3		
	Mission and Theology	3		
	Theology and Society	2		
	Evangelical Missiology	2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4	41	29.7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4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7	39	28.3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2		
Other Christian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3	3	2.2
Interdisciplinary Research	Faith & Scholarship	6	6	4.3
Youth Stud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	3	2.2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		
Other Stud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	2	1.4
	Korea Journal of Korea Dance	1		
Total articles		138		100.0

2. 연구자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연구자 동향을 연구자의 수와 소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138편 논문 중 1인 단독연구가 113편(8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 연구(22편, 15.9%), 3인 연구(3편, 2.2%)의 순이었다. 연구자 소속의 경우 논문에 저자 직책이 정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크게 대학(교수, 강사, 대학원생 모두 포함)과 교회(목회자 등), 연구소, 교육 및 상담현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166명 중 대부분인 147명(88.6%)은 대학 소속(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이었고 19명(11.4%)은 대학 외 소속, 주로 교회(10명), 교육 및 상담현장(5명), 연구소(4명) 소속이었다. 이에 2인 이상의 연구에서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의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 이 중 대학과 교회 또는 대학과 실천현장의 협업은 4편에 불과하였다.

Table 4 Researchers

# of Researchers	Affiliation	Articles			%
1 Researcher	University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101	113		81.9
	Research institute	1			
	Church (e.g. pastor, minister, etc.)	7			
	Practical field (e.g. counseling center, school, etc.)	4			
2 Researcher	University + University	18	22		15.9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2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Practical field	1			
3 Researchers	University + University + University	1	3		2.2
	University +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 Church	1			
Total		138			100.0

3. 연구방법 동향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구분하고, 경험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와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여 Table 5로 제시하였다.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는 40편(29.0%)으로 주로 신앙생활과 영성, 자기인식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등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매개/조절 효과, 평균 차이 등을 분석한 연구

들이었다. 실험 연구는 8편(5.8%)으로 기독교 청소년 대상의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인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질적 연구는 13편(9.4%)으로 현상학적 연구,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질적 사례 연구, 상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비경험적 연구는 총 77편으로 절반을 넘었는데(55.8%), 선행연구 또는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한 기독교 청소년 및 관련 문제의 이해, 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치유, 복지 방안의 고찰 등에 관한 연구가 주요하다.

Table 5 Research methods

Methods	Empirical research			Non-empirical research	Total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40	8	13	77	138
%	29.0	5.8	9.4	55.8	100.0

4. 연구대상 동향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선행연구 및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해 기독교 청소년과 문제, 그에 대한 사역과 실천 방안 등을 연구한 비경험적 연구는 연구주제로 기독교 청소년을 다루지만 구체적인 연령대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크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9편(96.7%),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3.3%)이었다. 청소년 대상 논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0편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함께 청년을 포함한 논문,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을 모두 포괄한 논문이 각각 2편이었다.¹ 한편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청소년 및 교역자와 부모, 담임목회자 등을 모두 포함한 논문이 1편, 기독교 청소년 사역 전문가(목회자와 교수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논문이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경우, 연구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해당하는 학교급(초/중/고)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Table 6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s		Articles	%
Adolescents	Middle school students (13-15 years old)	6	9.8
	High school students (16-18 years old)	19	31.1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13-18 years old)	30	49.2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13-24 years old)	2	3.3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7-24 years old)	2	3.3
(Adolescents) + Adults	Adolescents + Adults (e.g. pastors, teachers, parents, etc.)	1	1.6
	Professionals (e.g. pastors, professors, etc.)	1	1.6
Total (empirical researches)		61	100.0

5. 연구주제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 138편의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주제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64편(46.4%)²⁾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적 차원 44편(31.9%), 사회적 차원 18편(13.0%), 취약 청소년 지원 11편(8.0%), 문화적 차원 9편(6.5%), 역량 차원 8편(5.8%)의 순이었다.

Table 7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Contents	Articles	% (of 138)
Spiritual aspect	personal faith / religiosity / spiritual well-being	18	13.0
	church education and ministry / Christian education	26	18.8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	psychological well-being / mental health / emotional problems	23	16.7
	behavioral problems and crisis	41	29.7
Social aspect	family relationship and conflicts / parenting attitudes	9	6.5
	school experiences / learning / peer relationship	4	2.9
	career development / other social activities	5	3.6
Cultural aspect	youth culture / media and internet / consumerism	9	6.5

1) 총 138편 논문 중 16편은 6개 연구주제 중 2개에 해당하여 각 주제 논문 편수에 포함하여 주제별 논문 편수의 합계는 154편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 논문 중 각 연구주제의 빈도는 분석 취지를 고려할 때 분석대상 논문 138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Competence aspect	(global) citizenship / creativity	8	5.8
Vulnerable adolescents	multicultural / disabled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11	8.0
Total		154	100.0

* Since sixteen articles had two topics and were inclu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the sum of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was 154. However, the ratio was measured with the base of the total of articles from 2001 to 2020, that was 138 according to the analysis purpose.

첫 번째 주제인 영적 차원은 개인적 신앙과 영성,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의 두 개 소주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적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는 18편(13.0%)으로 기독교 청소년 개인의 신앙생활과 신앙 상태, 신앙성숙, 하나님 이미지 등이 어떠한지, 이러한 개인적 신앙의 특징과 수준이 다른 영역 즉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나 학교생활, 진로발달, 가족관계 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16편)은 양적 연구 및 실험 연구에 해당하였다. 한편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에 관한 연구는 26편(18.8%)으로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 청소년 전도와 선교, 청소년 예배와 설교, 수련회 등에 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방향성과 접근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대다수였다(20편). 그 외 청소년의 교회공동체 적응성, 교회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한 양적 연구가 4편, 성경캠프 또는 수련회 참가 청소년의 경험과 내러티브를 탐구한 질적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인 정서·행동 차원은 그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이었는데, 심리·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정서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23편(16.7%)으로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나아가 심리·정서 문제를 포괄하였다. 이러한 심리·정서가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 영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양적 연구(11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청소년 대상의 치료,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교육과 상담 방안을 고찰한 비경험적 연구(각 5편), 실제 기독교상담 사례를 연구, 분석한 질적 연구(2편) 등의 순이었다. 또 다른 소주제인 행동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41편(29.7%)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부터 학교폭력, 학업중단, 비행, 가출, 자해, 자살 충동, 성폭력 등의 여러 문제행동과 위기를 다루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회사역 등에 대하여 논한 비경험적 연구가 상당수였다(27편). 이외에도 기독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행동과 위기가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문제행동 또는 위기 경험과 기독교 신앙·영성의 관계를 분석한 양적 연구(11편)와 스마트폰 중독, 가출, 성폭력 피해 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을 심층

인터뷰 또는 상담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3편)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차원이다.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주요한 환경이자 체계로 가족, 또래 및 학교, 교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교회의 경우 앞서 첫 번째 주제의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 소주제에 포함되어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 또래 및 학교를 고려하였고, 이에 덧붙여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추가하여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폈다. 첫 번째 소주제인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구조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갈등,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등에 대하여 9편(6.5%)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가족 관련 변인과 기독교 신앙, 심리정서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였고(6편), 가족 관계나 양육태도 등에 대한 기독교교육 및 상담적 접근을 제시한 비경험적 연구가 일부(3편) 차지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인 또래 및 학교 관련 연구는 4편(2.9%)이었는데, 학교생활 또는 1년간 학교를 쉬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편), 기독교 신앙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검토한 양적 연구(1편), 기독교 학습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1편)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소주제인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다룬 논문은 5편(3.6%)이었다.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성숙과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와 기독교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실험 연구, 지역사회 내 기독교교육 요소를 적용한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사례를 연구한 질적 연구가 각각 1편이었고, 기독교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의미를 탐색한 비경험적 연구가 2편이었다.

네 번째 주제는 문화적 차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 이러한 문화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청소년을 교육하고 상담할 것인가에 관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총 9편(6.5%)으로 대부분 비경험적 연구(8편)이며 인터넷(사이버) 문화, 대중매체와 스타 우상숭배, 소비주의, 여성주의, 반생명적 문화 등을 다루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역량 차원으로 총 8편(5.8%)의 연구가 이에 관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창의성, 민주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비경험적 연구(4편), 이러한 역량과 시민의식 등에 있어 기독교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이 어떠한지, 신앙과 영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3편),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한 질적 연구(1편) 등이다.

마지막 주제인 취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논문은 11편(8.0%)이었다. 취약 청소년의 유형 측면에서는 취약 청소년 전반을 다룬 논문 1편 외 장애 청소년(4편), 탈북 청소년(4편), 다문화 청소년(2편)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고, 실제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기독교상담(5편), 기독교교육(3편), 기독교사회복지(1편), 선교(1편), 예술치료(1편)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사회복지 등의 방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8편,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교육 요소와 심리사회적 기능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언어 및 문화사회 정체성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교 선교방안을 모색한 연구 등 양적 연구가 2편, 장애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의의를 살펴본 질적 연구가 1편이었다.

이러한 연구주제 동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주제별,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의 주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그리고 가장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나타나 우울, 자해,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등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의 심각성이 큰 현실 가운데 기독교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행동, 관련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자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예배와 교회교육, 그 외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꾸준할 뿐 아니라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이 청소년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심리·정서,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과 어떠한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양적 연구 시도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독교 청소년의 가족과 또래 관계, 학교생활,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과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체계는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과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의 사회활동은 그 자체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 및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체계와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문화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교회의 청소년 사역 및 기독교상담 또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정서·행동,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 차원에 대한 비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역량과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 또는 이들 역량 개발과 연계하여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독교 청소년이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에 대한 사회 및 교계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반해 취약 청소년 지원 주제에 대하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서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향후 다양한 취약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상담과 교육, 사회복지 및 사역 방안의 구체적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Table 8 Research topics by year

Year	Articles by research topic					
	Spiritual	Emotional / behavioral	Social	Cultural	Competence	Vulnerable Adolescents
2001	-	-	-	2	-	-
2002	1	1	-	-	-	-
2003	-	1		1		
2004	-	3	-	-	-	1
2005	1	1	-	1	1	2
2006	-	3	1	-	-	-
2007	2	-	2	-	-	-
2008	2	-	1	1	-	-
2009	2	3	1	-	-	1
2010	3	9	1	-	-	1
2011	6	4	2	1	1	2
2012	4	6	-	-	2	1
2013	2	3	1	-	-	-
2014	2	6	-	2	-	1
2015	4	5	2	-	-	-
2016	4	2	1	1	1	-
2017	1	4	-	-	-	-
2018	5	3	2	-	2	-
2019	3	7	1	-	1	2
2020	2	3	3	-	-	-
Total	44	64	18	9	8	11

I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고, 분석틀로 논문게재 시기와 학

술지,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와 소속,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8편(최근 5년간 42편) 발표되었고, 연도별 논문출현 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독교 청소년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연구대상에 관하여 KCI 등재지 및 등재후 보지에 발표된 기독교 논문 빈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노인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35편(2001-2020년 89편), 기독교 유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43편(2001-2020년 91편)으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최근 5년간의 논문 빈도와 유사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독교 청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121편(2001-2020년 253편)으로 기독교 청소년 및 다른 대상에 관한 논문 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단순히 발표 논문수로 연구 관심도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논문 빈도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자, 실천가 등의 관심, 문제의식, 다양한 실천과 사역 시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학계와 연구계, 교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으로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및 그를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과 과제,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에 관한 기독교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그 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기독교학문 또는 청소년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비하여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다각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구가 상당수였고(81.9%), 다음으로 2인 연구(15.9%), 3인 연구(2.2%)의 순이었다. 연구자 대부분(88.6%)은 전임 또는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 소속 이었고 교회, 교육 또는 상담현장, 연구소 등에 소속된 경우가 일부(11.4%)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에 대하여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기독교 청소년의 실제적인 생활 실태와 특성, 문제와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역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회, 기독교교육 및 상담기관, 학교, 청소년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사역, 실천현장 간의 협업 환경과 문화가 구축,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55.8%),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29.0%), 질적 연구(9.4%), 실험 연구(5.8%)의 순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의 편중이 상당하였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청소년과 관련 문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 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을 둘러싼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수준과 특성,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질적 연구,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등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 연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49.2%) 다음으로 고등학생(31.1%), 중학생(9.8%), 중·고등학생과 청년 또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각 3.3%), 청소년과 성인 또는 기독교 청소년 사역 전문가(각 1.6%) 등의 순이어서 중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포함 연구가 적은 것은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기독교 청소년을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 청년 또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의 연구는 본 연구 분석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46.4%), 다음으로 영적 차원(31.9%), 사회적 차원(13.0%), 취약 청소년 지원(8.0%), 문화적 차원(6.5%), 역량 차원(5.8%)의 순이었다. 게다가 정서·행동 차원과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분석 기간(2001-2020) 내내 활발히 이루어져 연구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 주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양한 연구주제의 발굴과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과 지평의 확대가 시급한데, 그 가운데 사회적 차원과 역량 차원의 주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기독교 청소년 개인의 신앙과 영성, 기독교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실천과 사역 차원 그 자체 뿐 아니라 신앙,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적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른 체계 즉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학습과 진로발달 등 주요 발달과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특히 오늘날의 빠른 사회변화 가운데 청소년이 갖추고 길러야 할 역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연간 논문출현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오늘날 기독교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 현실 그리고 심리·정서적 문제, 자해와 자살 충동, 학교폭력, 비행과 범죄, 가출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의 심각성이 상당한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구가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때 연구주제 및 분야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그간의 연구 동향을 통해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영적 차원과 정서·행동 차원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심리·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하여 정서 문제 또는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운 시기인 동시에 교회 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집단이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의 삶은 영적, 정서·행동 차원 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교생활, 또래관계, 진로발달, 역량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기독교 청소년에 대한 영향 또한 상당하므로, 앞으로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와 작용에 대한 입체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관한 기독교 연구자들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가출, 비행, 폭력, 자해 등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빈곤, 장애, 한부모, 이주 배경 등의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취약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촉구되는데, 특히 이들의 강점과 역량, 잠재성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취약한 여건과 상황, 둘러싼 한계와 장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취약성이 기독교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를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독교 연구자로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독교 청소년 연구의 대부분이 비경험적 연구 및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의 삶과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독교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이 기독교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와 의의를 만들어내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역과 실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그런데 질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는 인터뷰, 참여/비참여 관찰, 프로그램/서비스 실행 등 연구방법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 및 실천현장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는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 뿐 아니라 연구자와 기독교 청소년 사역 및 실천현장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과제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자(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결국 기독교 청소년이 활동하는 현장 예를 들어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상담기관, 기독교사회복지기관, 기독교청소년단체 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표집, 실증적 연구방법의 적용, 기독교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교사와 같은 관계자의 문제의식과 요구 파악 및 그를 통한 연구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 교역자, 현장실천가 등의 인식 전환과 열린 마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또는 학문과 일반 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계와 현장 간 협업이 체계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기독교 기반의 학문공동체(관련 학회, 연구소 등), 교단, 교육

과 상담, 복지 등의 분야별 기독교기관과 협회 등의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학제간 연구역량 교육·훈련, 연구비 및 연구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중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 및 등재(후보)지 외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연구자가 ‘기독교(교) 청소년’, ‘기독교(교) 아동’, ‘기독교(교) 어린이’, ‘기독교(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세밀히 조사, 표집하였으나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생활, 학교 생활, 신앙 생활, 또래 관계, 진로 발달, 사회적 관계와 지지 등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주요 주제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연구 동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또는 실증연구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수집, 분석하는 메타분석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경미 (2010). 청소년 자해행동의 치료 및 예방과 기독교상담학적 방안. **성경과 신학**, 56, 93-123.
- [Kang, K. (2010). Alternative plan in Christian counseling on behalf of therapy & prevention to remove the self-injurious behavior of juveniles. *Bible and Theology*, 56, 93-123.]
- 김난예·이창옥 (2012). 청소년의 교회공동체 적응성 측정도구, **기독교교육논총**, 32, 71-100.
- [Kim, N. Y., & Lee, C. O. (2012). A study on the church community adjustment assesment in youth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71-100.]
- 김미경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7), 74-100.
- [Kim, M. K. (2011). Approach to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 Focusing on ego-resiliency.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7), 74-100.]
- 김민선·손병덕 (2020).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기독교신앙 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4, 101-131.
- [Kim, M., & Sohn, B. (2020).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An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 according to religious condition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4, 101-131.]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Kim B. (2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ropou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315-337.]
- 김수환 (2019). 청소년 대상 교회교육에서 플립러닝의 효과, **신학과 실천**, (64), 203-226.
- [Kim, S. (2019).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for teenagers in church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64), 203-226.]
- 김안식 (2011). 한국기독교 교회의 아동선교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7), 397-427.
- [Kim, A. (2011). A Study on the Child Welfare Work mission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Theology and Praxis*, (27), 397-427.]
- 김영숙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6(3), 17-29.
- [Kim, Y. S. (2015). Trends and issues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research in Korea.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3), 17-29.]
- 김진성 (2020).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3), 99-121.
- [Kim, J. S. (2020).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Christian adolescents on career ident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31(3), 99-121.]
- 김춘이 (2014). 장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돕는 기독교 상담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 473-497
- [Kim, C. (2014). A study on Christian counseling which assists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eology and Praxis*, (42), 473-497.]
- 남선우·강인애 (2012). 스마트 러닝으로서 계절 성경캠프 사례연구-청소년 교회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2, 267-296.
- [Nam, S. W., & Kang, I. A. (2012). A case study of summer youth Bible study camp program as smart learning.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267-296.]
- 남선우·이은철·이성아 (2018). 교회교육활동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청소년 교회교육 프로그램 흥미수준 측정 도구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54, 243-275.
- [Nam, S. W., Lee, E. C., & Lee, S. A. (2018). Developing a interest level scale of the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church education activitie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4, 243-275.]
- 남현주·윤형식·이태영·신채영·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Nam, H., Yoon, H., Lee, T., Shin, C., & Lee, D. H.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29-168.]
- 노은석 (2019).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종교성향의 조절효과. **기독교교육정보**, 63, 1-25.
- [Know, E. (2019).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stress in Christian adolescent: Regulation of religious disposi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3, 1-25.]

- 박미라 (2009). 기독교교육현장인 청소년 수련회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예배만족의 효과분석. **기독교교육정보**, 24, 91-119.
- [Park, M. (2009).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inistry programs and the satisfaction of worship service in the Christian education field at youth retreat.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4, 91-119.]
-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Park, B. (2020). Analysis of adaptation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 371-381.]
- 박준하 (2010). 교회학교 청소년 영성회복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기독교교육정보**, 27, 349-382.
- [Park, J. (2010).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Spiritual Healing Program for the church school adolescent'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349-382.]
- 배무련·김판희 (2015). 기독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신앙성숙,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42, 331-358.
- [Bae, M. R., & Kim, P.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ristian adolescents' social support, spiritual maturity, career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331-358.]
- 배은주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59-81.
- [Bae, E. J. (2015).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types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piritual wellnes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6(1), 59-81.]
- 백은령·손병덕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157-176.
- [Paik, E. R., & Sohn, B. (2017).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ristian adolescents: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school attainments, church attendance. *Faith & Scholarship*, 22(1), 157-176.]
- 변영인 (2012).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상담에 관한 고찰. **복음과 상담**, (18), 160-186.

- [Byun, Y. (2012).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f Korea and Christian Counseling in Chu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8), 160-186.]
- 소태영 (2012).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34, 113-143.
- [So, T. Y. (2012). Local church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Korean adolescent.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13-143.]
- 손원영 (2014).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의 탐구. **종교교육학연구**, 44, 91-112.
- [Sohn, W. (2014). A study on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4, 91-112.
- 심정연 (2019).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신앙과 학문**, 24(2), 5-32.
- [Shim, J. Y. (2019).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hristian 12-step program to recover smartphone addiction of Christian adolescents. *Faith & Scholarship*, 24(2), 5-32.]
- 안미옥 (2017). 아동학대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개혁논총**, 41, 133-168.
- [Ahn, M. O. (2017). A study of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response in Korean church. *Korea Reformed Journal*, 41, 133-168.]
- 오윤선 (2018).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6(2), 155-184.
- [Oh, Y. S. (2018).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ristian adolescent -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6(2), 155-184.]
- 유명복 (2005). 교육논문 :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성경과 신학**, 37, 297-319.
- [Yoo, M. B. (2005). Christian Education :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the Task of Christian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37, 297-319.]
- 윤영대 (2011). 청소년 전도를 위한 기독교 문화적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4, 133-161.
- [Yoon, Y. (2011). The study Christian culture aspect for youths evangelism.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24, 133-161.]
- 윤혜경 (2019). 탈북청소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 선교 방안 - 기독교 대안학교 중심으로. **복음과**

- 선교, 47(3), 121-157.
- [Yoon, H. (2019). Christian mission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dentity: with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Evangelical Missiology*, 47(3), 121-157.]
-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Yun, H. (2014). Research trend and priority subject of research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125-149.]
- 이규민 (2019).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9, 119-136.
- [Lee, K. (2019). Christian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faith community and spirituality: with a focus on yout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9, 119-136.]
- 이명훈 (2015). 가출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체계론적 기독교상담 연구. **대학과 선교**, 29, 303-331.
- [Lee, M. H. (2015). A study of systems Christian counseling and care for teenage runaway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9, 303-331.]
- 이문영·배용순 (2020). 청소년 자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학교사회복지**, 50, 53-78.
- [Yi, M., & Bae, Y. S. (2020). Research trends related to adolescent self-injury in Korea.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50, 53-78.]
- 이성주·강대용 (2018). Comenius의 범교육학에 기반한 기독교청소년 대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기독교 교육정보**, 58, 51-82.
- [Lee, S., & Kang, D. (2018). Christian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adolescents based on the pampaedia of Comeniu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8, 51-82.]
- 이영희·박준하 (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21, 189-210.
- [Lee, Y. H., & Park, J. 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mage of God which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according to the faith-related variatio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189-210.]
- 이은규 (2011). 기독교청소년을 위한 커리큘럼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6(2), 247-275.
- [Lee, E. K. (2011). Research on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s curriculum for Christian

youth. *Theology and Praxis*, 26(2), 247-275.]

이은철·남선우·이성아 (2018).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유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구성 요인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6, 347-367.

[Lee, E. C., Nam, S. W., & Lee, S. A. (2018). Exploring factors for developing a faith competence scale for Christian adolescen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347-367.]

이준우 (2004). 기독교교육과 농(農)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 77-112.

[Lee, J. W.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education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9, 77-112.]

이현주 (2016). 청소년의 종교기관 출석빈도, 공동체의식, 사회·정서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와 타종교의 비교. **기독교교육논총**, 48, 79-111.

[Lee, H.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religious activities, community spirit,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of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8, 79-111.]

이효경·이순희·손은령 (2018).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621-641.

[Lee, H., Lee, S., & Sohn, E. Y. (2018).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ounseling research trends of youth: Focusing on the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621-641.]

장성화·윤향숙·황인호 (2010). 기독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 283-303.

[Jang, S. H., Yoon, H. S., & Hwang, I. H. (2010). The effect of cellular phone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of Christian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9, 283-303.]

장화선 (2015).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5, 259-283.

[Chang, H. S. (2015). Strategies of restoring church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259-283.]

- 전명순 (2017). 청소년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3(2), 17-40.
- [Jeon, M. (2017). Representing tasks by analyzing trend on domestic studies of youth activitie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3(2), 17-40.]
- 전요섭·배은주 (2005).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 기독교청소년을 중심으로 - **복음과 상담**, (5), 321-346.
- [Jeon, J., & Bae, E. J. (2005).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 in focus of the Christian adolescence -.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5), 321-346.]
- 정경미·김미경 (2015).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잠재적본격적 사역의 실행과정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45, 257-288.
- [Jung, K., & Kim, M. (2015). Youth ministry for faith formation action process research about ministry for youth.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57-288.]
- 조용훈 (2014). 청소년 학교폭력과 기독교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30, 195-224.
- [Jo, Y. H. (2014). A study on the youth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The Korean Journal of Chiristian Social Ethics*, 30, 195-224.]
- 조은하 (2013).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창조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34, 147-168.
- [Cho, E. (2013). A Critical and Creative Study on Christian Yout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147-168.]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485-498.
- [Jo, H. (2019). A study of major issues on supporting youths out of school: Focusing on analysis of related research tren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485-498.]
- 조혜정 (2015). 청소년의 자율성 관련 부모 갈등과 신앙성숙과의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47, 27-53.
- [Cho,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hildren conflicts on autonomy and faith matur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7-53.]
- 주정관 (2014). 청소년 문화, 부적응, 자살에 대한기독교 교육적 대안. **개혁논총**, 31, 289-320.

- [Joo, C. (2014). Christian education for the youth culture, maladaptation and suicide. *Korea Reformed Journal*, 31, 289-320.]
- 최수영·김준 (2014). 기독교 청소년의 영성, 종교성, 정신건강의 연관성과 기독교 상담에의 함축성. **복음과 상담**, 22(2), 371-409.
- [Choi, S. Y., & Kim, J. (2014). Research on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adolescent and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2(2), 371-409.]
- 황옥경 (2010). 다문화 상황과 선교 ; 아동에 대한 교회 지원의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13, 105-128.
- [Hwang, O. K. (2010). A missiological significance of church's support to the children. *Evangelical Missiology*, 13, 105-128.]
- Bradley, D. E. (1995). Religious involvement and social resources: evidence from the data set "Americans' changing liv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259-267.
- Francis, L. J., & Kaldor, 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n Australian population samp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1), 179-184.
- Lam, P. (2002). As the flocks gather: How religion affects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3), 405-422.
- Loveland, M., Sikkink, D., Myers, D., & Radcliff, B. (2005). Private prayer and civic involve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4(1), 1-14.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12-821.
- Nooney, J., & Woodrum, E. (2002). Religious coping and church-base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utcome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2), 359-368.
- Regnerus, M., Smith, C., & Fritsch, M. (2003). *Religion in the Lives of American Adolesc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A Research Report of the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 Chapel Hill, NC: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
- Salas-Wright, C. P., Vaughn, M. G., & Maynard, B. R. (2014). Buffering effects of religiosity

on crime: Testing the invariance hypothesis across gender and developmental period.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6), 673-691.

Schnitker, S. A., Medenwaldt, J. M., & Williams, E. G. (2020). Religiosity in adolescenc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0, 155-159.

Stone, H. W., Cross, D. R., Purvis, K. B., & Young, M. J. (2003). A study of the benefit of social and religious support on church members during times of crisis. *Pastoral Psychology*, 51(4), 327-340.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Articles from 2001 to 2020

오혜정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을 연구한 선행논문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연도별 출현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이었는데 주로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에 집중되었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구가 상당수였고, 연구자 대부분은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 중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의 순이었고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등의 순이었다. 여섯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취약 청소년 지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 다각화,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대한 연구관심 제고,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 연구자(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청소년, 연구 동향, 기독교, 청소년

뉴 노멀 시대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의 기능과 가능성 - 국내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Functions and Possibility of Christian YouTube Contents in New Normal Era - Focused on Christian Personal Media Channels in Korea

김태 룡 (Tae-Ryong Kim)**

안승 범 (Soong-Beum Ahn)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urrent state and functions of Christian YouTube Contents and look into Christian values and use of YouTube platform in new normal era. Personal Media format channels have been selected as study targets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aspects of users have been analyzed by applying media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active user theory.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Christian YouTube channels contribute to strengthening religious identity through sympathy and identification,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Christianity through cultural means, and forming stage of sharing Christian information among believers. On the other hand, limitations including differences in standpoints regarding using YouTube in a Christian manner, reverse effects in unproductive debates, and stagnation of convergence phenomenon have also been identified.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d that support by existing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for expansion of Christians'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invigoration of contents literacy education being conducted at seminaries and churches are necessary.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YouTube and MeMedia in a Christian manner have to be discussed continuously.

Key Words: New Normal, Christian Youtube, Christian Personal Media, Convergence Culture, Christian Cultural Contents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5일 최종수정, 3월 15일 게재확정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ryongworld@hanmail.net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instory@khu.ac.kr

I. 서론

본 연구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의 현황과 기능을 파악하고 뉴 노멀(New normal)¹⁾(McNameee 2004: 135-138) 시대 유튜브 플랫폼의 기독교적 가치와 활용을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은 가장 활발한 담론장을 거느리고 있는 1인 미디어 형식의 채널을 선별할 것이며, 능동적 수용자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용자들의 문화참여 양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초고속 통신망의 광범위한 확산 이후 디지털 문명으로의 세계적 전환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오늘날 현대인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면화 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접속 경제’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스탠 데이비스(Stan Davis)가 말한 ‘속도’, ‘접속’, ‘무형의 가치’라는 키워드는 비단 경제의 영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Davis, 2001/2002:59-70). 개별 주체의 의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 양상을 적확하게 꿰뚫는 용어라고 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비상 상황을 견뎌내면서 ‘비대면·비접촉’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시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디지털 소통 창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러한 팬데믹 환경 안에서, 비정상적인 것이었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소통 방식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표준적인 질서로 재편되는 ‘뉴 노멀’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 기독교는 교회문화의 특성상 디지털 문명의 진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수용하는 데 인색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통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선택적 배제’의 태도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속적 문화의 틈입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행한 ‘선택적 배제’가 때론 사회로부터 교회가 ‘단절적 소외’를 경험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물론 예배문화에서부터 선교와 교제 문화에 있어서도 디지털 소통 방식을 접목·수용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는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비와 새로운 비전의 수립을 앞당겼으며(류은정: 2018:91-117),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한국 교회는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하여 공적 예배 축소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 특정 교회의 일탈적 행동으로 인해 기독교계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빈도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기독교계 안팎에서 반성과 변화의 필요성이 촉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변화’는 비대면 예배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담론의 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독교적 가치가 집약된 예

1) ‘뉴 노멀’이란 용어는 2000년대 중반 경제·금융계에서 시작되었다.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e)는 2004년 『The New Normal』에서 ‘올드 뉴멀’과 분기되는 새로운 반성적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 되는 미래의 모습을 전망한다. 이 용어는 위험이 점증한 만큼 기회도 늘어난 새로운 시대를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가늠하면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배와 예식을 포함해 교회 내 교제와 다양한 선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임시적으로나마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목회 및 교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온라인 혹은 비대면 예배의 불완전성을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며, 비대면 예배가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성만찬의 도입 주장(이은경 2020:295-322), 온라인 예배 형태에 적합한 예배 및 설교 방식 연구(김성중, 2020:39-64; 윤성민, 2020:67-89; 손동식, 2020:33-60),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및 프로그램 개발(마은희 외, 2020:197-220; 유재덕, 2020:13-37; 정희정, 2020:147-172)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고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 방향을 제시한 연구 또한 존재하였다(최동규, 2020:171-200; 김순환, 2020:37-60). 각각의 제안하는 바는 다르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교역자 및 성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온라인 매체의 적극적 활용, 온·오프라인 형식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그러한 공감대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성도 간의 공동체성 형성 및 선교 방식과 창구의 다각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최근 교회 내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맞이한 분야는 예배와 교육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눔과 교제의 장을 상실한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적 경험과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회 밖에서 비기독교인과 접촉할 기회가 사라졌기에 복음을 전달할 직접적인 통로는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예배의 뉴 노멀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교제와 선교의 방식에 대한 뉴 노멀을 고민하는 것은 시의성있는 주제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 건 유튜브 속 1인 미디어 채널들이 비공식적·사적·수평적·비정형적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리 밝힐 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이 유튜브의 기독교적 활용에 대해 주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구성모는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세대 개념 중 하나인 ‘N세대’에 대한 선교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며 유튜브의 선교적 유용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구성모, 2014: 11-4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현주는 인터넷 세계를 선교지로 간주하고 새로운 선교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유튜브가 선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이현주, 2018a:113-152; 2018b:107-147). 임병학은 교회 목회자의 설교 동영상상이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네트워크의 양상을 살피고(임병학, 2014:35-48) 설교 주제와 댓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한 바 있다(임병학, 2019:67-82). 전수희는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1인 미디어의 활성화, 새로운 콘텐츠

개발, 기독교적 크리에이터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전수희:2019). 가장 최근의 연구사례로 보이는 강진구의 논문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 변증 실천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유튜브 활용에 있어 평신도 전문가들의 참여, 이중 언어의 사용, 상업주의의 극복 등이 필요하며, 교회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문화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강진구, 2020: 5-29).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유튜브의 선교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질서의 등장과 맞물려 현재보다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유튜브가 선교의 장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 개인 영성의 강화와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재차 강조하면,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분야는 ‘1인 미디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매체 형태를 말한다. 1인 미디어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크리스천 유튜버를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사적·자발적 채널들이 기성 교회, 선교단체, 기독교 방송국 등이 수행하던 것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 폰의 대중적 보급,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 등 문화적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있는 것은, 첫째, 성도 간의 교제 및 문화적 활동이 교회(장소), 목회자(인물), 행사(사건)를 중심으로 수직적·교조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과거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일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행해지던 대면 접촉 중심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임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비기독교인을 포함해서 타종교인, 반기독교인 등 불특정 다수와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능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하면,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하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확산을 탈교회중심적 현상으로 단정하진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화적 능동성 증대와 기독교 문화의 다중 참여적 형태로의 전환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뉴 노멀 질서 속에서 기독교인이 주체가 된 온라인 참여문화의 현재를 성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컨버전스 시대와 유튜브

미국 MIT의 미디어학자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2006년 저서 <컨버전스 컬처(Convergence culture)>를 통해 현 시대의 미디어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으로 ‘컨버전스’ 개

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컨버전스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콘텐츠의 흐름, 여러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미디어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이주성 행동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는 현 시대가 컨버전스 문화의 시대임을 주장하였다. 올드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충돌·교합하고 풀뿌리 미디어와 기업 미디어가 교차하고 있으며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Jenkins, 2006/2008a: 17).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순환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문화 수용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늘날 미디어 시장의 흐름은 기업 중심의 하향식 과정이 한 축을 이루긴 하지만, 대중 및 소비자 중심의 상향식 과정이 상호 복합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Jenkins, 2006/2008a: 377-378).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 권력, 내지는 대중문화의 주도권은 필연적으로 분산화·민주화된다. 대중들이 컨버전스 컬처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거대 미디어로부터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오기 위함이다. 기업 및 거대 미디어 역시 자신들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컨버전스에 참여한다. 젠킨스는 그 목적이 경제적 계산에 있다고 보았다(Jenkins, 2006/2008a: 359). 컨버전스로 인하여 대중문화 내 권력관계는 상생적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디어의 흐름이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 젠킨스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무선 광대역 통신 서비스가 일상화 된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젠킨스의 예견대로 대중들의 삶, 관계, 기억, 환상, 욕망들이 미디어 채널들을 횡단(Jenkins, 2006/2008a: 38)하면서 중층적인 ‘하이퍼리얼’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튜브 문화는 이 같은 거시적 변화의 특징적 국면을 집약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데이트 주선 사이트를 목적으로 창립된 유튜브는 당대에 난립하던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을 압도하며 이용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다(김진수, 2018: 65-68). 그 후 2006년 구글로 인수되고, 2010년 본격적으로 흑자 운영으로 전환되며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의 월 사용자는 20억 명 이상이며, 일일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에 달한다. 휴대기기를 통한 유튜브 시청률에 한정해도 미국 내 타 TV 방송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현지화된 버전으로 출시되고 있다.² 국내의 상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2020년 9월 기준 한 달간 유튜브 앱 사용자 수는 4319만 명을 기록했으며,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은 29.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튜브는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Youtube about 보도자료, <https://www.youtube.com/intl/ko/about/press/> (검색일: 2021년 1월 2일).

3) 조선일보 2020. 10. 08. “못말리는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4300만명이 한달 30시간 본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 (검색일: 2021년 1월 2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내놓은 케빈 알로카(Kevin allocca)는 관계성을 새롭게 포맷하는 미디어로 유튜브의 특징을 재규정한 바 있다. 유튜브가 여타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과 구별되는 지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식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유튜브의 연결 체계는 개인과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유튜브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통해 평가받는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현대인들의 의식과 가상 경험의 집합체로서 문화적 경향성을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통로가 된다.

알로카는 유튜브의 가장 큰 혁신을 민주적인 배분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종래엔 문화적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튜브로 인해 각 개인의 창의성이 광범위하게 생산·유통·공유되는 장이 만들어졌다고 본다(Allocca, 2017/2018: 54-55). 유튜브의 CBO인 로버트 킨슬(Robert kyncl)과 구글 수석 작가인 마니 페이반(Maany Peyvan)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튜브가 창작자와 수용자의 유대관계 형성은 물론, 양측에 유례없는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Kyncl · Peyvan, 2017/2018: 67).

여기에 헨리 젠킨스의 논의를 접목하면, 유튜브는 오늘날 컨버전스 컬처의 가장 첨예한 국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유튜브는 참신한 향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을 뿐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는 ‘참여하는 대중’들이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수용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선호하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욕망, 기억 등을 공유하며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던 정보의 생산, 수집, 수정, 교환을 스스로 수행하고 자체적인 목소리를 유통한다. 대중들은 유튜브를 통해 주류 미디어에서 결락되거나 소략적으로 다뤄진 지식과 정보, 정서의 틈을 스스로 메우고, 때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디어 컨버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간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 권력의 재편과 분산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유튜브 역시 주류 담론장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주체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유념할 것은, 발신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의 의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참여 양상 및 텍스트의 활용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로카는 영상의 내용보다도 그것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Allocca, 2017/2018: 348-349)을 펼친 바 있다. 이를 유튜브 소비의 장에 적용하면, 생산자의 의도보다도 수용자의 수용과 해석, 참여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존 피스크(John Fiske)의 학술적 방법론에 주목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수용자들이 텍스트(유튜브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고찰하여 해당 문화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이른 바, 능동적 수용자론으로 불린다. 피스크의 경우 TV 시청자들이 대중문화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현상을 그와 같은 논점에서 풀어낸 바 있다. 그

의 주장에 따르면 대중문화 텍스트는 의미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의성을 지닌다. 이때 수용자는 의미 산출의 주체이면서 자율적인 의미 생산 활동을 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Fiske, 1988/2017: 159-193). 덧붙여 피스크는 민족지학적 연구와 텍스트의 기호론적 분석이 연결될 때 만족스러운 문화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Fiske, 1989/2016: 142-143).

실제로 그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미디어·대중문화 연구에 의미있는 결과들을 남긴 바 있다. 그는 TV프로그램, 대중음악 등을 연구하며 콘텐츠에 담긴 메시지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대중문화 수용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족지학적 연구방법론을 대중문화 분야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다. 직접 관찰, 팬레터 내용 분석,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용자의 수용 행위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수용자들이 대중문화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기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연구 방식은 현재까지 미디어 연구 및 문화연구 영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헨리 젠킨스 역시 존 피스크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Jenkins, 2006/2008b: 22). 헨리 젠킨스는 피스크의 방법론을 계승하여 디지털 민족지학적 연구를 시도한다. 젠킨스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재생산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당 커뮤니티 내부로 진입한 바 있다. 이 때 진입이란 대체로 온라인상의 개입을 의미한다. 그는 수용자들 개개인이 생산해내는 의미들과 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그 방법은 수용자들이 작성한 게시물 및 게시물들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젠킨스는 이러한 민족지학적 방식이 ‘실재와의 대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분석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enkins, 2006/2008b: 49). 즉 커뮤니티 내부에서 수용자들이 발화하는 다양한 층위의 담론들을 파악해내고 그것의 양상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문화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착안하여 본고에서 역시 디지털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통해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장을 분석하여 그것의 기능적 측면을 밝혀내고자 한다.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게시한 콘텐츠의 댓글 창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간주하여 내부로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탐구방식을 통해 수용자들이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튜브 상의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채널 10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제시할 것이다. 그 후 각 채널에서 조회 수가 가장 높은 영상 10개씩을 선정하여 내용 및 형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각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이 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댓글 선정에는 특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해당 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발화에 그치는 것이라면 분석의 의의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담론장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의견들 중 보편성을 지니며 상당수의 지

지를 얻는 댓글들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댓글들을 일정한 유형들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 중 타 수용자들의 공감(좋아요)을 다수 얻고 있으며, 기타 동일유형 댓글들의 내용을 포괄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사례를 대표로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 을 통한 질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크리스천 1인 미디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알아보고 뉴 노멀 시대 기독교 유튜브의 역할과 가능성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기독교 유튜브가 지니는 현재적 의의를 밝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진규가 주창하였던 개신교 공동체와 대중 문화에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미디어학 분야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진규: 2012: 181-209).

III. 주요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의 현황

Table 1. Major Christian 1 person media channel in Youtube⁴

채널명	구독자수	영상수	첫 업로드일	Top10 영상의 평균 조회수	주제
달빛마을TV	139,000	243	2013.9.27.	1,110,000	CCM
현이의 일상 Jinun	129,000	132	2018.12.23.	533,000	브이로그
책읽는사자 채널	115,000	182	2018.10.18.	214,000	책 소개, 기독교정보
kei is loved	77,200	125	2018.7.3.	206,000	브이로그, CCM, 기독교 이슈
붓소핸섭- ButsoHandsUp	66,200	83	2019.11.1.	197,700	CCM, 전도, 상담
리얼메시지	37,100	138	2019.1.17.	215,500	기독교 이슈
강림의 사이비 톡톡	35,500	20	2020.2.6.	168,900	이단 정보
Dmascus TV	34,300	398	2017.11.28	184,200	기독교 이슈
크리스천 신앙가이드	32,700	103	2019.8.3.	124,400	기독교 정보
심리학하는 교회언니 hepsibah	25,400	107	2018.9.19.	77,000	크리스찬의 사랑, 연애, 결혼

Table 1은 본고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유튜브 채널의 선정 목록이다.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튜버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채널이 운영되는 경우에

4) 2021년 1월 11일 기준.

한하였다. 교회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나 이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목회자 또는 대학 교수 등의 사례는 배제하였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의 성격에 부합하는 형태, 곧 비공식적·사적·수평적·비정형적 소통의 특징에 기반한 채널을 대상으로 논지의 구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영향력과 가치를 판독하기 위해 구독자 수 순으로 사례를 선별하되, 담론장의 활성화 정도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⁵

이렇게 선정된 10개의 채널에서 조회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영상을 다시 추렸다. 이는 수용자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대표성이 가장 높은 텍스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 비기독교적 주제를 다룬 경우와 유튜버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외부의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는 기독교 유튜버들과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수용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100개의 영상을 선정하였고, 형식 및 주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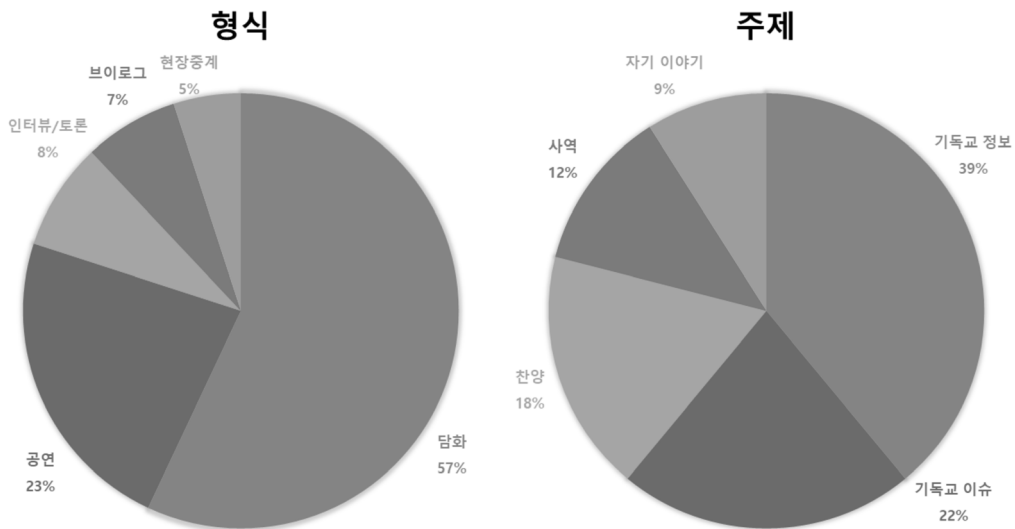


Figure 1. Format and subject of selected videos

5) 이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던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은 다음과 같다. [Church_Sister교회언니], [HeyMary 안녕메리야], [Juntto 준또], [LA교회오빠], [Way home], [YANGYANG PIANO], [교회형아], [기뎌], [길치목사], [네이트 김], [노아네 이야기 Noah's Family], [만나TV MannaTV], [민춘잘롱], [바이블레이션], [본어게인 이희영 Heeyoung Lee], [산나의 하나님 말씀], [서목TV-쉽게 배우는 기독교교육], [선사인 목이 TV], [성래와복음], [소희감성SHGS], [승승스토리], [양치기 소년 SHEPHERD BOY], [오늘의 신학공부], [위쉽드림 콩TV], [에델과바이스_Edel], [이간사], [이들목], [임TV], [잇톡TV], [잼니], [종리스찬TV], [주언이설], [찬만빠], [청년목사 TV], [하나님의 잔소리], [하친 [HACHEEN]], [한세 TV], [헤븐리 정간사]. 유튜브 채널은 플랫폼 특성상 구독자 변동이 잦으며, 새로운 채널의 개설을 즉각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형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사하지 못한 채널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시점의 정보와 논문 발간시점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Figure 1의 경우, 현재 활성화 된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 전부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가 절대값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수용자들이 어떤 성격의 텍스트를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에는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주관적 비평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면, 선정된 10개의 채널 외 기타 채널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채널이 위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영상의 형식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담화형식의 영상이다. 이 형식의 경우 유튜버가 직접 등장하거나 목소리만 출연하며, 본인의 이야기 혹은 주장을 개진한다. 담화형식의 영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인 미디어의 특성상 영상 제작에 관한 분업화 된 체계를 갖추긴 쉽지 않으며, 기술적 노하우가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담화형식일 것이다. 이 형식은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아니라 시의성있는 이슈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좋으며, 유튜버 본인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공연 유형이다. 공연유형에 속하는 절대 다수 영상은 CCM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중에서도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유튜브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스튜디오 혹은 집에서 연주하는 유형과 예배나 집회, 버스킹 현장에서 공연이나 찬양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 있다. 이러한 공연유형의 영상은 담화유형과 함께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주류를 이룬다. 세 번째는 인터뷰/토론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구독자들이 제시한 질문에 답하는 QnA형식을 취하거나, 게스트를 초대하여 대담 및 토론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의 두 유형보다 덜 권위적이고, 수평적 소통의 과정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는 브이로그 형식이다. 브이로그란 자신의 일상을 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브이로그 형식을 활용하는 크리스천 유튜버의 경우 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이나,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 등을 그린다. 비공식적, 비전문적, 비권위적, 비정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스케치 영상들이 많다. 다섯 번째는 현장 중계 유형으로 사역 등의 현장에서 강의, 전도, 교제 등의 모습을 담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선 브이로그 유형과의 차이점은, 브이로그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 중계형 영상의 경우 주목적이 유튜브 영상 제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계의 대상에 따라 활동이 다소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상 5개의 유형이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대표적 내용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다 다루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존재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⁶⁾

주제에 따른 분류 역시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절대 다수의 영상이 기독교 정보 제공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6) 대표적인 예로 [산나의 하나님 말씀] 채널에서는 동화구현의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간사] 채널은 교회음향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시연 등의 형식을 취한 영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다. 다만 정보의 내용에 따라 보편적 화제에서부터 매우 내밀하고 주관적인 화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연애와 결혼, 초신자를 위한 기도 방법, 이단 관련 정보, 신앙 성장을 위한 정보, 신학적 내용 및 교리에 대한 합리적 해설 등을 제공하곤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기독교 관련 이슈를 다루는 영상이다. 이 경우 역시 세부 주제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생활 속 고민에서부터, 교계의 큰 사건을 다루기도 한다. 기독교인의 음주, 대중문화비평,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슈 등이 그 예다. 기독교 정보와 기독교 이슈를 다루는 영상들은 대부분 담화형식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굳이 차이를 말하면, 기독교 정보제공 유형 영상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 보편성에 집중하는 한편, 기독교 이슈를 다루는 영상은 주로 논쟁적인 사건에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음악을 수단으로 하는, 이른 바 찬양유형이다. 대부분의 공연형식 영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미, 은혜에 대한 감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결단 등을 주제로 한 CCM을 들려준다. 네 번째는 사역유형으로, 교회 및 사역 현장에서 유튜버가 자신의 역할(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체로 현장중계 형식이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끝으로 자기 이야기 유형이 있다. 이 유형 속 유튜버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데 집중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거나 간증을 들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다.⁸

이상으로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분석 대상 설명과 형식적·내용적 유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수용자들이 주어진 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100개의 영상에 달린 댓글 및 답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또한 좋아요(공감)의 수치가 높거나 다수의 답글(댓글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보유한 댓글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하나의 댓글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면 해당 텍스트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보편적 수용자들의 담론 층위에서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IV. 수용자들의 참여 양상을 통해 본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기능

1.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신앙적 정체성의 강화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중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우선적으로 유튜버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외 불특정한 수용자와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크리스천

7) 유튜브 영상의 형식 및 주제에 대한 분류는 학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일반 온라인 방송이나 유튜브의 장르에 대한 분류 시도는 존재하였으나, 기독교적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100개 이상의 사례조사를 통해 5개씩의 형식 및 주제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1인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신앙생활의 규범 등을 제시하는 유튜버들의 가치관 및 태도에 호응하거나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담론장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신앙적 지침을 점검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댓글을 통해 자신과 다른 수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유튜버에게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유튜버에게 다음 영상의 주제와 내용을 주문하기도 한다. 또한 공연, 음악 등을 통해 신앙을 강화할 기회를 찾거나 일상 속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때론 전통적인 예배, 또는 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등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선택한 강도, 빈도, 속도로 누리며 불특정한 사람들과 불확정적인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본 연구보다 앞서 1인 미디어에 대하여 연구한 이소희는 ‘상호수동성’의 개념으로 1인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호수동성은 로버트 팔러(Robert Pfaller)가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을 소비하는 행위로 설명된다(이소희, 2018:17). 이소희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미학적 즐거움은 일종의 대리만족에서 오는 것이며, 소비자가 필요한 감정을 직접 소비할 수 없을 경우 타자에게 이를 위임함으로써 해당 감정의 일부라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소비자가 특정한 행위에 연루되어 있던 욕망을 다른 행위에 투자함으로써 본래 목적이었던 행위를 다른 행위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대체제가 된다는 것이다(이소희, 2018:20-21).

이소희의 연구는 비록 게임 방송과 먹방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본 연구에도 유효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단순 유희나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게임방송과 먹방을 소비하는 수용자들의 사례와, 때에 따라 종교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소비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앙인의 정체성에 기반한 여러 행위도 그 저변에 영적 갈망과 욕구⁸ 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콘텐츠 소비 이후 2차적 행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먹방 및 게임방송의 수용자들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① 저는 처음에 이 전도사님보고 아, 이분이 과연 믿음이 있는 분일까. 그저 외모와 전도사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닐까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분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아요 299개) [현이의 일상 Jinun] <교회 전도사가 인스타그램 스타? 유튜버까지?> 2019년 3월 29일자 영상.

8) 하나님이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1)

9) 본 장에서 소개될 댓글들은 댓글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기되, 맞춤법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최소한의 교정을 거쳤다.

② 언니는 진짜 너무 멋진 거 같아요.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너무 멋져요. 제가 어제 교회 수련회에 갔다 와서 우연히 이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구독 눌렀어요ㅠㅠ 저도 나중에 이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좋아요 1천개) [kei is loved]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2018년 7월 3일자 영상.

③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혼전 성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한 거라 말하는 메스미디어의 악행... 정말이지 걱정스러워요. (좋아요 833개) [책읽는사자 채널] <결혼 전, 기독교 커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2019년 4월 10일자 영상.

④ 동성애는 짱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절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내치지 말고 동성애를 껴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1.1천개) [Damascus TV] <분당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사태 총 정리와 나의 생각> 2019년 6월 18일자 영상.

①번 댓글은 최진현 전도사의 QnA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 영상은 자기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터뷰 유형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이 영상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회자가 되려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①번 댓글에서는 지지와 속죄의 태도가 나타난다. 유튜버의 메시지 취지 및 신앙관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며, 세속적인 관점으로 해당 유튜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 바 있음을 고백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관점 및 입장을 재정비한다. ②번 댓글은 기독교인의 음주와 관련한 kei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다. 이 글에서도 공감과 지지의 의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동경심 등이 표출되어 있다. 또한 유튜버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가 엿보인다. ①, ②번 댓글의 경우 유튜버의 태도에 주목하여 신앙적 동기를 부여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③번과 ④번 댓글의 경우 유튜버의 주장에 대한 강한 동의가 나타난다. ③번 댓글이 달린 영상의 주제는 연인과의 스킨십 및 혼전 성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며, ④번 댓글은 동성애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두 댓글은 모두 영상의 내용에 대한 축약 및 보충적 설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공통적 규범 내지는 지침을 선언적으로 제시한다.

이들 담론장이 흥미로운 것은, 교회로부터 피상적으로 배운 지침이나 명확히 교육받지 못한 신앙적 기준 등을 유튜버 및 불특정 다수와 공유·토론하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유튜버는 기독교와 비기독교(반기독교 포함), 교회 문화와 세속 문화, 사회적 이슈와 성경적 원리 등이 교섭하는 장을 만들면서 담론장의 위치, 강도, 성격을 형식화한다. 구독 및 신규 콘텐츠 알림 신청, ‘좋아요’ 표시, 댓글 등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채널의 성격에 따라 향유공동체, 학습공동체, 놀이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형

성한다. 개인적 흥미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결속되는 리즘적 형태의 가상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자들이 이 가상공동체의 귀속 요인을 확대·재생산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다.

⑤ 고3이라는 핑계로 주님을 잊었습니다. 운동한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었습니다. 이제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1.9천개) [kei is loved] <[KEI COVER] J-US - 여호와께 돌아가자> 2019년 6월 25일자 영상.

⑥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어린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모르는 영어가 저절로 나오고 눈물을 흐르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온 것 같이 몸이 찌릿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조셉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 은혜와 감사를 느껴습니다. 조셉.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님 이 찬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좋아요 739개) [봇소핸섭-ButsoHandsUp]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Covered by 조셉 봇소(Joseph Butso)> 2020년 8월 28일자 영상.

⑦ 저는 자살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교회를 7년을 다녔지만 믿음이 오질 않아서 늘 방황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크게 방황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든 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중략) 아직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고난 속에서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욱 더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실 겁니다...(좋아요 514개) [달빛마을TV] <골방라이브> 집니 -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2018년 10월 16일자 영상.

⑤-⑦번 댓글은 음악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유튜버들에게 자신을 이입한 결과물 중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⑤번 댓글이 게시된 영상에서 유튜버 kei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회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CCM을 커버하고 있다. ⑤번 댓글의 작성자는 자신이 현재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한다. 이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번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종교적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유튜버와 같이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한다. ⑦번 댓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간증을 시도한다. 이 역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콘텐츠의 맥락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용자들이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신앙적 정체성의 회복 및 확립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⑥번과 ⑦번 댓글을 비롯한 자기

고백적 댓글에는 보통 십수 개의 답글이 수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판적 반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격려와 위로를 통해 댓글 작성자의 결단을 지지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튜브 콘텐츠 소비는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 환경, 욕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위의 댓글들을 보면,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오프라인 만남 형식의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즉각적으로 충족 받을 수 없는 신앙적 체험과 동기부여가 확인된다. 그들은 유튜버의 신앙적 실천을 함께 수용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정체성 강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2. 문화매개를 통한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 변화

본 연구에 앞서 김정현과 김보영은 디지털 문화매개자로서 1인 미디어를 연구한 바 있다. 그들의 논의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시한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 개념에 바탕을 둔다. 문화매개자는 문화의 생산과 수용과정에 개입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을 시사한다. 그들의 활동은 최근 디지털 영역으로 전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디지털 문화매개자에 대한 이상길의 정의를 1인 미디어 영역에 적용한다. 그 정의에 따르면 문화매개자는 ‘디지털상에서 문화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문화를 번역하거나 변형 및 생산하는 주체’로 활동한다. 김정현과 김보영은 이러한 관점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유튜버들의 문화매개 방식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논점들을 제시하였다(김정현, 김보영, 2018:51-51).

국내의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의 문화와 외국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경우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울타리 밖에 위치한 사람들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루어지는 문화적 번역 작업은 1인 미디어라는 매체적 특성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크다.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채널 운영의 목적에 따라 선교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 수용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질 법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인 미디어라는 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친연성, 접근성 등에 있다. 내용에 대한 선택과 소비 패턴 조절 가능성이 ‘나’에게 있고 소비 과정이 강제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적인 포교의 의도가 배제되거나 희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기대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①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요. 노래가 참 듣기 좋네요. 목소리도 예쁘시고 마음이 편해져요. 찬송가를 찾아 듣게 될 줄이야! 말씀도 재밌게 잘 하셔서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상도 조금 봤어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전도인 것 같아요..ㅎ 평생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화이팅.(기

독교인 아니라면서 너무 호의적으로 써서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무교입니다 ㅋㅋ) (좋아요 380개) [kei is loved] <[Kei cover] J-US - 날 사랑하는 이 + 예수 사랑하심은> 2019년 3월 7일자 영상.

② 무신론자입니다 영상 초반부부터 말도 안돼. 헛소리. 쏘대! 이런 생각으로 눈살 찌푸리며 보다가 후반 갈수록 점점 수긍되고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배우고 갑니다! (좋아요 281개) [책읽는사자 채널] <결혼 전, 기독교 커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2019년 4월 19일자 영상.

③ 강림 전도사님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참 꿈을 펼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 학생들이 바른 정신을 저당 잡혀 시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네요. 자는 애도 다시 보고 대화 많이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해봐야겠어요. 뱀처럼 꼬리를 틀고 있다가 어느 틈에 내 귀한 자녀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깐요. 무섭네요. 저는 불교지만 고3 딸 아이 엄마라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애한테도 영상 보여줄래요. 강림 전도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좋아요 329개) <[신천지 탈퇴자 이야기 2] 신천지에서 혈서를 쓰게 했다구요? 대구 다대오 지파 구역장 출신 형제가 전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2020년 3월 11일자 영상.

④ 2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무교였는데 처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싶어지게 하는 영상이군요. (좋아요 4.7천개) [현이의 일상 Jinun] <전도사의 하루/ 주일 브이로그/ 교회 브이로그> 2019년 4월 17일자 영상.

①번 댓글이 달린 영상에서는 유튜버 kei가 찬양팀 제이어스의 음악을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자신을 ‘무교’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콘텐츠가 좋은 전도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찬송가를 찾아 듣게 된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해당 채널이 기독교 문화와의 접촉점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크리스천 1인 미디어가 CCM을 포함한 기독교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②번 댓글은 유튜버 ‘책 읽는 사자’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다. 기독교인의 스킨십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이 영상에 대해 작성자는 유튜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상을 시청한 후 그의 주장에 수긍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성자에게 작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콘텐츠로 인하여 그것이 일정 부분 상쇄되었음을 보여준다. ③번은 자신이 불교신자임을 밝히고 있는 사용자가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을 시청한 후 작성한 글이다. 해당 영상은 당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교회의 포교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작성자는 관련 정보

의 유용함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할 것임을 밝힌다. 작성자의 언급대로 해당 영상이 가족들에게도 공유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전도사가 유튜브를 통해 한국사회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종교의 신자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번 댓글은 최진헌 전도사의 사역 브이로그에 달린 댓글이며, 압도적인 공감 숫자를 보이고 있다. 댓글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 댓글 내용을 고려할 때, 최진헌 전도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먼저 암시된다. 이 같은 시각적 소비는 kei나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에서도 유사한 반응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 때문에 ④번 댓글의 경우, 진지한 태도가 나타나는 ①-③번에 비하여 다소 팬덤에 가까운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영상의 의도와 가치가 평가 절하될 필요는 없다. 지극히 평범한 전도사의 주일 사역현장이 전달되면서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 친근감을 높이고, 인격적 관계가 이뤄지는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 효과도 주어진다. 이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들 채널의 담론장을 보면, 수용자의 자발적 행위를 통해 특정 콘텐츠가 성격이 매우 다른 SNS에 전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문화 ‘재매개’와 볼특정 대상을 향한 전도 가능성이 어떻게 교용하는가를 성찰하게 한다. 볼터와 그루신 “하나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취해 그것을 다른 미디어에서 재사용하는” 재목적화(repurposing) 방식“(Bolter, Grusin, 1999/2006: 53)을 통해 콘텐츠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능동적 실천력을 가진 댓글 공동체는 문화 매개자이자, 프로슈머로이면서, 미디어 선교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성도 간의 기독교 정보 공유의 장 형성

분석 대상 중에는 기독교에 관한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책읽는사자 채널]은 기독교인의 이성교제 및 개인의 신앙 성장과 관련한 복잡 다단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림의 사이비 톡톡]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크리스천 신앙가이드]는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 및 개인 경건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심리학하는 교회언니 hepsibah]는 기독교인의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들이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나 지인들로부터 습득할 수 없는 신앙적 지식을 좀 더 수월하게 습득하고 싶은 욕구의 존재를 일깨운다.

특히 [강림의 사이비 톡톡]을 운영하는 김강림 전도사와 [심리학하는 교회언니 hepsibah]의 헵시바의 경우 각각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공자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전문성에 기반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집중성을 보여준다. 이들

채널은 크리스천 1인 미디어가 유튜버-수용자 및 수용자-수용자 간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① 책 읽는 거랑 음악이 진짜 효과가 있는거 같아요. 방 치우는 것도 깨끗함의 변화를 느끼기까진 효과가 있고. 저녁에 졸리기 전까지 성경 읽고 찬양 틀어놓으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콘텐츠가 달라지니까 제 경우에는 유혹이 잘 안 오고 와도 뭔가 신기하게 잠깐 생각났다가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아요 95개) [책읽는사자 채널] <야동과 자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2019년 5월 15일자 영상.

② 저는 남친(s)과 결혼을 준비를 할 때에 기도제목 적어 기도한 사람(a)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s랑 결혼준비를 시작했는데 배우자 기도에 완벽히 100% 맞아 떨어지는 a가 나타나다니! 다시 하나님께 여쭙봤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것으로 주시는 걸 믿으니 s와 a중 누가 제 짝인지 응답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결론은 저는 s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s라고 알려 주셨거든요.(중략) 혹여, 별말씀이나 감동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상상도 못 할 최고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고전 2:9).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시작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꿈으로 보여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현실로 보여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 장래의 내 미래도 분명 주님 계획 안에 있구나, 확신해요. 그래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려고요 (좋아요 151개) [심리학하는 교회언니 hepsibah] <배우자기도 1편 | 배우자 기도 얼마나 응답 되었을까? | 배우자기도를 하지 말라니요??> 2019년 6월 14일자 영상.

③ 이 영상때문에 엄마가 성경 공부하시는 곳이 위장교회인걸 알게 됐고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 전화상담도 받았는데 다행히 본인이 가신 곳이 신천지라는 거 바로 깨달으시고 그 위장교회 목사님 들이받고, 빠져 나오셨어요. ㅋ (좋아요 647개) [강림의 사이비 톡톡] <구리이단상담소 김강림전도사 신천지 탈퇴 간증 및 예방강의(순복음원당교회 2019년 3월 24일 예배)> 2020년 2월 26일자 영상.

①번 댓글은 작성자가 해당 영상에서 제공된 경건의 수칙들을 삶에 적용하고 목적을 달성한 내용을 후기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는 수용자들이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목적 중 하나가 신앙적 동기부여가 될 만한 지적 자극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릇의 댓글 참여행위는 유튜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적 텍스트로 기능하지만, 때론 유튜버를 통해 전달된 지식에 관해 다른 습관과 지식, 정서를 가진 이들과 교류하며 담론의 충위를 끊임없이 옮기는 역할도 한다. 정보의 신뢰도를 함께 검증하고, 경험에 기반해 부가 정보를 재생산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②번 댓글은 유튜버 헵시바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기존 교회에서 행해지던 일명 ‘배우자 기도’의 효용성과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번 댓글의 작성자는 유튜브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을 시도한다. 이는 ①번 댓글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주장에 대한 부록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①번 댓글은 수용자와 유튜브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라면, ②번 댓글은 수용자와의 소통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완전한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댓글 공동체’의 역동성을 환기시킨다. ③번 댓글은 김강립 전도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가족이 입을 뻔한 실제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증언이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 연관 정보 공유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수용자는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찾는 최적의 정보들을 규합하면서, 지식을 연결하고 실천적 지침을 확정해 간다. 눈여겨 볼 것은, 오프라인 교회 모임이나 예배, 교제의 장에서는 공여받을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퀄리티 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채널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공적 성격을 띠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채워주지 못한 지적 욕구들의 틈새를 스스로 메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V.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가능성과 활용에 대한 제언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이를 둘러싼 상이한 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유튜브 댓글 게시판 등을 보면, 교회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절충적 대화 공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구적 기술과 신앙적 태도가 만나는 공간은, 보수적 신앙관을 가진 이들이나 기독교(혹은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갈등부터 이야기하자면, 유튜브의 기독교적 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 이를테면 최진현 전도사가 운영하는 [현이의 일상 Jinun]채널은 그의 사역활동 영상 외에도 일상적 외부 활동도 보여준다. 이에 몇몇 수용자들은 그러한 영상들을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시도로 간주하여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하기도 한다. 일부는 교회사역 관련 영상에서도 그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며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러한 비판 중 일부는 목회자 및 기독교인들이 ‘성(聖)’의 영역에 위치한 존재(여야 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대중문화 속 기술적 도구는 ‘속(俗)’의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폄하되는 데서 비롯된다. 최진현 전도사에게 사역자로서의 공적 역할만을 주문하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건, 교계 일각에서도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을 애초에 긍정하지 않으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인의 일상 자체가 일반은총의 영역에 속하며, 공감, 위로, 지적 자극과 영적 각성을 얻는 방식이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건물 중심, 공적 모임 중심, 대면 접촉 중심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편 기독교인-비기독교인 간, 기독교인-기독교인 간 대화의 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주제 범위가 넓지 않고, 비생산적 토론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장에서는 수준 높은 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새롭고 참신한 논점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독교인의 음주 문제([kei is loved]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DamascusTV] <기독교인이 술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 찬양의 형식에 대한 문제([리얼메시지] <성경보다 음악에 중독 된 교회들>), 신의 존재 여부([DamascusTV] <기독교 유투버 VS 하버드, MIT생 | 1부: 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까?>), 예정론에 대한 문제([책읽는사자 채널] <하나님의 뜻 vs 내 뜻!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리얼메시지] <성도들은 잘 모르는 교단에 대한 설명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동성애 이슈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DamascusTV] <분당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사태 총 정리와 나의 생각>) 등은 신학적 배경이 필요한 근본적인 논제에서부터 일상의 지침에 대한 단순한 논제들을 포함한다. 때론 식상하고 생산성있는 결론에 이르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교회와 공적 모임에서 해결 받지 못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덜어낼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담론장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퀄리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익명성의 환경과 비대면 소통이 대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제도 존재한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호존중이 결여된 일부 수용자들의 문제적 태도가 담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여지도 항상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컨버전스의 현상이 유튜브 담론장 밖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아직은 더디다는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이 크리스천 1인 유투버의 등장 및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은 한국 기독교 내부에 문화적 컨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 선택·활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콘텐츠가 유튜브 담론장 밖에서 재생산되거나 2차 콘텐츠로 전환되어 기타 미디어 혹은 수용자들에게 공유되는 사례는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한 주목을 받게 된 기독교 유투브가 지닌 현재적 한계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독교의 컨버전스가 확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SNS등을 통한 사적 차원의 콘텐츠 공유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독교 매체 및 언론의 1인 미디어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의 양적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이 초래한 뉴노멀의 질서는 기독교계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봉원영은 심화되는 개인주의 사회, ‘각자도생’의 시대 속에서 사회 보편의 가치와 대화하며 민주적 시민으로서 역량을 가진 ‘개인’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무가 생겼다고 본다(봉원영, 2020:578-579). 최동규는 디지털 활용 능

력에 기반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강화,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사람 중심의 목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집단 중심의 목회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질적 목회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최동규, 2020: 177-193). 그러한 논의에 공감하면서 성찰하건대, 현대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상한 유튜브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합과 집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공적 공동체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이 자발적인 사적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사적 공동체와 공적 공동체, 현실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 사이에서 멤버십의 강도와 질을 어떻게 조절해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예각적인 장소다. 그 때문에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기획·수용·활용하면서 참여와 감시에 있어서의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소통과 비판의 유연성을 스스로 갖춰가게 하는 권면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 일부는 영적인 노숙자(spiritual homeless)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하이테크, 로테크, 노테크(언플러그드)의 적절한 활용(오현철, 2020: 139) 능력을 기르면서 비대면 가상 공동체의 건강성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크리스천 1인 미디어를 둘러싼 담론장은 그 ‘균형적 절충’이 실험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판단된다. 추후 학문적 배경이 다른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집적해가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VI. 결론

주요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의 수용자 참여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 1인 미디어의 기능은 첫째,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신앙적 정체성의 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간의 문화매개를 통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성도들 간의 기독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튜브를 통한 크리스찬 1인 미디어 공간에 대한 공적·사적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온택트 시대를 건너고 있다는 건, 기업 및 방송국이 누리고 있던 문화권력을 능동적으로 분산·수용한 대중들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제 기성교회와 공신력있는 기독교 기관들이 권위에 기대어 가르치고, 전달하고, 기르고 내보내는 일방적 기능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일반 성도들이 일상의 온오프라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유튜버 조

셉붓소와 kei의 채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셉붓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온누리교회가 설립한 비영리 방송국인 CGNTV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다. 별도의 프로듀서가 투입되고 촬영 및 편집 등의 작업도 CGNTV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힘을 가진 교회와 방송국의 인프라가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kei는 유튜브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인 <미드나잇 가스펠>의 사회자로 발탁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는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공적 소통 창구와 사적 소통 창구 사이의 기능적·기술적 이분법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교회에서의 적극적인 유튜브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현재 한국교회는 나눔과 교제의 장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통로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교육과 예배를 위한 디지털적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유튜브의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밝힌 바 그것이 신앙적 정체성 강화의 수단, 문화매개의 수단,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수행 도중 알게 된 내용 중 하나는, 개별 교회가 유튜브 활용에 매우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 절대 다수의 교회가 예배 실황을 중계하거나 목회자의 설교영상을 공유하는 정도만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방송 및 촬영 장비를 구비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이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영상촬영 및 제작은 가능한 환경이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셀러브리티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닌, 개교회 내 소통과 교제를 위한 차원의 채널 운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본고에서 소개된 유튜버들 역시 높은 수준의 촬영 및 편집 기술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도들 간의 안부 인사, 각 부서의 봉사하는 모습, 목회자의 QT지도 등이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다면 비대면 신앙생활로 인한 결핍을 일정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교 및 개교회에서 콘텐츠 리터러시(Contents literacy) 교육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세대 기독교 리더라면, 뉴미디어 소통 창구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 교회 역시 소통 대상, 목적, 성격에 따라 온라인 창구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을 전 성도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분별의 기준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교회 공동체에서 유튜브 및 디지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평가해줄 수 있는 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 등은 대체적·임시적 성격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건너는 중에도, 바이러스를 이겨낸 이후에도 유튜브 및 1인 미디어의 기독교적 활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뉴노멀 시대’란, 오프라인 대면 문화만을 상정하고 ‘일상에서의 영성 회복’을 외칠 수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R. McNamee (2004)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 USA: Portfolio.
- 강진구 (2020),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신앙과 학문**, 25(4), 5-29.
- [Kang, J. G. (2020),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Faith & Scholarship*, 25(4), 5-29.]
- 곽한주 역. (2017). **텔레비전 문화**, John Fiske (1987). *Television Culture*, 서울: 컬처룩
- [Kwak, H. J. (2017). *Television Culture*, Seoul: Culture Look. Trans. John Fiske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Loutledge.]
- 구성모 (2014),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N세대를 위한 선교 방법. **선교신학**, (37), 11-41.
- [Koo, S. M. (2014), Mission Methods for the Net Generation in Cyberspace. *Theology of Mission*, (37), 11-41.]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 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순환 (2020), 문명 교체기의 촉매(觸媒),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예배와 성찬 모색. **신학과 실천**, (72), 37-60.
- [Kim, S. H. (2020), A Study for Online Worship and the Eucharist under the Covid19. *Theology and Praxis*, (72), 37-60.]
- 김승욱 역. (2002). **미래의 지배**, Stan Davis (2001). *Lessons from the Future: Making Sense of a Blurred World from the World's Leading Futurist*, 서울: 경영정신.
- [Kim, S. W. (2002). *Lessons from the Future..* Seoul: Kyungyung Jungsin. Transe. Stan Davis (2001) *Lessons from the Future: Making Sense of a Blurred World from the World's Leading Futurist*. North Mankato: Caostone.]
- 김정현·김보영 (2018), 디지털 문화매개자로서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6), 50-62.

- [Kim, J. H. and Kim, B. Y. (2018), Personal Media as Cultural Intermediaries, YouTube Channel <Korean Englishm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6), 50-62.]
- 김정희원, 김동식 역. (2008a). **컨버전스 컬처: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Henry Jenkins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서울: 비즈앤비즈.
- [Kim, J. H. W., Kim D. S. (2008a).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Seoul: VizandBiz. Transe. Henry Jenkins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 김진수 (2018), 유튜브 플랫폼의 변천 양상 연구. **한국문화기술**, 13(2), 61-91.
- [Kim, J. S. (2018), A Study on Transition of Youtube Platform. *The Journal of Korea Culture Technology*, 13(2), 61-91.]
- 류은정 (2018),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2), 91-117.
- [Ryu, E. J., (2018), Industrial Revolution & Christian Education - Sunday School Movement -. *Faith & Scholarship*, 23(2), 91-117.]
- 마은희·김남임 (2020), 코로나 시대 웹(web)기반 유아-부모 세대통합 예배 전략과 실제 : 기독교 유아사회정서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197-220.
- [Ma, E. H. and Kim, N. I. (2020), Web-based child-parent integrated worship practice and strategies in COVID 19 era : Focusing on Christian social emotional character developing program for young childre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6), 197-220.]
- 박만준 역. (2016). **대중과 대중문화**, John Fiske (1989). *Reading the Popular*,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Park, M. J. (2016) *Popular and popular culture*, Seoul: Communication Books. Trans. John Fiske (1989). *Reading the Popular*. London: Loutledge.]
- 박진규 (2012), 미디어학(media studies)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 한 개인의 연구여정 사례를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17(3), 181-209.
- [Park, J. K., (2012),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n Media Studies - A Researcher's Personal Journey -, *Faith & Scholarship*, 17(3), 181-209.]

- 봉원영 (2020),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민주적 시민성 재고,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2), 567-581.
- [Bong, W. Y. (2020), A Reconsideration of Christian Democratic Civility in the New Normal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578-579.]
- 손동식 (2020), 코로나19 시대와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45), 33-60.
- [Sohn, D. S. (2020), A Research on Effective Online Preaching in COVID-19.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45), 33-60.]
- 신솔잎 역. (2018). **유튜브 레볼루션**, Robert Kyncl, Maany Peyvan (2017). *Streampunks: YouTube and the Rebels Remaking Media*, 서울: 더 퀘스트.
- [Sin, S. I. (2018), Youtube Revolution, Seoul: The Quest. Trans. Robert Kyncl, Maany Peyvan (2017). *Streampunks: YouTube and the Rebels Remaking Media*, New York: Harper Business.]
- 엄성수 역. (2018). **유튜브 컬처: 유튜브는 왜 항상 이기는가?**, Kevin Allocca (2018). *Videocracy: How YouTube Is Changing the World ... with Double Rainbows, Singing Foxes, and Other Trends We Can't Stop Watching*, 서울: 스타리치북스.
- [Uhm, S. S. (2018). Youtube Culture, Seoul: Star Rich Books. Trans. Kevin Allocca (2018). *Videocracy: How YouTube Is Changing the World ... with Double Rainbows, Singing Foxes, and Other Trends We Can't Stop Watching*,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오현철 (2020),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57, 117-144.
- [Oh, H. C. (2020), The Change of Sermon in the New Normal Era.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57, 117-144.]
- 유재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63), 12-37.
-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2-37.]
- 윤성민 (2020).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 헬무트 쉬비어 (Helmut Schwier)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9), 67-89.
- [Yoon S. M. (2020). Practical Theology-based Methodology for Video Media Worship in Corona19 Crisis -Centering on Helmut Schwier-. *Theology and Praxis*, (69), 67-89.]
- 이소희 (2018), 1인 미디어 시대의 상호수동성. **동아시아문화연구**, (73), 11-27.

- [Lee, S. H. (2018), Interpassivity of Personal Webcasting media epoch,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73), 11-27.]
- 이재현 역. (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Jay David Bolter, Richard Grusin (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ee, J. H. (2006)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Seoul: Communication Books. Trans. Jay David Bolter, Richard Grusin (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The MIT Press.*]
- 이현주 (2018a),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선교전략의 필요성. **복음과 선교**, 41(1), 113-152.
- [Lee, H. J. (2018a), Necessity of New Mission Strate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vangelical Missiology*, 41(1), 113-152.]
- 이현주 (2018b), 인터넷 뉴미디어 선교 상황화에 대한 고찰. **복음과 선교**, 44(4), 107-147.
- [Lee, H. J. (2018b), A Study on Contextualization of Internet New Media Missions. *Evangelical Missiology*, 44(4), 107-147.]
- 임병학 (2014), 유튜브의 설교 동영상 방문횟수에 대한 동영상 네트워크의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12(1), 35-48.
- [Leem, B. H. (2014), An Impact of Pastors' Sermon Video Network on Views on Youtube. *Logos Management Review*, 12(1), 35-48.]
- 임병학 (2019),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유튜브 설교 동영상 리뷰 분석. **로고스경영연구**, 17(4), 67-82.
- [Leem, B. H. (2014), Using Topic Modeling to Analyze Sermon Video Reviews on Youtube. *Logos Management Review*, 17(4), 67-82.]
- 전수희 (2019). 디지털 시대의 선교: 유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선교 플랫폼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 [Jeon S.H. (2019). Mission in the digital age: Research on a new mission platform using YouTube.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Seoul, Korea.]
- 정현진 역. (2008b). **팬, 블로거, 게이머: 참여문화에 대한 탐색**, Henry Jenkins (2006b).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서울: 비드앤비즈.
- [Jung, H. J. (2008b).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Seoul: Vizandbiz. Trans. Henry Jenkins (2006b).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NYU Press.]

정희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유아교육 방향 모색. **성경과 신학**, 95, 147-172.

[Chung, H. J. (2020), Find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Bible and Theology*, 95, 147-172.

최동규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신학**, (52), 171-200.

[Choi, D. K. (2020), Christian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ission and Theology*, (52), 171-200.]

Youtube about 보도자료. <https://www.youtube.com/intl/ko/about/press/> (검색일:2021년 1월 2일).

조선일보 2020. 10. 8일자면 “못말리는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4300만명이 한달 30시간 본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 (검색일: 2021년 1월 2일).

뉴 노멀 시대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의 기능과 가능성 - 국내 크리스천 1인 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Functions and Possibility of Christian YouTube Contents in New Normal Era - Focused on Christian Personal Media Channels in Korea

김태룡 (경희대학교)

안승범 (경희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의 현황과 기능을 파악하고 뉴 노멀 시대 유튜브 플랫폼의 기독교적 가치와 활용을 성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1인 미디어 형식의 채널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능동적 수용자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용자들의 문화참여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독교 유튜브는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신앙적 정체성 강화, 문화매개를 통한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 변화, 성도 간 기독교 정보 공유의 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튜브의 기독교적 활용에 대한 입장 차이, 비생산적 토론의 역효과, 컨버전스 현상의 미확산 등의 한계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 성도들의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기성교회 및 기독교 기관들의 지원, 신학교와 개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된 이후에도 유튜브 및 1인 미디어의 기독교적 활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뉴 노멀, 기독교 유튜브, 크리스천 1인 미디어, 문화 컨버전스, 기독교문화콘텐츠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이아름 (A-Reum Lee)**

이숙경 (Sook-Kyung Yi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xperiences of novice teachers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who are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in the biblical worldview. For this purpose,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multiple sources were collected including various document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are as follows; novice teachers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xperience several difficulties and growth on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s. The difficulties could b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national curriculum and of experiencing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s before coming to the teaching fields, the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the difficulty on how to integrate the biblical worldview when they setting up learning objectives, selecting curriculum contents and organizing learning activities, and the lack of time and environment for developing the curriculum. The growth they experienced could be classified into 2 parts; the professional growth as a Christian teacher, and the growth of personal faith and attitude toward their own life as a Christian.

Key Words: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novice teachers,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biblical curriculum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 2021년 2월 24일 접수, 3월 15일 최종수정, 3월 1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석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leea456@hanmail.net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교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eau49@hanmail.net

I. 서론

전통적으로 교사는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어 제시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데 주력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교의 상황, 지역 사회의 상황, 학생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때문에 일반적 수준으로 개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의 특수성이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역·학교·교사 수준에서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강조되어 왔다(박은경, 2018).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강조되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전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나가는 적극적 역할로 탈바꿈 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 연구 분야의 흐름 안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들에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의 철학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성경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재구성 사례에 대한 연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경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재구성 사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실제 단원을 성경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재구성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의도와 학생들의 배움이 드러나고, 이 중 학생들의 배움과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개인이 단원 개발 및 재구성 과정에서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마주하게 되고, 이후 다른 교과 및 단원에서 재구성에 대한 경험을 또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교육과정의 성경적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는 주로 기독교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이정미, 2008; 이해지, 2011).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와 관련한 연구들은 교사 개인의 재구성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미하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대안학교 현장으로 온 교사들의 배경이 기독교사립초등학교에 비해 다양하고,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권이 더 많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사의 재구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 안에서 초임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고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이지혜, 2009; 박정순, 2010; 유일한, 2018; 남가현, 2018), 초임교사들의 직무 능력 관련 연구(이은진, 2008; 박혜민, 2009; 박주희, 2016), 초임교사들의 수업과 관련한 연구(김기철, 2002; 이정아, 2009; 서지원,

2016)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양적, 질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맥락 안에서 대안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경험하는 초임교사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성경적 재구성에 대한 경험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 둘째,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통해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가?

본 연구에서 재구성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중 ‘어려움’과 ‘성장’ 두 가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한 이유는 초임교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김갑성(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임·적응기 교원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업무분장, 학생 및 학부모 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조직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또한 교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꿈을 실천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들은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교사라는 소명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시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 또한 기독교대안학교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고, 특히 교과지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곧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어려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총론 해설서, 교과서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 교육 사조에 기초한 신념들이 깔려 있어 성경적 세계관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기독교교육학자, 기독교사들은 일반논총의 관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을 구분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재춘(2010)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등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기독교인 학자들 간에도 조금

씩 이견이 있다고 보았다. 즉, 기독교 학자나 교육을 연구하는 기독교 연구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이나 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거나 학문,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과정 등과 관련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재해석해낼 것인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선요(2014)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적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제 기독교학교 내에서도 큰 틀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동일하게 공유하지만 실제적인 학교의 교육 목표,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다양한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성경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모형들을 연구해 왔다(Albert Greene, 1998; Harro Van Brummelen, 2002; Overman C.&Johnson D., 2003). 실제적인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세계관 통합을 다루는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대표적인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4가지를 살펴본다.

2.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Hay(1999)는 교육 내용의 개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학습과정에서 이 개념들이 학습자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이정미, 2010). 교육과정 재구성 및 개발은 총 11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를 구조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Hay (Hay, 1999)

Hay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교과목에 대한 성경적 원리 또는 기본 신조 작성하기
2단계	교과 전체적 교육내용의 목차 또는 단원제목 요약 정리하기
3단계	한 대단원을 선택하고 단원의 소주제들 정리하기
4단계	한 단원을 선택하고 그 단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주제 진술하기
5단계	한 단원에서 학습될 핵심 기본 개념들을 규명하기
6단계	5단계의 개념 및 원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7단계	단원주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실재적 삶의 문제(필요)들 규명하기
8단계	단원 학습목표를 진술하되 학습한 바를 적용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여 진술하기
9단계	평가하기
10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기
11단계	단원계획 평가하기

Greene(1998)은 교육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과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위한 수업 모형을 디자인하였다. 그

는 다양한 교과와 내용들을 통합하고 집단 학습의 장을 통해 상호 협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것이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고(Albert Greene, 2000), 이를 위해 ‘알타비스타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Greene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기독교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과는 다르다(김윤권, 2008: 110). 그는 수업 모형의 기본 구조를 ‘기본 4단계’로 제시하는데, 그 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2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Greene (Greene, 1998)

Greene의 수업 모형의 기본 구조	
1단계 도입(Introduce)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2단계 제시(Present)	수업의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확하게 전달
3단계 실행(Practice)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조작 등을 통해 실행하여 그 주제와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4단계 반응(Respond)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기

Van Brummelen(2002)은 성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른 기독교적 수업 모형이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와 특성들에 집중되거나 가르치는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강조했다면, 브루멜렌의 수업 모형은 단위 수업계획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교실 수업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전체의 의미를 더 띄고 있다(김윤권, 2008).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인 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정미, 2010). Van Brummelen의 단위 개발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3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Brummelen (Brummelen, 2002)

Brummelen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 정하기
2단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기
3단계	단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4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고 선택하기
5단계	국가교육과정 기준(목표)를 통합시키기
6단계	계획된 학습활동의 일정표 계획하기
7단계	학습 자료들 선택하기
8단계	학습평가 계획하기
9단계	단원의 효과 제고하기

Overman과 Johnson(2003)은 성경의 진리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학습 지식과 개념에 잘 연결되는데 초점을 두어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과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은 혼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실제 교실 수업에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BWI 계획라는 모형을 만들었다. 아래 표는 Overman과 Johnson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이다.

Table 4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by Overman&Johnson (Overman&Johnson, 2003)

Overman&Johnson의 교육과정 개발절차	
1단계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고 개발자와 적용 대상의 정보 적기
2단계	단원제목과 목표 진술하기
3단계	학습활동 계획하기
4단계	단원학습 내용이 성경적 세계관 요소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규명하기
5단계	단원에 통합되어야 할 구체적인 성경적 진리 명료화하기
6단계	성경적 세계관 통합을 위한 목표 진술하기
7단계	성경적 세계관의 통합을 위한 학습활동 계획하기
8단계	수업 후의 의견 쓰기

3.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

앞서 소개한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다룬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교육부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을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 등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으로 구체화시켜 실제로 계획, 실행, 평가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정미, 2008: 47-49). 그동안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박현주, 1996; 백승수, 1999; 김혁수, 2000; 김평국, 2004; 서경혜, 2009; 허영주, 2011; 김현규, 2015; 제성준, 2015; 고흥석, 2020).

최근에는 더 나아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신의 철학과 신

념을 녹여내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교사 수준 교육과정’ 혹은 ‘교사 교육과정’이라 부르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미향, 2015; 강현석 외, 2017; 추광재 외, 2018; 권민희 외, 2019: 1-26.; 박수원 외, 2020; 교사교육과정연구회, 2020). 정미향(2015)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수업에 초점을 두고 ‘주어진 국가교육과정으로 스스로 수업을 만들거나, 교과서를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재해석, 재구성하여 교과서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교육과정 읽기, 목표 및 중점 과제 수립, 성취기준 선정, 연간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 설계, 수업 실천, 성찰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교육과정에는 교사의 철학과 신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교사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 자체가 곧 교육과정이다.’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하게 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철학과 세계관을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교사의 역량 수준에 따라 기독교대안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개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수준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질 때, 교사는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교사는 ‘설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녹여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에 한 학년·학급 운영을 위해 연간 교수·학습계획, 연간 시수표, 평가 계획, 단원 수업계획 등을 하게 되고, 이후 수시로 수정을 해나가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육과정 문해력,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대한 이해 등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성경 지식, 학문 개념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역량 등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역량이 부족할 경우,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교사가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재구성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기 어렵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과 성경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연결되는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세계관에 기반하여 계획한 교육과정을 학급에서 실제로 전개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단원 내(간)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주제 중심 재구성 등 구체적인 수업의 형태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계획한 수업을 교실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실행력,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며 그 다음 수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려는 반성적 성찰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 교사가 계획한 수업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수업은 문서화된 계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실행한 수업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배움 사이에 괴리가 일어난 수업이 반복적으로 답습될 수 있는 한계가 생긴다.

셋째, 교사는 ‘생성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계획하여 실천한 교육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돌아보며,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학문 개념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여부,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그리고 점검과 성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록에 남겨 그 다음 교육과정 재구성을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의도한 교육목표가 학생 수준 교육과정에서 드러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물을 남겨 놓고,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교사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할 때 가지게 되는 역할과 갖춰야 할 역량,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교사 개인의 영성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에 둔 확고한 교육철학이다. 성경적 교육과정이 일반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교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역사가 교육과정에 녹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이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실행, 생성하는 교사 개개인의 영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초임교사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 개인의 사고 과정과 이전까지의 경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는 질적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면접, 각종 문서 등을 고루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면 질문지, 교육과정 재구성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동기, 의도, 경험 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과 연구 참여자의 생각의 흐름을 듣기 위하여 심층 면담법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5 research procedure

과정	시기	내용
면담 질문 개발 및 수정	7-8월	기독교대안학교에 오게 된 배경,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인식 및 경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중 겪은 어려움 및 성장과 관련된 면담 질문 개발
D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8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C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25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B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9월 26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A교사와의 대면면담 진행	11월 21일	심층 면담 녹음, 면담 전사본
1차 추가 서면 면담 및 자료 수집	10월 6일 -10월 31일	수업 성찰 일기, 재구성 관련 계획안, 주간학습안내물 등 자료 수집
2차 추가 서면 면담 및 자료 수집	11월 1일 -12월 15일	이메일, 전화, 메신저를 이용한 추가 질문, 관련 자료 수집

2. 연구 참여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고 있는 초임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인가 여부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제약 없이 재구성할 수 있는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 소속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근무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 목표의 특성이다. 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재구성의 방법과 요구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국가에서 개발하는 교과서를 활용하되,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적 재구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들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셋째, 속한 학교급 및 직위이다. 초등학교급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범교과를 다루는 데 반해 중등학교급에서는 개별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다룬다. 이 때문에 재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급 기독교대안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교육 경력 연수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실천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것이기에 대안학교에서 근무한 연수만을 세어 0-5년차인 교사를 초임교사로 정의하여 선정하였다. 단, 이전에 경험했던 교육 경력은 성경적 재구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면담 질문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담당 학년이다. 초등학교급 안에서도 학년군에 따라 재구성 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누어 골고루 선정하려고 하였다. 여섯째, 다양

한 연령대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교사들은 공교육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직업적 배경에 있다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대, 30대, 40대 연구 참여자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 참여자 3명은 동일한 학교, 1명은 상이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6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이름	연령	대안학교 교육 경력	담당 학년	성별
A교사	20대 후반	5년	6학년	여
B교사	20대 후반	2년	5학년	남
C교사	40대 초반	3년	4학년	여
D교사	30대 초반	1년	1학년	여

3.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선택한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문서자료 수집이다. 각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자료와 함께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간수업계획, 수업성찰일기, 수업지도안, 재구성 교육과정 양식 등의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후 면담 내용과 연계하여 추가로 수집이 필요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추가 수집하였다. 미리 연구 참여자에게는 해당 자료들은 본 연구만을 위해 활용되고, 연구 이후에는 폐기할 것을 알렸다.

자료 분석은 Creswell(2009)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절차 6단계에 따라 심층면담, 수집한 각종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단상 등을 메모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1차 주제어로 표기하여 유목화한 후, 전사 자료를 다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읽어 핵심 의미가 비슷한 주제어들을 다시 묶어 2차로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재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4가지 범주, ‘재구성 과정을 통해 경험한 성장’에 해당하는 2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정리한 범주들을 연구 결과의 각 영역별 제목으로 정하고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간 재구성 사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성장에 대하여 각각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재구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교육, 초등교육, 국어교육 등 전공이 달랐고, 전공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재구성 경험 여부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급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초임교사가 대상이었기에 초등교육을 전공한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할 때 보다 수월하다고 느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 수준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있으나 초등학교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와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재구성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교급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가 낮을수록 재구성 과정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전 면담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다음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오기 전 공립 고등학교에서 국어과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C교사와 학부 시절 초등학교급 교육과정을 배웠던 경험이 재구성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B교사의 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과목만 가르치는 거니까 그 과목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그냥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중략) 초등에 오면서 교과 자체도 많아지고 대상도 너무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공립에서 했던 이 경험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교육과정 재구성 시 교대에서 4년간 배운 초등교육 전공지식 및 임용고시 준비를 통해 배웠던 교육학 및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지식들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재구성을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대학교 과정과 시험 준비를 통해 미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B교사, 1차 대면면담)

또한, 실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본 경험이 적을수록 재구성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이 갖고 있어서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협의하여 다양하게 재구성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도나 예시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A교사의 예다.

사실 (가르치기 시작한 곳) 여기(기독교대안학교)가 처음이라 재구성이 막막했어요. (중략) 근데 공립이 아닌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재구성이 필수인 것 같기는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죠. 처음엔 그런 게 별로 없고... 제가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전공에 따라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교사마다 다르다.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실제 재구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편차가 크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가르칠 내용, 학습자의 수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성경적 재구성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개념 이해에 대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비교하여 각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교과와 수업 차시에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질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다음은 A교사와 C교사의 예다.

모든 교과마다 다 그런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성경적 교육과정이 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걸 정의내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중략) 기독교적인 가치를 의도해서 넣지 않고도 기독교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A교사, 1차 대면면담)

가르치려는 개념은 같은데, 그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주제별로, 의미별로 재구성 한다면... 저는 그게 안 해봐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는 학문) 개념들이 제대로 가르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아니라 너무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C교사, 1차 대면면담)

(3)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 대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해 이정미(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목표 설정에서 겪은 어려움’, ‘학습내용 선정에서 겪은 어려움’, ‘학습활동 구성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논의할 어려움은 ‘학습목표 설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다.

첫째,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향과 방법이 맞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경적으로 재구성한 목표는 국정 교과서나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더하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혼자 하게 되면 국정 교과서나 지도서와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문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교사 스스로 확신 있게 목표를 세워 단위 및 차시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이는 동일한 학습 개념이라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이 다르면 목표 설정도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임교사로서 자신의 해석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혹 편협하거나 오류가 있는 배움으로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예다.

지도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해당 학년 수준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고 어디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혼자 판단해야 하며 이 내용들이 다음 학년에 어디까지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교사, 2차 서면면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 교사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가르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둘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학습목표를 재설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요인으로 ‘검정고시’가 언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학습목표는 그대로 두고 목표와 관련된 학습방법 및 자료를 성경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외부 요인이 교사의 학습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상 학습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으면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교사의 재구성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대면 면담, 2,3차 추가 서면 면담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의 수업성찰 일기를 살펴보면 새로운 성경적 목표를 추가한 재구성 수업보다 기존 성취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성경적 가치를 담은 활동과 자료 선정에 초점을 둔 수업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B교

사의 예다.

저는 기독교적 재구성 시에도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는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특히 6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야 초등학교 졸업 인정이 되는데 그 시험의 범위와 수준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학습목표를 크게 건드리는 재구성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학습목표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의 활동이나 수업 자료 등에 성경적 내용을 가미하여 재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B교사, 2차 서면면담)

두 번째로 논의할 부분은 ‘학습내용 선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단원을 개발하기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들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된 학습내용이나 자료로 대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초임교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단원을 개발하는 것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즉, 수업 시수 등 외부 환경의 제약, 개발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1-2차시 분량의 수업을 재구성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났다.

첫째, 세계관의 관점에서 학습개념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가능하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경구절과 예화를 연결 지으려고 할 때 충분한 배경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교사 수준에서 재구성을 할 때 성경적 배경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충분한 보충 자료가 부족하고 교사 개인의 성경 배경 지식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어려움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A교사의 예다.

6학년 2학기 과학과 ‘신체’ 단원에서 (중략) ‘우리 몸에서 제일 센 근육이 심장이고, 심장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뛰고 있다. 이런 점도 평소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중략)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성경구절이나 예화를 성경에서 가져오고 싶다 해도 구체적인 말씀 구절과 그 말씀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A교사, 1차 대면면담)

둘째, 학습자의 반응에 의해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 사고 수준, 영적 성숙도 등 학습자의 다양한 요인들이 학습내용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과정에 추가로 선정한 학습내용이 학생들에게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져 의도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재구성의 주체인 교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반응이 교사의 재구성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재구성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C교사의 예다. C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추가 서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에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4학년 과학과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창조론과 관련된 창조박물관과 진화론 관련된 지질박물관을 가서 아이들하고 두 관점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해야지 했는데요.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창조론을 너무 맹신하는... (중략) 어릴수록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략)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해버리게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C교사, 1차 대면면담)

셋째,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영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성경적 관점에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추가할 때, 학습자가 학습 개념 및 관련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성장을 이룬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내용 선정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영적 수준이 교사의 재구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D교사의 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 신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르쳐도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은 아직은 분별하는 힘이 없으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세 번째로 논의할 부분은 ‘학습 활동 구성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학습활동 구성 시 기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학습활동이나 자료들을 ‘걸러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다음은 A교사의 예다.

예를 들어,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많이들 하는 ‘마리오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폭탄 게임이요. 그런 걸 보통은 모둠별 게임으로 해서 모둠별로 경쟁구도가 되고 점수를 뺏고 하는데, (중략) 이런 게 경쟁구도를 통해서 잃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방법을 좀 수정해요. 활동의 구도 자체를 모둠전이 아닌 단체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초등교사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는 스토리텔링 자료 중에 영화 일부를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자료

를 만드는데, 영화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제외하고 ‘업’이나 ‘라따뚜이’ 같은 자료들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있는 자료들 중 학습활동을 골라서 정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학습활동 구성에 있어 성경적 가치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관점을 강의로 제시하는 방법’과 ‘학습 개념과 관련한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이정미, 2008)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방법으로 활동을 구성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강의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주입하는 형식의 가르침이 이뤄져서 적극적인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학습개념을 강의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부자연스럽게 느껴 내면화하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활동 선정의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고민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깨달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성경적 학습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철학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A교사의 예다.

6학년 국어과 ‘글에 있는 생각과 비교해요’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중략)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애들끼리 생각도 좀 나눠보고 그 와중에 내가 마무리로 했던 말이 학생들 안에서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했죠. 애들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촘촘하게 계획하지 못한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둘째, ‘학습 개념과 관련한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할 때에는 핵심 개념과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 사이의 기독교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가르쳐야 할 학습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뽑은 가치와 이를 성경적 관점으로 재조명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학습활동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음은 B교사의 예다. B교사의 이러한 연구 과정은 사전 면담지, 대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5학년 2학기 사회 역사부분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나오는 계속 제시되는 불교 유적에 대해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중략) 수많은 불교유적들(예-팔만대장경)이 종교적인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만든 유적임을 강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강조하며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애국심과 기독교적 가치를 결합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독교 대장경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B교사, 사전 질문지)

(4) 재구성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에 따른 어려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온 초임교사들은 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그 역할들 안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은 단순히 가르칠 내용과 방법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적 개념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사고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협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그런 시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래 연구 참여자들의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확보의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질문지, 대면 면담, 수업 성찰 일지에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시간에 구애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깐 같이 충분히 고민할 걸 제안하기도 쉽지 않고요. (중략) 혼자 생각해서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혼자 설교하게 되요. 그런데 (중략)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학교 행사 같은) 원가가 많기도 하고... (A교사, 1차 대면면담)

같이 연구하는 것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따로 만날 약속도 잡아야 되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구상할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일과는 뻑뻑하고... (B교사, 1차 대면면담)

학교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서 수업 준비를 위한 연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동학년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이 조금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기독교대안학교마다 일과와 연간 학교행사 개수가 각기 달라서 위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에 온 초임교사들이 학급운영, 상담, 학교 행사 등 바쁜 학교 일과 안에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검정고시라는 학력 인증 평가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담감이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대부분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다. 다음 학교급에 올라갈 수 있는 학력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학력평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강조하는 정도가 달라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고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필평가 점수로 학업성취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검정고시의 특성상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공식적인 학력 인정 시험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권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다음은 B교사의 예다.

국가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단위로 시행해버리는 평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완전한 재구성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검정고시가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인가를 받고 졸업만 해도 애들이 학력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교사, 1차 대면면담)

세 번째 요인은 함께 연구하는 교사와의 조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 모두 재구성 과정 중 세계관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대신 큰 세계관적 해석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 재구성 과정 중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면담 인용문이다. C교사와 D교사의 이러한 고민은 1차 대면면담, 2차 추가 서면 면담, 수업 성찰 일기에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거의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개인의 스타일, 성격이 달라서 교과 재구성에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다른 선생님의 경우 주어진 계획을 꼼꼼히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더 많았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확히 있고, 다들 그것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나 철학이) 그렇게 다

르진 않아요. (중략)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이니까 가능하면 좀 더 아이들을 풀어주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게 1학년의 목표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옆반 선생님은 학교 생활, 규칙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D교사, 1차 대면면담)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재구성한 활동을 준비할 때, 학급 고유의 활동으로 할 것인지, 학년 전체 활동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C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1차 대면면담, 2차 추가 서면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음 C교사의 예다.

지금 아침에 기독교 고전 읽어주기 하는데 (중략) 사실 저희 반만 읽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반 눈치가 보이는 면도 있어요. (중략) 이런 예를 하나 봤을 때도 내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걸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같이 가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맞춰가고 설득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2.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장

(1)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재구성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첫째, 기독교사의 성격 중 ‘기독교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내리고 그 개념을 점차 명료화하고 있었다. 즉, 재구성 과정을 통해 기독교사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더 확고하게 세우게 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며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재구성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교사가 교육과정 그 자체’라는 명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의 성경적 세계관이 지식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확신을 갖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이 일련의 사고 과정 전체가 성경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A교사와 B교사의 예이다.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 건 ‘이 단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까?’ 하는 걸 고민할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게 될 때요. (중략) 그런데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좀 더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배우는 모든 게 다 사

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A교사, 1차 대면면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느끼는 점은 교사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과서나 책에 존재하는 단지 글로 이뤄진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사라는 인격체를 통해 실제로 구현되고 언제든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교사를 통해 구현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인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B교사, 사전질문지)

둘째, 기독교사의 성격 중 ‘교사’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한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교내 재구성 관련 연수, 동료 교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업의 정체성 등 철학적인 면부터 성경적 수업기술, 수업방법, 발문 등 수업과 관련한 실제적인 면까지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성경적 수업으로 실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고민과 실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교육과정 문해력, 자신만의 교육과정 철학을 세우고 구체적인 차시 및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교사교육과정 구성 역량, 단원의 핵심 가치를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수업으로 실행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실행 및 성찰 능력, 교육과정 재구성을 꾸준히 시도하고자 하는 인내 등이다. 이는 자칫 한 차시 한 차시 개별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는 초임교사의 관점을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과업을 통해 한 단원, 한 학기 수업 전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은 C교사의 면담 인용문이다.

수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니까 수업기술 성장한 것 같고 (중략) ‘내 수업은 뭘까?’ 하는 수업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할 때는 한 차시만 재구성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전체를 보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원, 한 학기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게 성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과정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성경적 가치를) 가르칠 때 그걸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우연히 스며드는 것처럼 된다면 이후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수업을 재구성하거나 활동을 계획했을 때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교사 스스로가 결국 나중에 그걸 의도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이러한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이 교사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있었고, 교사 효능감의 향상은 곧 전문성을 더 계발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재구성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과정 자체가 이론적 지식보다 더 도움이 되었고, 이 실천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키워가고자 하는 동기와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C교사와 D교사의 예이다.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수업할 때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C교사, 2차 서면면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이걸 해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수업 작은 것도 하나 안 해보면 그보다 더 어떤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작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좋은 수업으로, 좀 더 심오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C교사, 1차 대면면담)

저는 오히려 학교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구요. 석사 논문에서 ‘교육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썼던 그 부분을 교실 상황에서 막상 녹여내려니까 막연한 거예요.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와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짜보는 것이 저한테 (교육철학과 현장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D교사, 1차 대면면담)

(2)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 성장

연구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훈련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수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터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었다. 다음은 A교사와 C교사의 예이다.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은 나 혼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붙여주시는 사람이나 순간순간 드는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확신이 들어서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A교사, 1차 대면면담)

저 스스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아니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과수업과 통합하기 위해 성경을 더 연구하는 자세도 갖게 되었죠. (C교

사, 3차 서면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살아있는 신앙과 소명의식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를 스스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한층 성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B교사와 D교사의 예이다. 특히 B교사는 수업성찰일기에서 재구성한 수업을 통해

직장에 있는 시간 내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중략) 이런 모든 게 개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부분인 것 같아요. (중략) 애들한테 이 (성경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저도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여기 와서 제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B교사, 1차 대면면담)

교육과정 내용도 제가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개념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D교사, 2차 서면면담)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라는 소명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려는 기독교대안학교 현장 속 기독교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네 명의 초임교사들은 재구성 과정에서 크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전의 재구성 경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이해, 재구성 방법,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과 환경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전의 재구성 경험이 부족하여 생기는 어려움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오는 교사들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교사들은 공교육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전공, 삶의 배경, 교사라는 직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 등이 다양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속한 초등학교급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온 교사들보다 중등교원자격증을 지닌 교사,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온 교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초등교육에서 실천하는 재구성 실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대안학교 현장에서 처음 접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독교대안학교에 오는 예비교사들에게 해당 학교급에 맞는 교육과정 연수, 기초적인 재구성 원리 및 실습 훈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재구성 방법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앞서 김재준(2010), 김선요(2014)가 논의한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과정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 나오기 전, 혹은 초임교사 기간에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토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 및 환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기독교대안학교의 현실적 상황과 연결된 부분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의 교육철학, 교사의 철학,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교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과정이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는 학교의 명확한 세계관과 철학,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맞춰가기 위해 동학년 교사들 혹은 학교 전체 교사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학교 행사 등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적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교사 간 협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성경적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 및 준비를 위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또한,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 미인정, 재정 지원이 없어 불안정한 재정 상황 등 제도적인 환경이 초임교사들로 하여금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안학교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향후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실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안학교에 근무하는 네 명의 초임교사들은 ‘기독교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개인의 신앙

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통해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왜냐하면 교사가 처음 교직 현장에 와서 갖게 되는 교육철학,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교수 스타일 등이 향후 어떤 교사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선인데, 이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조직 안에서 수많은 과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익혀나가야 하는 초임교사들에게 성경 연구와 교육과정 연구를 똑같은 비중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임을 인지하고 한 쪽으로 연구 시간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가르침이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한 교사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철학과 신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존재와 삶이 학생들에게 가르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생성자로서의 교사가 학생들의 배움과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게 되어 가르침에 있어 역량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되면서 학생, 교사 모두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사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사 개인의 신앙, 인격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교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성장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는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재구성 관련 멘토링 혹은 개별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사 연수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이 모여 학년별,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저경력 교사들이 고경력 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러나 때때로 초임교사와 고경력 교사 사이에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개념 이해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거나 초임교사가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경우, 학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교사 연수만으로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구성 실천 경험이 많은 선임교사나 수석교사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해 교사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실천을 돕기 위하여 '수업나눔 공동체'를 학교 문화로 정착

시킬 것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교사 수준 교육과정은 교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읽기, 연간 교수·학습 계획, 수업 실천, 성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 실천한 수업을 교사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김효수 외, 2018), 초임교사라면 더더욱 이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업나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재구성을 실천한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나누고 성찰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안에 정착된다면, 함께 참여하는 초임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임교사들의 재구성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별 핵심 개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 자료들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급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지도서와 같이 해당 학년, 해당 교과를 재구성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안내 자료들이다. 따라서 신학자, 기독교교육학자, 기독교사 등이 함께 모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개념들을 ‘학년별, 교과별, 단위별’로 정리하여, 이를 성경적 관점에서 서술한 주제진술문이 정리된 도서 형태로 제작되길 제안한다.

넷째, 예비 기독교 교사들과 초임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구성 예시와 타 학교의 재구성 사례들을 접하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을 더 넓고 깊은 단계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이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접하고 배워서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재교육의 통로가 다양하게 생기길 기대한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연합하여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거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자료 공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홍석 (2020). **듀이의 심미적 경험이 교사 수준 교육과정 논의에 주는 시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Ko, H. S. (2020). *Implications of John Dewey's Aesthetic Experience on the Discussion of Teacher-Level Curriculum*.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교사교육과정연구회 (2020). **교사교육과정: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서울: 기억.
- [Teacher Curriculum Research Group (2020). *Teacher Curriculum: Teacher as Curriculum Maker*. Seoul: Giyeok.]
- 권민희 외 (2019). 초등교사의 수업 만들기 경험에 대한 자서전적 탐구. **초등교육학연구**, 26(1), 1-26.
- [Kwon, M. H. (2019). An Autobiographical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 of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26(1), 1-26.]
- 김갑성 (2014). **교원의 교직경력개발 고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Kim, G. S.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s' teaching career.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기철 (2002).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지식 형성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Kim, K. C. (2002). *An analysis of the dynamic process that influence on subject expertise in physical education of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김명자 (2015).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im, M. J. (2012). *The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Teacher Training in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김선요 (2014). **현대 교육의 이해: 성경적 비판과 해석**. 서울: 교육과학사.
- [Kim, S. Y. (2014). *The understanding of modern education: biblic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Seoul: Kyoyookbook.]

- 김성훈 역 (2007). **진리와 하나된 교육**. Overman, C. & Johnson, D.(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Kim, S. H. (2007).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Seoul: Yeyoung-communication. Trans. Overman, C. & Johnson, D.(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 Washington:The Biblical Worldview Institute]
- 김윤권 (2008). **개혁주의 기독교 수업 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Kim, Y. K. (2008). *A Study on the Reformed Christian Instruc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 김재춘. (2010).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정책.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저).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pp. 227-254). 서울: 교육과학사.
- [Kim, J. C. (2010). Curriculum, Textbook, Assessment policy. In CSERC. (Eds.).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school education* (pp. 227-254). Seoul: Kyoyookbook..]
- 김평국 (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22(2), 135-161.
- [Kim, P. G. (2004). How Are Elementary Teachers Reorganizing Contents of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2), 135-161.]
- 김혁수 (2000). **초등 교사의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Kim, H. S. (2000). Elementary Teacher's Reconstruction and Practice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김현규 (2015). 국가교육과정 문서 안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용어의 의미 연역. **통합교육과정연구**, 9(2). 54-82.
- [Kim, H. K. (2015). A Semantic Analysis of the Curriculum Jaegusung.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2), 54-82.]
- 김효수 외 (2018).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수업나눔**. 서울: 좋은교사.
- [Kim, H. S. et al. (2018). Lesson-Sharing; building a teacher and teacher-community. Seoul: Goodteacher.]

- 남가현 (2018).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Nam, K. H. (2018). A narr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adaptation of beginning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박수원 외 (2020). **교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서울: 테크빌교육.
- [Park, S. W. (2020). **Teachers' Curriculum**. Seoul: Tekville.]
- 박은경 (2018). **듀이의 경험 이론이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에 주는 시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Park, E. K. (2018). *Implications of John Dewey's Theory of Experience on the Discussions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박정순(2010).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Park, J. S. (2010). *A narrative inquiry into new teachers' experience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in 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박주희 (2016).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멘토링 효과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Park, J. H. (2016).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Master Teachers' Mentoring and their Job Satisfaction-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박현주 (1996). 열린 과학 교육평가를 위한 소고. **열린교육연구**, 4(2), 45-52.
- [Park, H. J. (1996). Advice for open science education evalu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2), 45-52.]
- 박혜민 (200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직무에 대한 교감의 관여한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Park, H. M.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imit of the Supervision by a vice-principal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백승수 (1999). **교육과정 지각,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방법 적용간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Baek, S. S. (1999). *The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rriculum Awareness and Reorganization to Their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nam, Korea.]
- 서경혜 (2009).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과정연구**, 27(3), 159-189.
- [Seo, K. H. (2009). Teachers' Experience of Reconstructing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3), 159-189.]
- 서지원(2016). **교육대학의 양성과정이 초임 초등교사의 과학수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Seo, J. W. (2016). *Influence of University Curriculums on a Novice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유일한 (2018). **한 소규모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사회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Yu, I. H. (2018). *An Autoethnography on the Socialization of a Novice Teacher in a Small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buk, Korea.]
- 이부영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Van Brummelen, H.(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서울: IVP.
- [Lee, B. Y.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Seoul: IVP. Trans. Van Brummelen, H.(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Colorado Springs: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 이은진 (2008). **초등 초임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E. J. (2008). *Need Assessment for In-service Training Programme for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Initial Teachers' Performanc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정아 (2009). **초등학교 초임 교사가 수업 시 겪는 어려움과 대처 방식에 관한 면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A. (2009). *An Interview Study on New Teachers' Difficulties with Teaching and Ways of Dealing with Them*.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정미 (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J. M. (2008). *A Case study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toward Christian world view in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지혜 (200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Lee, J. H. (2009). *A Study on the Professional Adaptation of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nam, Korea.]
- 이해지 (2011). **기독교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H. J. (2011). *A case study on teachers' experience of reconstructing curriculum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미향 (2015).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기술. **통합교육과정연구**, 9(1), 43-68.
- [Jeong, M. H. (2015). The Practice of the Same Grade Level Teachers'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1), 43-68.]
- 추광재 외 (2018). **교사, 교육과정 중심에 서다**. 서울: 피와이메이트.
- [Chu, K. J. et al. (2018). *Teacher, standing in the center of curriculum*. Seoul: PYmate.]
- 허영주(2011). 교사 상상력의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9(1), 137-163.
- [Hur, Y. J. (2011). Importance of teacher's imagination in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1), 137-163.]
- 현은자 외 역 (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Albert Green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CUP.

[Hyun, E. J. et al. (2000).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Seoul: CUP. Trans. Albert Green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Springs: ACSI]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Biblical Curriculum Reconstruction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이 아 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석사)

이 숙 경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신저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초임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미만의 연구 참여자들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재구성 관련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재구성 과정에서 크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전의 재구성 경험 부족,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이해, 재구성 방법(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 선정, 학습활동 구성), 재구성 연구를 위한 시간과 환경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 개인의 신앙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들의 성경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차원, 학교 공동체 차원, 기독교 교육계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대안학교, 초임교사,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질적 연구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

**An Anlaysia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이 상 민 (Sang-Min Lee)**

ABSTRACT

Jacques Ellul criticizes new mythologies emerging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technology. This is because the technology today is an autonomous process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humans and is a sacred world. According to Ellul, the various mythologies that exist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are history, science, state, politics, money, growth, progress, sports, advertising, mass media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e Christians liberated in Jesus Christ must cease to idolize such mythologies that alienate humans. Ellul presents 'awakening' as a solution to such problems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and as a special Christian act. By the way, the essential element for 'awakening' is to destroy the modern mythologies. Such 'awakening' results in two consequences. First, it is to recognize the 'incident' of Incarnation in which God intervened in the history and rediscover its meaning in the world. The 'incident' of Incarnation is contrary to the modern mythologies, and only from that 'incident' the Christians can rediscover the essential areas indispensable to the their thinking and lives. Second, it is to rediscover the boundary of the 'divine inviolability'. Intellectual inquiry should not go beyond the 'divine inviolability' because, through the mechanical means, it can subjugate, deny and trample the 'divine inviolability' beyond its own capability.

Key words : Jacques Ellul, Jacques Ellul, Technological Thought, Technological Society, New Mythologies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9일 최종수정, 3월 19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국제고등학교(Seoul Global High School) 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3길 40, 7890jt@gmail.com

I. 서론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술 사상으로, 그는 일생동안 기술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그가 현대 사회에서 기술 현상을 분석하고 고찰하면서 기술 현상과 관련하여 집필한 저서는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Armand Colin, 1954) 『기술 체계』(*Le système technicien*, Calmann-Lévy, 1977) 『기술 담론의 허세』(*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1988) 등 모두 3권이다. 1954년에 출간된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은 총괄적인 분석 방법으로 ‘기술 사회’ 혹은 ‘기술 현상’을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파악하고 연구한 저서이다. 1977년에 출판된 『기술 체계』는 기술 사회 내부에서 기술을 ‘체계’로 간주하여 연구한 저서이다. 그런 기술 체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상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이 저서는 그의 사상의 요체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8년에 나온 『기술 담론의 허세』는 기술과 관련된 삼부작의 마침표가 되는 저서이다. 특히, 이 저서는 기술 사회와 관련된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고 있다. 즉,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담론들, 곧 기술을 옹호하고 신성시하는 담론들을 비판한다.

기술과 관련된 그 세 권의 저서를 중심으로, ‘선전’을 주제로 한 저서인 『선전』(*Propagandes*, Paris: Armand Colin, 1962)과 『선전의 역사』(*Histoire de la propagand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ection «Que Sais-je?», 1967)는 기술 사회에서 인간을 개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서술한다. ‘정치’를 주제로 한 저서인 『정치적 환상』(*L'Illusion politique*, Paris: Éditions Robert Laffont, 1965)은 기술 사회 속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특히, ‘혁명’을 주제로 한 저서인 『혁명에 대한 분석』(*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Calmann-Lévy, 1969), 『혁명에서 반란으로』(*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Calmann-Lévy, 1972), 『혁명의 쇄신』(*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1982)은 기술 사회 속에서 가능한 혁명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엘뤼가 기술과 정치와 선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 사회에 대해 행한 비판적 분석은 ‘혁명’을 다룬 이 세 저서에서 마무리된다.

최근에 와서 프랑스에서는 엘뤼의 기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그의 사상과 관련된 학회와 심포지엄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그의 기술 사상이 사후에 프랑스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현시대에 심각하게 부각되는 다양한 문제 및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 같은 사회적 위기, 통제되지 않는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의 위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 기후와 기후 재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핵 재난, 유전자변형 식품과 광우병, 동물 복제로부터 시작된 인간 복제의 가능성 등이다. 그러한 위기와 위험과 재난에 직면하여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만, 속 시원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가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을 중심축으로 하는 엘

릴의 사상을 돌아보니 그 해결의 실마리와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장 뤽 포르케(Jean-Luc Porquet)에 따르면(Porquet, 2004; 5-6), 엘릴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상가보다 더 우리 시대를 명확히 밝혀준다. 엘릴은 분명히 점점 더 해체되고 복잡해지며 파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 숨겨진 논리를 폭로한다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 생물 다양성 붕괴,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고갈, 물 부족, 열대 우림 소멸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환경 재난, 또한 광우병, 유전자변형 식품, 석면 공해, 핵폐기물, 사고위험 공장, 전파기지국, 알레르기의 급증, 동물 복제, 대유행 전염병 같은 반복되는 위기, 그리고 불특정 대중 대상의 돌발적 테러 등 이 모든 현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 그것이 단지 기능장애나 혹은 역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깊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예감한다.

엘릴은 그 모든 현상들을 예견하면서 그 근본 원인으로 ‘기술’을 든다. 특히, 그는 그 혜택들이 끊임없이 과장되는 기술적 진보가 주체가 없는 과정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기술은 독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맹목적인 힘이 되고, 자체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실패도 함께 품으면서 자체의 원리에 따라 자가 증식한다. 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힘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기술은 판단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다. 결국, 기술은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하고 취약한 것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특히, 기술은 자체의 특성들을 통해 중립적 실체가 더는 아니라,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비인격적 권세가 됨으로써, 인간은 기술을 신뢰하고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에서는 엘릴의 그러한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기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기술 사회와 신화

1. 기술 사회에 대한 정의

엘릴은 우리 사회에 대해 내려지는 여러 정의를 분석한 후 그 정의들이 기술을 향한다고 주장한다(Ellul, 2004d: 13-22).

첫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의 ‘산업 사회’라는 정의인데(Aron, 1986), 이 용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 즉, 서구 사회가 19세기에는 산업 사회가 되었지만, 산업 현상은 기술적인 두 요인인 기계의 증가와 생산의 조직화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산업 현상은 19세기의 산업 현상과 공통점이 없다. 그래서 엘릴은 ‘산업 사회’로부터 ‘기술 사회’로의 변천 및 이 둘 사이의 대립에 대해 논증하면서 현대 기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즉, 현대 기술은 수단 속으로

목표를 재통합하고, 노동의 기회를 없애며, 실제로 노동의 기회를 줄인다. 특히, 산업우선주의나 산업생산의 발전과 어긋나는 현대 기술 자체는 자동화, 화학 작용, 에너지 절약, 인공두뇌학의 적용, 정보처리 기술, 생물학적 개입, 핵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전의 산업적 기계 사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후기 산업 사회’나 알랭 투렌(Alain Touraine)의 ‘진보된 산업 사회’ 같은 정의이다(Bell, 1974 ; Touraine, 1969). 이 정의들은 불명확하고 의미가 없고, ‘산업 사회’ 앞에 붙은 ‘후기’나 ‘진보된’ 같은 형용사들이 완전히 쓸모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혀 규정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벨이 규정한 서비스 산업 경제의 생성, 기술전문가 계층의 우위, 이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자율적 기술담론의 증가, 새로운 지적 기술 담론의 생성이라는 ‘후기 산업 사회’의 다섯 가지 특징은 기술과 바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 사회’ 혹은 ‘제3차 산업 사회’ 같은 정의에 있어,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이 사회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현재 현상들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 현상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셋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소비 사회’라는 표현이다(Baudrillard, 1970). 이 표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설명하는 핵심어가 아니며, 우리 사회는 소비에 의해서 만큼이나 노동이나 생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물론, ‘소비 사회’라는 용어가 이 같이 아주 불충분하지만, ‘소비’ 속에서 기술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고 기술은 소비를 유발하고, 기술에 힘입어 가능한 대량생산은 소비를 부추기며, 기술적 물품이 소비할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넷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관리 소비 관료 사회’라는 정의이다(Lefebvre, 1975). 물론, 이 표현이 우리 사회의 기능과 구조 중 어떤 것에 완전히 일치하지만, 조직과 소비와 심리적 활동 같은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만을 받아들일 따름이지, 대중화와 생산 같은 중요한 다른 측면을 배제한다.

다섯째, 새로운 대중매체의 출현이 결정적인 사실이라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정의이다(McLuhan, 1964). 이 새로운 대중매체는 사회조직체를 변형시키고 각자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술적 매체인 새로운 매체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생겨나서 기술적 진보를 동반하므로, 기술적 진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국제무정부주의자들이 지칭하는 ‘구경거리 사회’라는 표현이다(Dubord, 1967). 만일 ‘구경거리 사회’가 있다면 이는 기술화 때문에, 기술화에 힘입어, 기술화를 위해 그렇게 된 것이며, ‘구경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서 이상적인 틀과 유리한 환경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들에서 파악된 특징들을 설명하는 결정적 사실은 기술 현상이며, 제시된 그 모든 정의에서 기술 현상이 공통 요인으로 드러난다.

2. 신화의 역할과 기능

엘룰은 인간의 역사에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언급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역사는 방향도, 정해진 노정도, 이유도 없이 네 마리의 말이 펼치는 광란의 경주로 묘사된다. 네 마리의 말은 각각 정치권력과 군사력, 경제력, 죽음 및 죽음의 원천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la parole)을 나타낸다. 네 마리 말은 격렬하고 난폭하게 질주하면서 지상의 모든 곳을 누비고 다닌다(계 6: 2-8). 그런 광란의 경주들이 조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Ellul, 1987: 24).

엘룰은 “신화는 합리성이 표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했다”(Ellul, 2003: 66)라고 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서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힌다. 그러한 방식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놀라운 풍성함과 심오한 진실성을 지닌 풍요한 의미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이 영원히, 총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당연히 부여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의 모험, 곧 인간의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인간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일관성을 위한 것이고, 허무나 혹은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인데, 부조리는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Ellul, 1987: 24-25). 따라서 엘룰에게 신화는 인간이 체험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도구이다.

엘룰은 인간이 ‘겉모습’만 파악하여 믿으려 들고 ‘겉모습’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이 시대의 특징으로 든다. 이 시대와 문명 전체의 지식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진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세상이 드러내는 실제 상황을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은 대중매체나 광고나 선전이 전달하는 것만을 보고서 거기 나온 그대로를 진짜로 여길 뿐,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 자신의 삶과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다. 통신수단과 선전수단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정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밀려드는 뉴스와 이미지 속에 빠진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연결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사실들’ 사이에 일관성을 요구한다. 엘룰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 ‘설명적 신화’라고 하면서, ‘설명적 신화’가 인간의 지적 체계 전체의 진정한 지주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심각한 점은, 현대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신화’가 주는 ‘설명’에 의존하기에, 현대인에게 이 ‘신화’ 외에 다른 지적 일관성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Ellul, 1988b: 89-106).

3. 신화와 ‘신성한 것’에 대한 현대인의 재해석

엘룰에 따르면(Ellul, 2003: 201-202), 우리 시대에도 인간의 종교적 충동이나 혹은 종교적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종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은 늘 종교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는 현대인이 심하게 느끼는 고독에 관계되고,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관계되며,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심리와 관련된다. 그래서 엘월은 현대인이 겪는 포괄적인 경험 세 가지를 들면서, 그런 경험과 상황을 통해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과 '종교적인 것'에 뛰어든다고 지적한다(Elul, 2003: 311-313).

첫 번째 경험은 인간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흥분케 하는 모험인데, 사물들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거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궁극적인 물질을 탐구하고, 인간 뇌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매일 늘리고,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며, 죽음의 경계를 물려서게 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인간은 또 다른 두 번째 경험을 하는데, 한계에 이른 잔혹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당황하게 하는 '미래의 충격'일 뿐 아니라, 인간을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간에게 깊은 충격을 주는 일이다. 즉, 자신의 조상과는 달리 현대인은 일상화된 살육과 테러,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핵폭탄에 의한 히로시마에서의 대량학살, 러시아의 강제노동수용소, 인도와 콩고와 비아프라와 쿠르드와 벵골에서의 대학살, 전면전, 일촉즉발의 분쟁지역 등 그 모든 것을 알고 목격한다.

현대인이 겪는 세 번째 포괄적인 경험은 현대인이 걸으로 보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한다는 것이다. 즉, 기아 문제, 인구과잉 문제, 오염 문제는 현대인 모두와 관련되는 엄청난 문제이면서, 현대인이 다른 해결책으로 그 해결책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문제이다. 그런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인이 어떤 여유도 거리 두기도 고찰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전통적인 토양에서 뿌리 뽑혀 기존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엘월은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여태껏 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임을 보여 주기 위해, 현대 세상에서의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현대 세상이 세속적이고 세속화된 세상, 무신론적이고 종교와 무관한 세상, 신성을 박탈당한 탈(脫)신화화된 세상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이 되었지만, 현대 세상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이 더는 신앙심을 갖지 않고 명백한 증거를 원하며 '종교적 신심(信心)'을 따르지 않고 이성을 따른다는 견해, 현대인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견해, 현대인이 신화들 속에서 표현되는 전통적 사고가 아닌 새로운 사고방식 속으로 들어왔고 초월적이지 않은 말만을 들을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견해, 결국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견해는 현대인의 실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월은 그런 견해들

1) “신화를 뜻하는 ‘미스(myth)’란 말은 그리스어 ‘뮈토스(mythos)’에서 유래했다. ‘뮈토스’는 논리적 언어인 ‘로고스(logos)’와 대립되는 말로서 신성하고 감성적인 언술이라는 의미이다. 즉, 원시인들이 직관적 감성으로 우주 자연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가 전승 집단의 규범으로 신성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나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화는 신성성을 본질로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이야기한 존재가 신성해야 한다. 신성한 존재는 신이거나 인간 사회에서 신과 교통하는 존재인 사제자이다.”(“신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Retriev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77> (2020. 11. 10.)). 이와 같이, 신성성 혹은 ‘신성한 것’은 ‘신화’의 본질일 정도로 ‘신화’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신성한 것’은 ‘신화’와 동의어는 아니더라도 ‘신화’와 거의 같은 의미 군(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일반 종교나 '종교적 신심'과 관련되기보다 기독교, 기술, 과학 같은 문제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을 비(非)종교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인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듣기 원하지 않고, 교회는 현대 사회에 더는 파고들지 못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인을 비(非)종교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현대인의 거부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Ellul, 2003: 35-39).

그런 관점에서, 엘룰은 현대인이 모든 것의 신성을 박탈했고 신성하지 않은 세계에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즉, 현대인이 신화 세계로부터 나왔고 신화와는 낯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탈(脫)신화화되어 있기에, 성서와 같은 신화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런 견해와도 연결된다. 즉, 현대인이 과학에 몰두해 있기에 신화를 믿지 않고, 현대인은 합리화된 동기를 따르며 기술에 열광하기에 신화적 정신 상태에서 빠져 나와 합리적이 되고, 현대인은 세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믿기에 종교를 더는 믿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현대 기술 사회는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 행복 추구에 전념하기 때문에, 현대 기술 사회는 신성한 세상이 더는 아니고,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견해이다. 엘룰은 현대인과 현대 기술 사회에 대한 그런 견해가 신화와 '신성한 것'은 시대에 뒤진 과거의 태도와 일치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Ellul, 2003: 71-80).

III. 새로운 신화들과 그리스도인의 '자각'

1. '신성한 것'으로서의 기술과 현대인의 근본 신화

엘룰에게 현대인은 중세의 인간만큼 종교적이며 '신성한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자신에게 '신성한 것'의 구실을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엘룰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신성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오늘날의 '신성한 것'은 인간이 무질서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세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서 제시하는 명백한 질서이다. 오늘날의 '신성한 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관련하여 '신성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제 인간이 '신성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느끼는 권세들의 영역과 장소가 되는 것은 사회이지만, 기술이 인간의 삶의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기술화 된 사회이다. 결국, 자연과 우주와 전통적인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신성 박탈은 기술로 인한 사회의 신성화를 수반한다. 신성 박탈의 요인이던 기술이 그와 동시에 새로운 '신성한 것'의 중심 요소가 된 것이다(Ellul, 2003: 103-107).

그래서 엘룰은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현대 서구세계는 신성화된 세계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요인으로서 기술을 든다. 현대인이 신성한 현상으로 깊이 느끼는 기술은 인간

이 범할 수 없는 것이고 완벽한 지고의 작품이므로,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이든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기술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며, 기술에 대립하는 것은 가증스럽고 악마 같은 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술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그런 숭배에 가장 심하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에게 기술은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것’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현재의 인간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기술은 인간의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없이는 인간은 홀로 초라하고 험벗은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신성하다는 것이다(Ellul, 2003: 112-118).

그와 같이, 인간이 기존에 가졌던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이 기술에 의해 박탈됨으로써 기술은 예전의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기술이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 현대 기술 사회의 상황에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로 보이는 ‘신성한 것’에 대한 욕구가 그러한 기술을 통해 과연 충족되는 것인가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엘룰은 기술을 옹호하고 신성시하는 기술 담론이 인간을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소위 ‘인본주의적 담론’임을 자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술 담론이 내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힘을 보장해 주며, 각각의 기술적 진보는 태초의 인류가 지닌 근본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이 강조하는 바는 순수한 기술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절대적 행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과 관련된 ‘인본주의적 담론’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 전체를 통해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룰은 우리가 그러한 ‘인본주의적 담론’과 정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기술은 인간에 개의치 않고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일 따름이며, 인간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기술 담론이 내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에 현혹되어 ‘신성한 것’에 대한 욕구가 기술을 통해 충족되는 것 같은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간다(Ellul, 2004a: 243-253, 281).

한편, 엘룰은 신화가 주어진 문명들과 상호 관련되어 문명들의 깊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힌다. 신화는 문명 한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문명의 발전 과정이나 문명의 위기상황에 인간 대중이 가담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포괄적이어야 하는데, 신화는 상황과 행동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므로, 신화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속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역사적 상황은 신화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활동 수단과 현실에 대한 인간의 활동 수단은 저절로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인간을 신화를 피할 수 없다. 엘룰은 오늘날 현대 기술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주된 ‘근본 신화’로서 ‘역사’와 ‘과학’을 든다(Ellul, 2003: 148-161). 현대 기술 사회 저변에서의 깊은 흐름을 나타내는 ‘근본 신화’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모든 집단 신화가 수

립되는 토대로서의 신화이다(Ellul, 2008a: 52).

첫 번째 주된 근본 신화인 역사는 현대인이 자신의 기원을 다시 파악하는 수단이고 자신이 근거를 두는 수단이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고,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것 전체로부터 정당화된다. 따라서 인간의 유일한 소명은 역사가 여전히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이 바로 신화의 기능이다. 두 번째 주된 근본 신화인 과학은 그 내용과 원리와 목적으로서 진리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 진리를 드러낸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학의 보편적 능력에 대한 그런 절대적 확신은 과학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에 연결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기원을 밝혀주고, 인간의 현재를 정당화하며, 인간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바로 과학이 된다. 이와 같이, 과학이라는 신화는 현대 인류의 신화가 되고 보편적 기준이 된다².

현대 사회에는 ‘역사’와 ‘과학’이라는 주된 근본 신화 외에도 ‘진보’, ‘국가’ 등과 같은 대표적인 근본 신화가 있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다. 엘룰은 그런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모든 사회에는 신화가 있었지만 이데올로기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신화는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의 영혼 속에 훨씬 더 깊이 뿌리박고 있고 더 지속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상황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셋째, 신화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적극적이며, 인간에게 활동을 유발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가 수동적인 반면, 신화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실현하도록 인간을 부추긴다. 결국, 그 신화들은 인간 문명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토대이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문명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Ellul, 2003: 171).

2) 과학이 신화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바이제커(Weizsackers)의 이론을 통해 과학과 신화와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송병옥, 1995: 145-150). 본래의 자연이란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는 신화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자연은 기독교가 있기 전에 현존하는 삶의 형식과 인간 영혼에서의 일종의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전의 고대의 옛 문화에서 자연은 다른 개념, 곧 기독교의 유일신이 아닌 신들이나 혹은 자연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현대인에게도 신화적인 힘이 삶 자체의 근원적인 힘으로서 현대인을 실제로 지배한다면 자연이란 세속화된 실체가 아니라 여전히 신화적인 힘의 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이 신화에서 벗어남으로써 인간이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킨 ‘사랑의 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인간이 ‘사랑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므로 자유는 ‘사랑의 신’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만 인간은 신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 해방을 통해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인간’으로 정의된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연은 이제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의 피조물로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연과학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바라본다면, 자연과학은 원리적으로 또 다른 의미의 신화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자연과학의 그런 신화적 속성은 근대과학의 시조 갈릴레이의 자연관에서도 발견된다. 갈릴레이는 인간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실체에 기초하여 근대과학의 기초를 다지기는 하지만 이는 신화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근대의 자연과학은 그 나름의 역사적 신화를 갖고 있는데, 이는 갈릴레이에 관한 신화이다. 그 신화는 갈릴레이가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대로 이를 서술함으로써 과학의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특히, 갈릴레이는 현실적인 현상들의 복잡성을 개별적 요소로 쪼개는 수학적 분석으로의 길을 여는데, 과학적 실험은 질문을 제기하고 답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하여 주어진 자연은 조종 가능한 ‘실재’로 전환된다. 결국, ‘사랑의 신’을 배제하고서도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갈릴레이의 신화이며, 이는 과학이 신화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현대인이 '신성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현대 기술 사회에는 다양한 '세속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 '세속 종교'에는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신화들이 존재한다. 엘룰은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차례로 분석한다.

첫 번째 신화인 '국가'는 두 번째 신화인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나치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을 '정치적 세속 종교'로 규정된다. 그런데, 지금 목격되는 변화는 그런 종교들이 퇴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특성을 띤 모든 정치 활동 형태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종교적 긴장은 낮아지는 동시에,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국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국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국가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은 신성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된 '정치 종교'는 국가가 신성화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현대 시민들의 정치 행위는 국가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것'을 표현한다(Ellul, 2003: 303-315).

두 번째 신화인 '정치'의 신화적 측면은 현대인의 '정치화'와 관련된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정치의 영역 속에 포함되고, 그런 정치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과정과 매개체는 국가의 성장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정치화'는 모든 것을 정치적 용어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치'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며, 모든 것을 국가의 수중 속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정치화'는 매사에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며, 개인의 문제들을 집단으로 넘겨버리고, 정치가 각자의 수준에 있으며 각자는 정치에 적합하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더는 가치들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탁월한 가치가 되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하여 다른 가치들이 정돈된다. 결국, 정치는 '종교적 신심'으로 표현되고,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Ellul, 2004c: 35-55).

세 번째 신화인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과 집단적인 삶 전체를 점차 '돈'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유'를 위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중요성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자본주의의 국가와 사회주의의 국가에서의 돈에 대한 태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Ellul, 1979: 20-28). 데이비드 길(David Gill)은 그 체제가 다를지라도 어떤 국가에서든 돈의 승리를 것처럼 예견한 엘룰의 분석을 돈이 전부가 된 현대 기술 사회의 상황에 적용한다. 돈은 사람들의 경외심과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의 중심을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의 원천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돈은 사람들의 삶에서 '맘몬'(Mammon)이라는 신의 속성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돈에 대해 경고한다. 돈은 '영적 권세'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상만사와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반드시 말살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된다(Gill, 2014: 117-120).

네 번째 신화인 ‘성장’과 ‘진보’는 그 신화적 특성을 이렇게 드러낸다. 우선,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면 기술 자체는 절대적 필연성이 되고, 그런 기술은 현대인에게 숙명과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기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분야와 활동과 현실은 기술에 의해 장악된다. 더욱이, 기술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종류의 영역도 분야도 더는 없다. 기술은 그 자체로 ‘자기원인’(自己原因)³⁾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보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모든 고찰에서 절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이 단지 따라야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는 바로 기술적 성장이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진보는 그러한 기술적 성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장’과 거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진보’는 현대인의 새로운 신화가 된다(Ellul, 2004a: 365-404).

다섯 번째 신화로서 ‘스포츠’는 현대인의 주의를 돌리고 분산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마법이다. 기술은 스포츠에서 이중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기술은 스포츠의 실행방식을 변모시키면서 스포츠 자체에서 작용한다. 다음으로, 기술은 스포츠를 텔레비전과 다양한 이미지의 이상적인 볼거리로 만들면서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스포츠는 변화한다. 스포츠 경기자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끊임없이 기록을 높인다. 끊임없이 더 뛰어난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한, 그런 기술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동시에 삶 전체를 망라한다. 그래서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로 귀결되고 만다. 시합이나 혹은 경기가 단지 놀이에 해당한다면 극도의 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 담론을 통해 스포츠는 엄청난 구경거리로 변모하고, 챔피언이나 운동경기 스타처럼 경기장에서의 신(神)이 만들어진다(Ellul, 2004a: 654-663).

여섯 번째 신화인 ‘광고와 대중매체’에 의한 오락, 정치 선전, 인간관계나 홍보,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을 기술에 적응시킨다는 유일한 기능이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은 학교나 직업의 영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심리적 만족과 동기를 제공한다. 그런 심리적 만족과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 사회에서 살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기술 사회 속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간다. 특히, 광고나 혹은 오락은 기술 사회에 대한 신격화된 이미지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오늘날 인간은 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다. 오늘날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바로 그 때문에 기술을 섬기는 존재이다. 결국, 기술을 섬기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Ellul, 2004d: 319-322, 334).

일곱 번째 신화로서 ‘정보처리기술’은 자동업무처리, 텔레마티크⁴⁾, 로봇 공학, 자동화 생산이라는 분

3) ‘자기 원인’(Causa sui). 이 용어는 스킨라 철학에서 비롯되었는데, 스킨노자의 철학에 의해 잘 알려진 용어이다. 대개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으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자체의 본질에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킨라 철학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것은 신(神)이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765).

야로 나누어진다. 컴퓨터의 무한한 가능성은 회계와 주문과 정보를 위한 모든 세대의 설비, 그리고 업무 실행을 위한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의 설비로 나타난다. 또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정보 업무의 자동화, 경제성장률의 향상, 정보처리기술을 통한 학교 교육 수준의 개선, 의료 정보화를 통한 건강 수준의 개선, 공해 비율의 감소 등 이 모든 것은 컴퓨터의 환상적이고 완벽한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술은 현대 기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서 일종의 구원의 존재, 곧 신적인 존재가 된다(Ellul, 2004a: 495-518).

그럼에도 국가, 정치, 돈, 성장, 진보, 스포츠, 광고,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 같은 현대 기술 사회의 새로운 신화들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즉,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기술 사회에서, 그 신화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 신화들에서 근본적으로 신성을 박탈함으로써 그 신화들을 없앴다면, 엄청난 대다수의 사람을 광기나 혹은 자살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Ellul, 2003: 315-316). 그와 같이,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은 현대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거나 광기를 막아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신화들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음 같은 문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우선, 그 새로운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는 엘뤼이 제시하는 ‘신성한 것’의 기능과 관련된다. 엘뤼에 따르면(Ellul, 2003: 80-89), ‘신성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공간 속에서 어떤 행동 질서를 규정한다. 그 질서에 힘입어 인간은 완전히 일관성 있는 의미들을 받아들인다. 또한 ‘신성한 것’에는 개인을 집단 속에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 ‘신성한 것’이 집단적일 때만이, 또한 ‘신성한 것’이 공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체험될 때만이 ‘신성한 것’은 존재한다. 인간은 ‘신성한 것’ 속에 편입됨으로써 집단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떠맡게 된다. 특히, 현대인은 정리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그런 현대인에게는 그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연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현대인은 그 모든 정보 사이에 일관성 있는 의미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새로운 신화들을 통해, 현대인은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어떤 행동 질서에 반드시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집단 속에 여지없이 통합되어 집단의 모든 행동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는 현대인이 그런 신화들에 매혹되어 그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은 기술이라는 엄청난 도구에 매혹당하고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왜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모두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살고 있다. 엘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순전히 허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Ellul, 1988a: v-xi).

4) 텔레마티크 *télématique*. 통신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융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3.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각’

엘룰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태도와 견해 표명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를 통해 생겨난 산물일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의도적이든 혹은 비의도적이든 간에 세상의 사고에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엘룰은 기독교적 입장과 동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적응하려 할 때 일어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즉,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적응한다는 견해는 성서적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행동 지침이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적응이라는 행동 지침은 진보에 대한 집단적 신뢰에 연결되어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성서에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는 현대의 신화와 직면한다(Ellul, 1963: 55).

그와 같이, 진보에 대한 집단적 신뢰로 가득 차 있고 과학과 기술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인간이기에 그런 열광적 분위기에 맞서지 못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참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엘룰은 기독교적 입장과 동기에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적응을 정당화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세상에 적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자각’을 제시하는데, ‘자각’은 세상을 그 실재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겉모습’과 ‘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한 거부이고,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진보’라는 환상에 대한 거부이며, 역사의 숙명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고 인간이 회복된다는 환상에 대한 거부이다. 그는 그런 ‘자각’에 필요한 요소로서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로서 ‘자각’이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유일한 행위이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는 행위인 ‘자각’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을 제시한다(Ellul, 1988b: 107-113).

첫째, 세상에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은 살아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건’을 통해 개인적 결단에 이르기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도 반대된다.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현재의 사건’이다. 오로지 거기서 출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다(Ellul, 1988b: 116-118).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⁵⁾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가 기술에 예속되어 버린 문제의 해

5) 여기서 ‘신성불가침의 것’이란 인간이 만든 현대의 신화들처럼 인간에 의해 신성화된 세계나 영역이 아니라, ‘초월자’나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관련된 세계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엘룰에게 ‘세속적인 것’과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두 영역은 ‘현실’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엘룰은 기술적 지배권에 연결된 현대 기술 사회의 주된 경향이 ‘현실’과 ‘진리’를 동일시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현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면서, ‘지각’(視覺)이라는 수단을 통해 내가 감지하는 세상이다. 반면, ‘진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종착지와 관련되고,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과 관련된다. 그런데, 기술 사회는 확인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을 설득하려 든다는 것이다(Ellul, 1981: 32).

결책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두 영역이 있음을 '지적 탐구'를 통해 재인식하고 두 영역 사이에 경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견에는 '지적 탐구'가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나,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는 것은 아님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것' 안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 이것이 '지적 탐구'의 기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적 탐구'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⁴ 그런데, 이는 '지적 탐구'보다 뛰어난 외부의 판단 기준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지적 탐구'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분야나 혹은 기술적인 수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분야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탐구'가 진정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Elul, 1988b: 118-121).

IV. 결론

엘룰은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여태껏 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임을 보여 주기 위해, 현대 세상에서의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현대인이 모든 것의 신성을 박탈했고 신성하지 않은 세계에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현대인이 신화 세계로부터 나왔고 신화와는 낯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탈(脫)신화화되어 있기에, 성서와 같은 신화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와 같이, 엘룰에게 현대인은 중세의 인간만큼 종교적이며 '신성한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자신에게 '신성한 것'의 구실을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성한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엘룰은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현대 서구세계는 신성화된 세계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요인으로서 기술을 든다. 그와 같이, 인간이 기존에 가졌던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이 기술에 의해 박탈됨으로써 기술은 예전의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다.

신화는 주어진 문명들과 상호 관련되어 문명들의 깊은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신화는 문명 한가운데

4) 지적 탐구가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전공학의 일탈과 '밀실 생명공학'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다. 특히,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고만장한 연구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기술 문명의 근본 법칙이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8년 영국에서 현재의 '인간생식배아 법안'이 통과된다. 그 이후, 배아 생식과 배아 연구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 최고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 155개의 '인간 동물' 잡종 배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로부터 잡종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세포가 미리 적출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되는 경우 '세포질체잡종'(細胞質體雜種)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의 배아나 혹은 세포가 서로 융합되는 경우 '키메라'가 된다. 그 때문에, 그런 종류의 연구, 특히 영장류의 뇌 속에 이식된 인간의 줄기세포 실험에는 더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Barrientos-Parra, 2014: 150-153).

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문명의 발전 과정이나 문명의 위기상황에 인간 대중이 가담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것처럼 신화는 상황과 행동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므로, 신화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속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의 역사적 상황은 신화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활동 수단과 현실에 대한 인간의 활동 수단은 저절로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인간을 신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엘뤼는 오늘날 현대 기술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신화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근본 신화’로서 ‘역사’와 ‘과학’을 든다.

엘뤼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신화들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인 과정이며 신성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은 ‘신성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현대 기술 사회에는 다양한 ‘세속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 ‘세속 종교’에는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신화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그는 현대 기술 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화들에 대해 차례로 분석하면서, 그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현대인이 그 신화들에 매혹되어 그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은 기술이라는 엄청난 도구에 매혹당하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엘뤼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와 의무로서 ‘자각’을 제시한다. 그런 ‘자각’에 필수적인 요소는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인데, ‘자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에 개입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세상에서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 반대되며,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다.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기에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공학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무엇이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지 모른 채 체계와 조직에 순응해 살아가면서, 그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품으로서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따름이다. 따라서 엘뤼의 기술 사상을 토대로 신성화된 기술을 비롯해 현대 기술 사회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자각하고 그 신화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둔다면, 기술 문명 속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절정은 기술에 대한 어떠한 거리 유지이든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성한 것’이 오히려 신성을 박탈하는 대상인 기술에 전이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때문에, 엘뤼는 “우리를 굴종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에 전이된 신성함이다.”(Ellul, 2003: 316)라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신앙과 소망을 통해 기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앙과 소망을 통해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술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기술들에 더는 매혹당하지도 종속되지도 말아야 한다. 결국, 인간을 예측시키는 것은 기술도 국가도 아니라, 인간에게서 비판 기능 전체를 없애는 기술이나 국가에 대한 숭배이다(Ellul, 2003: 316-318).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술 체계 밖에 존재하고 닫힌 세상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술적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술의 신성함을 더는 숭배하지 않고 기술의 신성함을 떨어뜨리면서, 기술이라는 도구를 섬기는 대신 그 도구를 인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도록 되어 있고, 기술 사회의 모든 우상에 대해 그 신성함을 떨어뜨리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증언하기로 되어 있다. 엘룰이 언급하듯이(Ellul, 2004b: 257),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맥락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실재에 따라 자신의 행위와 결단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만 자신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룰은 현대 기술 사회와 관련하여 예언자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기술과 관련된 그의 삼부작은 각각 1954년, 1977년, 1988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현대 기술은 그 당시 상상도 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엘룰의 기술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그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지배에 어떻게 저항할지에 대해, 또한 기술 사회의 온갖 우상과 신화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자크 엘룰의 ‘자율적’ 기술 개념”(강성화, 2001), 『자크 엘룰의 기술 철학 연구』(강성화, 2002), 『자크 엘룰의 기술 문명 비판 : 사회학적 불가능성과 신학적 가능성』(임재원, 2005),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이상민, 2019) 등이 있다.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그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엘룰의 기술 사상에서의 핵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성화된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현대 사회에서 신성화된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기술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신화적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 즉, 신화와 관련된 기존의 개념과 관점에서 볼 때, 엘뤼이 현대 기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화로서 제시하며 분석하는 역사와 과학을 비롯하여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 같은 요인들을 과연 신화로 과연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와 쟁점이 있음에도 그 견해나 쟁점을 제대로 제시하거나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연구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견해와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에 자크 엘뤼의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참고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고에서의 엘뤼 관련 내용은 참고 문헌에 제시된 프랑스어 원전에서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 Ellul, J. (1963). *Fausse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Les Bergers et Les Mages.
- _____. (1967). *Histoire de la propagand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ection «Que Sais-je?».
- _____. (1969). *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Calmann-Lévy.
- _____. (1972).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Calmann-Lévy.
- _____. (1979). *L'Homme et l'argent*,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 _____. (1981). *La parole humilié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87). *Ce que je crois*, Paris: Grasset & Fasquelle.
- _____. (1988a). "Préface" in : André Vitalis, *Informatique, pouvoir et libertés*, Paris: Economica, v -xi.
- _____. (1988b).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 _____. (2003). *Les Nouveaux Possédés*, Paris: Mille et une nuits.
- _____. (2004a). *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 _____. (2004b). *L'espérance oubliée*, Paris: La Table Ronde.
- _____. (2004c). *L'Illusion politique*, Paris: La Table Ronde.
- _____. (2004d). *Le système technicien*, Paris: Le Cherche Midi.
- _____. (2008a). *Propagandes*, Paris: Armand Colin, Éditions Economica.
- _____. (2008b).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Economica.
- 강성화 (2001). 자크 엘뤼의 '자율적' 기술 개념. *哲學研究*, Vol. 54, 273-293.
- [Kang S. H. (2001). Jacques Ellul's Concept of Autonomous Technology. *Philosophical Research*, Vol. 54, 273-293.]

강성화 (2002). **자크 엘뤼의 기술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Kang S. H. (2001). A study on Jacques Ellul's philosophy of technolog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김치수 역. (2015). **개인과 역사와 하나님**, Ellul, J.(1987). Ce que je crois. 대전 : 대장간.

[Kim C. S. (2015). *Individual, History and Go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7). Ce que je crois. Paris: Grasset & Fasquelle]

박동열 역. (2010).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Ellul, J.(1988). Présence au monde moderne. 대전 : 대장간.

[Park D. Y. (2010). *Christian in the Worl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8).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박동열·이상민 역. (2014). **굴욕당한 말**, Ellul, J.(1981). La parole humiliée. 대전 : 대장간.

[Park D. Y.·Lee S. M. (2014). *Humiliation of the Wor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1). La parole humiliée. Paris: Éditions du Seuil]

송병옥. (1995). 과학과 신화 : 바이젠거의 '과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Vol. 27, 141-162.

[Song B. O. (1995). Science and Myth : Around 'the Limit of Science' of Weizsac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27, 141-162]

안성현 역. (2019). **혁명에서 반란으로**, Ellul, J.(2011).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대전 : 대장간.

[Ahn. S. H. (2019). *From the Revolution to the Revolt*.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11).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La Table Ronde]

양명수 역. (2019). **하나님이나 돈이나**, Ellul, J.(1979). L'Homme et l'argent. 대전 : 대장간.

[Yang M. S. (2019). *God or Money*.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79). L'Homme et l'argent.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이상민 역. (2009). **잊혀진 소망**, Ellul, J.(2004). L'espérance oubliée. 대전 : 대장간.

[Lee S. M. (2009). *Forgotten Hope*.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D. Paris: La Table Ronde]

이상민 역. (2013). **기술 체계**, Ellul, J.(2004). Le système technicien. 대전 : 대장간.

[Lee S. M. (2013). *Tecnological System*.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Le système technicien*. Paris: Le Cherche Midi]

이상민 (2019).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신앙과 학문**, Vol.24 No. 1, 5-58.

[Lee S. M. (2019).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and Reflections on This Thought. *Faith & Scholarship*, Vol.24 No. 1, 5-58.]

임재원 (2005). **자크 엘룰의 기술 문명 비판 : 사회학적 불가능성과 신학적 가능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Leem J. W. (2005). *A Study on Jacques Ellul's Critical Thought of Technical Civilization : Sociological Impossibility and Theological Possibility*.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Philosophy encyclopedia (2009), *Philosophy encyclopedia*. Seoul: Joongwonmunhwa.]

하태환 역. (2011). **정치적 착각**, Ellul, J.(2004). *L'Illusion politique*. 대전 : 대장간.

[Ha T. W. (2011). *Political Illusio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L'Illusion politique*. Paris: La Table Ronde]

하태환 역. (2012a). **인간을 위한 혁명**, Ellul, J.(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대전 : 대장간.

[Ha T. H. (2012a). *Revolution for the Ma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하태환 역. (2012b). **선전**, Ellul, J.(1990). *Propagandes*. 대전 : 대장간.

[Ha T. H. (2012b). *Propaganda*.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90). *Propagandes*. Paris: Éditions Economica]

황종대 역. (2013). **혁명의 해부**, Ellul, J.(2011). *Autopsie de la révolution*. 대전 : 대장간.

[Hwang J. D. (2013). *Dissertation of the Revolutio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8). *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La Table Ronde]

Aron, R. (1986).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trielle*, Paris: Folio.

Barrientos-Parra, J. (2014), "De quelques aspects du progrès technique au début du XXI e siècle"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pp.150-163.

-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Édition Denoël.
- Bell, D. (1974).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Portsmouth: Heinemann Educ.
- Dubord, G. (1967). *La société du spectacle*, Paris: Buchet/Chastel.
- Gill, D. W. (2014). “L’Importance durable de Jacques Ellul pour l’éthique des affaires”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pp. 113-132.
- Lefebvre, H. (1975). *Le temps des méprises*, Paris: Stock.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 Hill.
- Porquet, J.-L. (2004), “Préface” in : Jacques Ellul, *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pp. 5-16.
- Touraine, A. (1969). *La société post-industrielle. Naissance d’une société*, Paris: Édition Denoël.
- “신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Retriev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77> (2020. 11. 10.)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릴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이상민 (서울국제고등학교)

ABSTRACT

자크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신화들에 대해 비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인 과정이며 신성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엘릴에 따르면, 현대 기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화는 역사, 과학, 국가, 정치, 돈, 성장, 진보, 스포츠, 광고,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로서 ‘자각’을 제시한다. 그런데, ‘자각’에 필수적인 요소는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자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째,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개입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세상에서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 반대되며,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다.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기에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주제어: 자크 엘릴, 기술 사상, 기술 사회, 새로운 신화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9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 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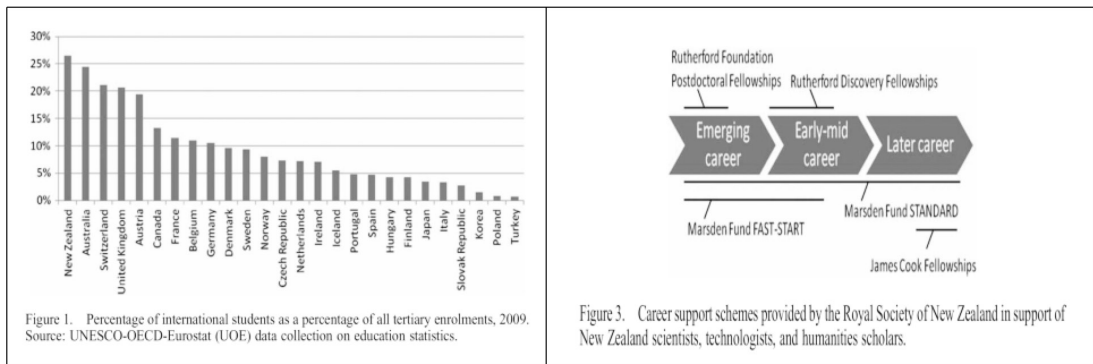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권오병 (경희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위 원	김경민(전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 교수)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현 (인천대학교)		박원곤 (한동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신응철 (동아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염동한 (부산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허계형 (총신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이경직 (백석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철수 (조선대 교수)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1호 (통권 86호), 2021년 3월호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권오병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